시로 읽는 성보순례
땅의 별자리들
국보 제40호 정혜사지십삼층석탑
통일시라시대 ▶2면

현대불교

남의 약점을 들춰내지 말고
언제나 스스로를 단속하라.
정의로 자기 마음 속을 살펴라.
〈잡아함경 제40권〉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56년 단기 4345년(음력 4월 17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 m
제891호 2012년 6월 6일 수요일



"스님, 불 들어갑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묘공당 대행 스님의 법구가 안치된 연화대에 불이 당겨지고, 불길이 올랐다. 그 불길 속에서 한 가지 불씨로 만 가지 꽃을 피운 스님의 생전 가르침이 들리는 듯 했다. **사진=박재완 기자**

"다함 없는 원력 계승하겠습니다"

5월 26일, 묘공당 대행 선사 영결 · 다비식 전국비구회장 엄수

한국 비구니계의 큰 스승이자 '마음 공부법'을 혁신한 시대의 선지식, 한마음선원장 묘공당 대행 스님의 영결식이 5월 26일 한마음선원 안양본원에서 전국비구니회장으로 봉행됐다.

이날 영결식에는 조계종 원로회의 부의장 밀운스님을 비롯해 조계종총무원장 자승, 포교원장 지원, 중앙종회의장 보선, 前 포교원장 혜총 스님과 前 비구니회장 광우, 명성 스님, 전국비구니회장 명우 스님 등 사부대중 3만여 명이 스님의 마지막 가는 길을 함께했다. 명종이 울리면서 시작된 영결식은 삼귀의, 반야심경, 전국비구니회 총무부장 경륜 스님의 행장 소개로 이어졌다.

원로회의 부의장 밀운 스님은 영결 법어를 통해 "대행 스님은 법문에서 자성은 생사가 없다고 했다"며 "무량한 공안이 부처와 조사의 망어요, 중생이 망상을 일으키는 그 마음이 바로 부처와 조사의 생사가 없는 본성이니라"고 설했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추모사에서 스님의 전법 공덕을 추모했다. 자승 스님은 "대행 스님은 새로운 포교의 지평을 열어줬다. 최초, 최고라는 수 많은 업적을 이룩하며 실천적이고 현대적인 다양한 포교 방편을 제시해줬다"며 "싱그럽고 건강하게 살자고 하신 스님의 원력을 계승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비구니회장 명우 스님은 영결사를 통해 "전국비구니회관 건립과 함께 전법 현장에서 모범을 보여주시고 한국불교의 생활화, 현대화, 세계화로 우리 비구니의 위상을 드높이신 자랑"이라고 추모했다.

중앙종회의장 보선 스님도 "한 가지 불씨로 만 가지 꽃을 피우며 중생제도를 하신 대행 스님의 원적을 슬퍼한다"고 애도했다.

포교원장 지원 스님을 비롯한 각계 인사들의 대행 스님에 대한 추모도 이어졌다. 지원스님은 조사를 통해 "대행 스님은 사람에 관계없이 그릇대로 법비를 내리시어 한마음의 차별없는 참 세상을 보여줬다"고 스님을 기렸다.

송석구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위원장도 조사에서 "수 차례의 결집으로 전승돼 온 부처님의 가르침이 팔만대장경이라면 큰 스님께서 일생동안 베푸신 법구는 한 마디 한 마디가 대장경의 날개가 되고 고금의 일승원음으로 우리 곁에 남았다"고 추모했다.

영결식 이후에는 1천여 만장과 함께 스님의 법구를 다비장이 설치된 주석처 서산정으로 이운하고 연화대에 안치했다.

"불, 법, 승. 스님 불 들어갑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스님의 연화대에 불이 당겨졌다. 연화대는 순식간에 화염으로 휩싸였다. 스승을 잃은 대중들은 슬픔을 감추지 못했다.

김종길(신도회, 64) 씨는 "늘 높고 낮음 없이 모든 이를 자비로 껴안으신 스님"이라며 "슬픔이 이루 말할 수 없다. 마음이 너무 아프다"고 흐느꼈다. 윤동교(청년회, 35) 씨는 "'나는 본래 부처다. 일체는 하나'라는 스님의 가르침을 깊이 새기고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연화대의 불길이 하늘로 올라갔다. 불자들의 흐느낌 사이로 대행 스님의 육성이 들리는 듯 했다.

"같이 걸어 갑시다. 영원토록 같이 걸어갑시다. 헤어진다 해도 마음이 하나일 때 그곳에 헤어짐은 없습니다. 설령 죽음이 갈라놓는다 해도 한마음에서는 이별이 없습니다."

한편, 대행 스님의 초재와 2재는 부처님오신날인 5월 28일과 6월 4일 한마음선원 안양본원에서 봉행됐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大韓佛教曹溪宗 全國比丘尼會報
한마음禪院長 妙空堂 大行禪師 永訣式

묘공당 대행 선사의 영결식이 5월 26일 한마음선원 안양본원에서 전국비구니회장으로 봉행됐다.

法 語

大行 스님 平素에 法門하시기를
自性은 生死가 없다고 하시었는데
금일의 永訣式은 누구의 永訣입니까?

無量한 公案이 부처와 祖師의 妄語요
衆生이 妄想을 일으키는 그 마음이
바로 부처와 祖師의 生死가 없는 本性이니라

佛紀 2556年 5月 26日
大韓佛教曹溪宗 元老會議 副議長 **密耘** 焚香

대행스님 영결·다비식 화보 12~13면

"임기 內 쇄신 전념할 것"

조계종총무원장 자승 스님, 확대 종무 간담회서

조계종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발언에 대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쇄신에 전념하겠다는 것"이라고 의미를 밝혔다.

자승 스님은 5월 25일 총무원 4층 접견실에서 열린 '중앙종무기관 확대 종무 간담회'에 앞서 나온 임기 관련 발언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자승 스님은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것은 그동안 있어 왔던 정치 관계나 계파 이익에 따른 요구를 더 이상 고려하지 않고 쇄신하겠다는 것"이라며 "소신껏 임기 내 최선을 다하겠다. 준비하고 있는 쇄신안이 발표되면 부실장들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임하지 않겠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자승 스님은 "결사추진본부 자문회의에서 총무원장부터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고 했다"며 "저 역시 뜻을 같이 하고 진정으로 쇄신하기 위해 재임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굳혔다"고 밝혔다.

오늘 발언에 전반에 대해서는 "부실장 스님들과 상의하지 못해 미안하다. 추호의 흔들림 없이 부실장스님 중심으로 쇄신해 나가자"며 "부실장 스님들과 승가공동체쇄신위원회, 결사본부를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승 스님은 중앙종무기관 근무 분위기 쇄신에 대한 의견도 제시했다. 스님은 "회식과 접대를 외부에서 해왔고 자연스레 사회적 관습에 물들었다. 이런 관습을 하나씩 버려야 한다"며 "손님 공양도 발우공양, 총무원 후원에서 할 수 있도록 하자. 화선지에 먹물이 퍼져가듯 관습을 바꾸자"고 당부했다.

종단 자정위해 재임 안해
인사, 쇄신위에 추천 일임
청규 제정 후 소신 행정

이와 함께 자승 스님은 모든 임명직이 '승가공동체쇄신위원회'에서 추천될 수 있도록 하고, 적합한 인재를 복수 추천하면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교역직 인사들도 쇄신 의지를 공감하고 현대적 청규 제정 등을 통해 소신 있는 종무행정을 펼치기로 결의했다.

신중일 기자

동국대, 인문 문학의 숲에 빠지다

중앙도서관 '명사 지식강연' 개최

문학 100년사 사화집 발간

동국대가 인문학 강좌와 문학사 발간을 통해 학생들의 지식함양을 돕는다.

동국대 중앙도서관(관장 박경준)은 '청춘의 재발견- 대학생, 인문학의 숲에 빠지다'를 주제로 6월 강좌를 개최한다.

이번 강연에는 △'김수영을 위해'의 저자인 철학자 강신주(6월 7일) △'결핍을 즐겨라'의 저자 인문학자 최준영(6월 14일) △'그래도 나는 서울의 좋다'의 저자 건축가 오영욱(6월 21일) 등이 참여해 대학생들과 즐거운 소통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강의는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동국대 문화관 4층 초허당세미나실에서 열린다.

동국 문학의 100년 역사를 살필 수 있는 '사화집(詞華集)'도 발간됐다.

동국문학발간위원회(위원장 강민)은 동국대 출신 문인 27명과 원로, 중진 6명의 습작과 동인 활동을 엮은 〈최후로 생각할 것을 생각하는 문학〉을 펴냈다.

책을 엮은 신경림 시인은 "문학을 향한 순정을 모아놓은 이 책은 사료적인 가치뿐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 문학을 건강하게 이끌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중일 기자

부처님오신날 법요식 3면

신상품
LED인등·전구
찬덕불교
031)792-6288 / 794-4055

www.wfb26korea.org

WFB 세계불교도우의회 한국대회

2012. 06. 11(월) ▶ 16(토) 전라남도 여수 디오션리조트, 흥국체육관

전 체 일 정

개회식
6월 12일(화) 오후 4시 30분 / 여수 흥국체육관
WFBY 포럼
6월 11일(월) 오후 1시 / 디오션리조트(벨라스타 홀)
WFB아카데미 포럼
6월 13일(수) 오전 8시 30분 / 디오션호텔(그랜드 볼룸)
제3차 WFB세계불교비지니스 포럼
6월 14일(목) 오전 8시 30분 / 디오션호텔(그랜드 볼룸)
세계 고승 수계대법회
6월 13일(수) 오후 2시 / 여수 흥국체육관
창작뮤지컬 "카르마의 노래"
6월 14일(목), 15일(금) 오후 7시 30분 / 여수 흥국체육관
폐회식
6월 15일(금) 오후 5시 / 디오션호텔(그랜드 볼룸)

세계 고승 수계 대법회

우리나라 큰스님과 세계 대덕고승을 모시고 삼귀의(띠사라나)와 오계(판차실라) 수계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수계법회는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을 다짐하는 자리입니다. 모든 수행은 삼귀의와 오계를 지니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수계 증명법사

• 증명 진제 법원 대종사 / 도림 법전 대종사
• 갈마아사리 범일 보성 • 전계대화상 고산 혜원
• 교수아사리 불심 도문 • 존중아사리 원로의원 전원
• 삼사 라마 롭장(인도 국제 불교 연맹 창설자)
프라 폼와치라야(태국 왕 특사)
영신(중국 불교협회 부회장)
• 칠증 탐팔라웰라 담마라타나(프랑스), 수다난다 마하테로(방글라데시), 최질자브 담바자브(몽골리아), 방갈라 우파티나 테로(스리랑카), 명광(대만), 캄툴 린포체(티베트), 팃 폭 텐(호주)

• 일 시 _ 6월 13일(수) 오후 2시부터 (30분전 입장 완료)
• 장 소 _ 전남 여수 흥국체육관 내
• 수 계 비 _ 3만원
• 접수방법 _ 현재 다니고있는 사찰이나 홈페이지(www.wfb26korea.org)에서 '세계고승수계대법회' 클릭 후 신청
• 문 의 처 _ 전화 (061)724-5988 팩스 (061)721-7162
※수계식 마친 후 「팔만대장경」 무료 관람

주최 | 대한불교조계종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신도회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전라남도 JeollaNamdo 여수시
주관 | 세계불교도대회 한국대회조직위원회 TEL. 061)654-1008 FAX. 061)654-0081 ADD. 우550-817 전남 여수시 문수로 80(3층)

시로 읽는 성보순례

국보 제40호 정혜사지십삼층석탑



땅의 별자리들

전동균

옷깃 당정히 여민
밤이 와 섰어라

바람은
바람 아래 놀고, 상류로 돌아가듯
독락정 물소리
가만가만 흐르고

절 없는 절터가 품은
별자리들,
손 시린 하늘의 안내를 받아
서쪽으로 걸어가는
땅의 별자리들,

저마다 슬픔과 기쁨에 젖어
하나면서 여럿인
얼굴들 바라보느라

눈이 다 타버린

온종일

〈국보사랑 시집-불멸이여 순결한 가슴이여〉 中에서

전동균 시인은… 1962년 경주 출생. 1986년 〈소설문학〉으로 등단. 시집 〈함허동천에 서성이다〉, 〈거룩한 허기〉등.

'자비나눔'으로 하나 된 부처님오신날

불교계, 봉축 맞이 자비행 '다채'

불기 2556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다문화 가정, 암환우 등 우리 사회의 소외계층을 위한 '자비나눔' 행사가 다채롭게 열렸다.

천태종(총무원장 대행 무원)은 부처님오신날인 5월 28일 총본산 구인사에서 불교,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 등 국내 종교 지도자들과 다문화 가족 등이 참석해 간담회를 열었다.

'구인사 가는 길에서 만난 아름다운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백도웅 목사(개신교), 주낙길 수사(천주교), 김대선 교무(원불교 문화사회부장) 등 이웃종교인들과 다문화 가족 등 200여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

이날 단양 지역 30~40대의 젊은 불자 모임인 '야단법석'은 다문화 가족들에게 지원금과 생필품 등을 전달하고 이들을 격려했으며, 다문화 가정 어린이로 구성된 '레인보우 합창단'은 참가자들에게 아름다운 음성공양을 들려줬다.

천태종 총무원장직무대행 무원 스님은 "다문화, 다종교 사회로 접어들면서 서로 적대하고 종교적 갈등이 생기고 있다"며 "이럴 때 성직자들이 서로 존중받는 종교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또 무원 스님은 "종교 간 대화는 종교 지도자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면서 "일반인들이 살아가면서 서로 다른 시각에서 서로 다른 견해를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종교 간 대화"라고 밝혔다.

수행공동체 정토회(지도법사 법륜)는 이웃종교인·사회인사와 함께하는 부처님오신날을 봉행했다. 5월 28일 서초구 서초동에서 봉행된 법회는 △'종정법어' 낭독 및 인사말 △종교인과 사회인사의 헌등·헌화·욕불의식△ 종교인과 인디밴드의 축하공연 및 국악인 김영동씨 연주회 등이 펼쳐졌다.

천태종 다문화 가족 초청 법회
이웃 종교와 함께 봉축 법회
암환자 위한 나눔 행사도



한국 원자력 병원 영산법당은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암 환우를 위한 자비나눔행사를 개최했다. 사진은 행사 일환으로 진행된 뉴트리팝스 오케스트라의 작은 치유 음악회.

이번 봉축법회에는 김홍진 (천주교 쑥고개 성당 주임신부), 인명진(갈릴리교회 담임목사), 박경조(전 대한성공회 서울대교구장), 박남수(동학민족통일회 상임의장)을 포함한 120여 명의 종교·사회인사가 참가했다.

특히, 김홍진 신부와 인명진 목사는 '세상을 밝게 하는 종교인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기념법문을 해 눈길을 끌었다. 정토회는 "이웃종교인과 사회인사와 함께 부처님의 탄생 그리고 참뜻을 새기는 기념 봉축법회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로 종교간 화합과 종교인으로서의 사회적 역할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소중한 자리가 됐다"고 전했다.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 폭력과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행사도 열렸다. 조계종 제9교구본사 동화사(주지 성문)와 대구불교총연합회는 학교폭력과 자살예방을 위한 '죠이플콘서트'를 개최했다.

무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KBS개그콘서트 팀이 총 출연해 인기코너를 선보였으며, 'K-팝스타'에서 높은 인기를 얻은 이미쉘 이건우 등이 특별 출연해 청소년들에게 희망과 꿈을 선사했다.

암 환우들을 위한 자비나눔행사도 열렸다. 조계종 영산선원이 운영하는 한국 원자력병원 영산법당(주지 여행)은 '부처님오신날 맞이 행복 더하기 자비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자비나눔 행사에서는 입원·외래 환자, 직원 등 약 2천여 명에게 뽕잎차, 각종 떡과 손지갑, 비누, 마스크팩 등을 보시했다. 또 환우들을 위한 뉴트리팝스 오케스트라의 작은 치유 음악회를 열기도 했다.

주지 여행 스님은 "어려운 곳을 향한 관심과 손길은 나눌수록 더욱 커진다. 이것이 부처님의 자비행"이라며 "이번 행사로 병마와 싸우는 환우들에게 마음의 안정과 삶의 희망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신중일·정혜숙 기자

제10회 대원상 후보 공모

진흥원, 9월 3~20일 접수

한국불교 대중화와 생활화, 현대화에 높은 기여를 한 스님과 불자 단체들을 발굴하는 대원상 후보를 추천받는다.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김규칠)은 오는 9월 3일부터 20일까지 제10회 대원상 후보를 공모한다고 5월 30일 밝혔다.

현대사회에 적합한 새로운 포교방법을 발굴, 장려하기 위한 대원상은 포교 부문과 콘텐츠 부문을 대상으로 시상한다. 상금 총액 5천만원을 수여하는 포교대상은 불교의 현대화에 기여한 스님 및 재가불자, 단체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콘텐츠대상은 불교적 소재의 스토리텔링, 다큐멘터리, 드라마, 다큐드라마, 영화, 애니메이션, 인포테인먼트, 작곡, 공연, 전시 등 관련 분야 작품이 대상이며 총 5천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대상자는 진흥원 홈페이지(www.kbpf.org)에서 소정양식을 내려 받아 9월3~20일 우편 또는 직접방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02)719-2606

신중일 기자

〈바로 잡습니다〉

5월 30일자 890호 대행선사 추모특집 8면의 국내지원장 스님 명단 중 통영 지원장 혜진 스님을 **혜연 스님**으로 바로 잡습니다. 혜연, 혜진 스님께 심심한 사과를 올립니다.

"한국불교를 만난 것, 특별한 기회"

페르난도 파라과이 대통령, 자승 스님 예방

빈민 운동가이자 전직 카톨릭 주교였던 페르난도 루고 파라과이 대통령이 5월 27일 조계종을 찾아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예방했다.

이날 자승 스님은 "바쁜 방한 일정에도 조계종을 방문해줘 감사하다. 한국사회에는 50여 개의 종교와 5백여 종파가 있으나 큰 다툼없이 종교간 상생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기회가 된다면 템플스테이 등을 체험해보길 권한다"고 밝혔다.

페르난도 대통령은 "조계종을 방문해 스님들을 뵈니 우리가 종교는 다르나 언젠가는 한 자리에 다시 만날 거라 생각한다"며 "저에게 이렇게 특별한 기회가 찾아 온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종교간 다툼은 멀리 보지 못하는 까닭에 있다. 서로 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주님과 부처님께서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스님이 페르난도 루고 파라과이 대통령에게 향로를 전달하고 있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LEADER

국제 선 불교 조계종 종도모집

중생구제 인간방생으로 세계와 한국 속에 자랑스런 종단 !
12 인연법을 중시 여기며 화합과 단결과 품앗이로 서로 돕는 종단 ! 누구에게나 떳떳하게 밝힐 수 있고 소개할 수 있는 종단 !

큰 종단, 큰 절, 각 종단을 이끄는 스님들이 불교 지도자들이십니다. 그러나 비록 조그마한 암자나 토굴, 인법당을 운영하는 스님, 포교당을 운영하는 이름 없는 스님일지라도 포교일선에서 그늘진 곳, 손길을 기다리는 곳에서 땀 흘리는 불제자, 중생교화, 인간 방생을 몸소 실천하는 스님들, 재가 법사, 불자님들 또한 진정한 불교 지도자요, 중생의 지도자 입니다. 이토록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모든 것을 공양 올리고자 하는 뜻을 함께 하여 부처님 세상을 이룰 사찰 및 스님들의 종단 가입을 받습니다. 마음과 몸으로 고통받는 중생들을 위한 인간방생을 실천하는 사찰과 스님들의 가입으로 작지만 알차고 자랑스런 부처님을 감동 시키는 종단을 만들고자 합니다.

모두 동참합시다! 모입시다!

사찰등록 ! 지금 바로 하십시오.

개인의 명예나 대우받기를 원하지 않으면서 욕심없이 이유도 없고, 조건도 없는 보살행을 행하는 참 불자라면 누구나 환영합니다.
부처님을 감동시키는 부처님 세상 참다운 불교 종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국 불교 최초로 우리 종단만이 입을 수 있는 승복 및 수자보(스님가방), 장삼, 가사까지 갖추어진 종단입니다.

종교법인 **국제 선 불교 조계종**

목탁 혜은

대표전화번호 : 02)733-5665

남·여 행자(예비스님) 모집


부처님오신날 봉축 법요식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관욕의식을 하고 있다.


5월 28일 봉축 법요식에는 12월 대선을 앞두고 주요정당 수뇌부, 국회의원 등이 대거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서울 조계사에서 열린 불기 2556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법요식에서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이 봉축 법어에 앞서 주장자를 들어보이고 있다.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

참나찾기 '인성교육 5계' 제안

5월 28일, 조계종 등 전국 사찰 부처님오신날 법요식 봉행

불기 2556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법요식이 5월 28일 전국 사찰에서 일제히 봉행됐다.

조계종총무원(총무원장 자승)은 조계사에서 봉축 법요식을 봉행하고 부처님 오신 뜻을 기렸다.

종정 진제 스님은 봉축 법어를 통해 "우리에게는 참나를 찾는 것만큼 소중한 것은 없다. 참나는 모든 생명의 근원이자 형상과 상상의 갈등을 넘어선 상호 이해이자 자유 평등의 당체이기 때문"이라며 "일상생활 가운데 남을 도우며 참선한다면 마음의 온갖 번뇌와 갈등이 봄눈 녹듯 사라질 것"이라고 수행 정진을 강조했다.

또한 자라나는 학생들에게는 인성 교육 일환의 5계 사상을 스님은 제안했다. 진제 스님은 5계로 △국가의 필요한 사람이 될 것 △부모에게 효도하고 웃어른 공경할 것 △친구를 믿음으로 사귈 것 △맡은 바 정성 다할 것 △몸과 마음을 청정히 할 것을 제시했으며, "학생들뿐만 아니라 만인이 이 다섯 가지 계율을 잘 지키면 온 집안이 화목하고 인류가 행복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봉축사를 통해 최근 도박 사태에 대한 입장을 재차 내놨다. 스님은 "최근 우리 승가는 승가답지 못한 일로 국민여러분과 사부대중께 큰 상처를 드렸다. 이는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자승 스님 "승가정신 회복 노력"

쌍용차 노조 등 헌화 동참 '눈길'

'정치의 계절' 정치인 대거 참석

제대로 실천하기 못했기 때문"이라며 "그 상처가 깊고 크기에 치료 또한 오래 걸릴 것이다. 커다란 인내와 끈질긴 노력으로 승가 구성원들과 묵묵히 걸어갈 것"이라고 사태 해결의 의지를 천명했다.

이어 "승가가 먼저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행을 회복하도록 노력하겠다"며 "모든 사부대중이 또 다른 나인 이웃과 생명을 매일매을 부처님으로 공경하자. 그러면 매일이 부처님오신날이 될 것"고 강조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별도의 메시지를 통해 부처님의 광명이 세상에 널리 퍼지길 기원했다. 이 대통령은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대독한 메시지를 통해 "2500년 전 부처님은 큰 깨달음을 얻으시고 너와 내가 다르지 않다는 자타불이의 가르침으로 화합과 상생을 설파했다. 또한 이웃을 돕는 보시와 이행의 정신으로 나눔과 봉사를 실천했다"며 "부처님의 이런 가르침과 덕행이 우리 사회에 널리 퍼져 국민 모두가 화합하고 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법요식 헌화에는 쌍용차 노조, 용산참사 희생자 유가족, 나눔의 집 일본 위안부 할머니들이 참여했으며, 삼흥학교, 다문화가정, 중증 장애아동센터 승가원, 조계사 어린이들이 마정수기를 받아 이웃과 함께 하는 부처님 오신 날의 참뜻을 되새겼다.

이밖에도 박원순 서울시장과 지승동 조계사 신도회장이 함께 불단에 초를 밝혔으며, 이어 종로소방서 노병윤 소방사와 종로경찰서 한효정 순경이 부처님 전에 향을 올렸다.

12월 대선이 있는 '정치의 해'인 만큼 법요식에는 박근혜 前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 황우여 대표, 정몽준 의원과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손학규, 정세균 의원 등 주요정당 수뇌부들이 대거 참석했다.

또한 고흥길 특임장관, 송석구 사회통합위원장 등 정치권 인사와 대권 도전을 선언한 임태희 前 대통령실장, 김문수 경기도지사도 법요식에 함께 했다.

한국 이슬람을 비롯한 이웃종교인들도 대거 참석했다. 이날 법요식에는 NCC 김영주 총무와 천주교 박문성 신부, 재단법인 한국이슬람교 신만종 이사장, 이슬람 이주화 이맘이 참석해 부처님 오신 것을 축하했다. 주요 불교국가인 커먼 싱크 라마 네팔 대사와 양영빈 대만 대사, 챠츠랄 몽골 주재관, 윤 훌라잉 미얀마 대사도 참석했다.

글=신중일 · 사진=박재완 기자

산사서 실업고통 날려요

금산사, 법흥사 이색 템플스테이

사찰에서 모내기를 체험하고 실업 극복 의지를 다지는 등의 이색 주제 템플스테이가 잇달아 열려 눈길을 끈다.

조계종 제17교구본사 모악산 금산사(주지 원행)은 오는 6월 9일부터 10일까지 '쌀로 만든 템플스테이'를 연다.

삼국시대 만들어진 벽골제가 있는 부량면에서 진행되는 이번 템플스테이는 시골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모내기 체험, 방앗간 구경, 수리박물관 탐방, 누룽지 공장 견학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꾸며진다.

금산사는 "직접 모도 심고 이앙기도 운전하면서 김제 평양의 논바다를 체험할 수 있다"며 "농촌체험을 통해 우리 농산물의 중요성을 알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쌀로 만드는 템플스테이' 참가비는 17세 이상은 7만원이며, 초중학생은 3만원이다.

영월 사자산 법흥사(주지 도완)은 템플스테이 10주년을 기념해 경제난 속에 좌절감을 겪고 있는 실직가장 60여 명을 초청해 '실업 극복 템플스테이'를 개최한다.

'나는 소망한다, 다시 꾸는 꿈'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법흥사 템플스테이는 6월 8일부터 10일까지, 6월 29일부터 7월 1일까지 2차례 걸쳐 진행한다. 명사 초정 강연 '긍정의 힘'을 비롯해 영월투어, 꿈의 대화, 구봉대산 트래킹, 꿈 주머니 만들기 등이 주요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주지 도완 스님은 "템플스테이가 현대인들의 심신 의지처로 확대하고, 자비나눔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준비했다"며 "이번 템플스테이를 통해 실직의 아픔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이 고통을 훌훌 털고 일어났으면 한다"고 밝혔다.

'실업 극복 템플스테이'는 40대 이상 실직 가장이면 누구나 참가가 가능하며, 참가비는 무료다.

금산사 (063)542-0048, 법흥사 (033)375-9173

신중일 기자



2009년 영월 법흥사에서 진행된 실업극복을 위한 템플스테이에서 참가자들이 법문을 듣고 있다.

다산 정약용이 불교에 남긴 것은?

한국한문학회 '정약용' 학술대회

전남 강진에서 긴 유배 생활을 보낸 다산 정약용. 그는 당시 아함 혜장, 초의 의순 스님과 교유를 나누며 차 문화 중흥에 크게 기여했다. 차를 계기로 진행된 불교와 유교의 만남은 그 후손과 제자들에게까지 계속된다.

한국한문학회(회장 김영)가 6월 9일 고려대 인촌기념관에서 개최하는 다산 정약용 탄신 250주년 맞이 학술대회에서 박동춘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장은 '다산 정약용의 전등계 형성과 그 영향'을 통해 다산 정약용과 아함 혜장, 초의 의순 그리고 그 제자들과 다산의 후손들이 맺은 교우관계를 집중 조명한다.

이날 발표에서 박 소장은 다산의 초당시절 제자인 윤종영이 주최한 시회의 시를 묶은 〈가연유사〉를 토대로 다산의 신분을 초월한 유불 교유가 해남의 다산제자들과 불교계에 미친 영향을 밝힌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1부 다산연구의 점검과 전망에서 이헌창 고려대 교수의 '다산의 국가제도론' 등이 발표되며 2부 다산연구의 자료와 시각에서는 정민 한양대 교수의 '다산 일문을 통해 본 승려와의 교유과 강학' 등이 발표된다. (032)860-7847

노덕현 기자

한마음禪院長 妙空堂 大行禪師 全國比丘尼會葬 奉行에 대한 인사 말씀

歸依 三寶 하옵고

은사스님이신 묘공당 대행선사의 영결식과 다비식에 오셔서
애도의 마음을 함께 해주신 교계의 원로 대덕스님들과
이웃 종단, 이웃 종교에서 오신 수행자 분들과
참석해주신 모든 불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문도들은 은사스님의 뜻을 받들어 흐트러짐 없는
올곧은 수행자의 마음으로 묵묵히 정진해나가겠습니다.

妙空堂 大行禪師 추모재 일정

49재	일 시	장 소
초재	5월 28일 오후 3시	한마음선원 안양 본원
2재	6월 4일 오후 12시 (사시예불 후)	상동
3재	6월 11일 오후 12시 (사시예불 후)	상동
4재	6월 18일 오후 12시 (사시예불 후)	상동
5재	6월 25일 오후 12시 (사시예불 후)	상동
6재	7월 2일 오후 12시 (사시예불 후)	상동
49재	7월 9일 오후 12시 (사시예불 후)	상동

문의 : 한마음선원 본원 031)470-3100

妙空堂 大行禪師 문도 일동

일 주 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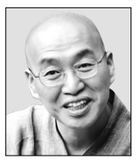
월서 스님 캄보디아 지원

천호희망재단 이사장 월서 스님은 5월 22일 서울 봉국사에서 캄보디아 승왕 텝봉 스님에게 캄보디아 왕립불교대학 지원 물품을 전달했다.



서울 조계사 33관음기도

서울 조계사 주지 도문 스님은 6월 11일부터 7월 13일까지 조계사 대웅전에서 33일 관음기도를 진행한다. (02)732-2183



정토회 명상수련 실시

정토회 지도법사 법륜 스님은 7월 12일부터 8월 3일까지 3회에 걸쳐 경북 문경 정토수련원에서 명상수련을 실시한다. (010)9070-9581



서산 부석사 사찰음식잔치

서산 부석사 주지 주경 스님은 6월 9일 부석사 경내에서 사찰음식잔치와 어울림한마당을 개최한다. (041)662-3824



해남 미황사 단기출가학교

해남 미황사 주지 금강 스님은 7월 1~10일 20대 청년을 대상으로 단기출가학교를 개최한다. (02)2011-1803



황학사 산사음악회 봉행

칠곡 황학사 주지 선각 스님은 5월 19일 부처님 점안식 및 산사음악회를 봉행했다. (054)975-3235

경허 무애행보다 선수행에 주목

경허선사 열반100주년 기념사업회 회장 지운 스님



"경허 스님은 백척간두에서 진일보하는 수행정진을 생활에서 펼치신 분입니다. 이번 국제선수행대법회는 외국인 스님들을 비롯해 많은 대중들에게 경허 스님의 수행가풍을 알릴 뿐만 아니라 세계에 스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한국불교 중흥조 경허 스님의 열반 100주년을 맞아 선수행대법회를 준비하고 있는 경허선사 열반100주년 기념사업회 회장 지운 스님(수덕사 주지 · 사진)은 "경허 스님의 수행정신을 이 시대에 올곧게 펴는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경허선사 열반100주년 기념사업회가 진행하는 국제선수행대법회는 6월 7~9일 2박 3일간 덕숭총림 예산 수덕사에서 열린다. 이날 국제선수행대법회는 덕숭총림 방장 설정 스님을 비롯한 수좌 스님들과 외국인 스님들, 재가자들이 직접 담론과 실수를 진행하는 무차대법회 형식으로 진행된다. 또 경허 스님이 수행하시던 천장사, 개심사 등 보림처를 찾는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된다.

"헌신하신 숭산 스님의 가르침에 의지해 간화선을 수행한 외국인 스님들이 그 선의 뿌리가 경허 스님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 외국인 스님들의 경험을 토대로 외국대중의 정서나 전달에 더 용이한 새 시대 선문화의 화두를 갖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지운 스님은 이번 국제선수행대법회로 새로운 선수행 문화 보급의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 기대를 감추지 않았다. 이어 지운 스님은 경허 스님의 수행가풍에 대한 새로운 조명도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치열한 수행, 걸림 없는 삶, 대중과 함께 하는 불교가 경허 스님의 수행가풍"이라며 "경허 스님은 수마를 찾기 위해 송곳을 턱밑에 대고 정진하셨으며 백척간두에서도 진일보하는 정진을 보이셨다"고 소개했다.

지운 스님은 현대인들이 경허 스님의 수행보다 무애행의 모습에만 치중해 스님이 펼친 선의 경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지운 스님은 "스님의 법어 · 선시 · 삶은 누구도 이루지 못한 경지임에도 왜곡되고, 전도되고 있다"며 "경허 스님의 무애행은 자신만이 아닌 타인에게도 무애가 됨이었다. 진정한 참 무애행은 보살행이라는 데서 시작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지운 스님은 끝으로 "많은 사람들이 불교의 문화와 수행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지만 수행을 해보지도 않고 어렵다고 하는 것이 문제다. 앉고 생각하는 습을 점점 증장시켜 수행을 할 때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참 나의 즐거운 삶이 될 것"이라며 선수행에 대한 불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불교스카우트로 어린이포교 이끈다"

조계종 어린이청소년위원회 회장 송묵 스님



"어린이 포교의 새장을 열 불교스카우트가 드디어 첫발을 내딛습니다. 불교 미래를 위한 시작에 불자들의 힘찬 격려의 박수가 필요합니다."

한국불교의 미래, 새싹 포교를 위한 노력이 작은 결실을 맺었다. 조계종 포교원 어린이 · 청소년 위원회(회장 송묵)는 6월 9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한국 스카우트 불교연맹(이하 불교스카우트) 창단 고불법회를 봉행한다.

이번 불교스카우트 창단에는 주축으로 활동한 어린이 · 청소년위원회의 노고가 숨어 있었다.

어린이청소년위원회 위원장 송묵 스님(포교원 포교부장 · 사진)은 "불교스카우트는 어린이들의 인성교육과 협동정신 함양을 통한 불교의 이타심을 기를 수 있다. 불교스카우트 창단을 통해 어린이 포교 활성화가 증진되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스카우트는 1200명 이상의 회원에 5개 도시 이상의 지부가 구성돼야 한국스카우트연맹으로부터 정식 인가된다. 어린이 · 청소년위원회는 3개월 동안 범어사와 통도사, 직지사 등 7개 조계종 교구본사를 비롯한 42사찰에서 1420명을 스카우트 회원으로 유치해 5월 24일 정식 인가 받았다.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어린이 포교에 오랫동안 매진해 온 송묵 스님은 어린이 포교 현장에서의 트렌드 변화를 가장 실감하고 있는 이 중 하나다.

송묵 스님은 "아이들이 단순한 사찰 법회에 오지 않는다"며 "주5일제 시행을 맞아 자연체험, 문화체험, 자원봉사 등 다각도의 프로그램으로 불교가 접근해야 한다. 스카우트는 그런 의미에서도 최적의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송묵 스님은 "지금은 글로벌 시대로 어린이 포교와 교육에서 불교계를 넘어선 시각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자기개발 분야에 앞선 시스템이 갖춰진 스카우트를 통해 불교의 불성사상과 자비사상 등을 아이들에게 심어 주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포교원 어린이청소년위원회는 향후 60개 사찰로 회원 사찰을 확대하고 3000명 규모로 조직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어린이 교육을 연구하는 연구소 설립도 구상 중이다.

송묵 스님은 "스카우트는 전국에 넓게 펼쳐져 진행돼야 하지만 참여가 활발한 서울지역에 비해 지방에서의 참여가 미흡하다"며 지역 사찰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불교스카우트는 어린이에게 아름다운 꿈을 청소년에게 원대한 이상을 실현하는 그 작은 발걸음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백년을 내다보는 어린이포교의 첫걸음을 격려해주시길 바랍니다."

노덕현 기자

〈인사〉 전등사 주지 범우 스님 임명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5월 24일 강화 전등사 신임 주지에 범우 스님〈사진〉을 임명했다.

범우 스님은 1995년 해인사에서 혜암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99년 직지사에서 청하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으며, 덕숭총림, 해인총림, 석종사 금봉선원 등에서 안거 수행했다.

한스조계종복지타운 관장 도법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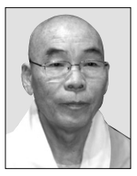
한국스리랑카 조계종복지재단 이사장 자승 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은 한스조계종복지타운 관장에 도법 스님〈사진〉을 임명했다. 도법 스님은 조계사에서 현성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 수지, 1998년 통도사에서 청하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현재 연화사 주지, 진주교도소 교정위원, 통영경찰서 경승실장 소임을 맡고 있다.

신중일 기자

성각·성관 스님 교정대상 수상



성각 스님



성관 스님

서울신문과 KBS가 주최하고 법무부가 후원하는 제30회 교정대상 시상식에서 불교를 통한 수용자 교화에 힘쓴 성각 스님과 성관 스님이 자비상을 수상했다. 부산 교도소 교정위원인 성각 스님은 부산 홍은사 주지로 22년 8개월을, 수원구치소 교정위원인 성관 스님은 원융종 총무원장으로 12년 8개월을 불교를 통한 수용자 교화에 노력해왔다.

이날 5월 16일 열린 교정대상 수상식에는 권재진 법무부장관, 이동화 서울신문사 사장 등이 참석했으며 교정공무원 등 17명이 수상을 영예를 안았다.

이은정 기자

제6회 선리학술상시상식 개최

한국불교선리연구원(원장 법진)은 6월 1일 서울 성북동 정법사에서 제6회 학술상시상식 및 학술회의를 개최했다.

동국대 불교학술원장 인환 스님이 좌장을 맡는 이날 학술회의에선 △'멸쟁건도'의 다수결 원칙을 통해서 본 승가 분쟁 해결의 이념(이자랑 동국대 HK연구교수) △용성선사의 선밀쌍수에 대한 고찰(김치온 위덕대 겸임교수) △1930년대 불교잡지 동화의 성격과 '전시동화(戰時童話)'의 문제(박상란 강남대 연구교수) △일본계 미국 선(禪)의 여성과 사회참여 그리고 간화선 세계화에 대한 제언(장은화 조계종 국제포교사) 등 논문이 발표됐다. (02)734-9653

노덕현 기자

삼보 스님, 동국대에 세조 어첩 기증

삼척 기원정사 주지 삼보 스님은 5월 15일 동국대 도서관에 '오대산 상원사 중창권선문'(조선 세조 작성)이 실린 세조의 어첩(御牒) 영인본을 기증했다.

이 어첩은 세조의 권선문과 이를 한글로 옮겨 쓴 언해본 등이 실려 있으며 세조가 직접 쓴 수결과 옥새, 자성왕비 윤씨, 세자, 세자빈 한씨, 효령대군, 정의공주, 정인지, 신숙주, 한명회, 구자관 등 241명의 서명이 들어있다. 어첩의 진본은 국보로 지정돼, 현재 월정사 성보박물관에 보관돼있다.

노덕현 기자

동대부고, 자비의 쌀 30가마 기증

동국대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교장 오택원)는 자비의 쌀 모으기 행사를 통해 모연된 쌀 30가마(1,220kg)를 5월 25일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에 전달했다. 향후 생명나눔실천본부는 기증 받은 자비의 쌀을 동대병원 등으로 보내 형편이 어려운 입원 환자와 소아 환우들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다.

신중일 기자



동대부고 학생대표가 심정민 생명나눔 사무총장에게 쌀기증서를 전달하고 있다.

제10회 대원상(大圓賞) 후보 공모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김규칠)에서는 설립자인 고(故) 대원 장경호 거사의 뜻에 따라, '세상을 위한 불교'라는 기치하에 불교를 현대적으로 재조명하고, 21세기 현대 사회에 적합한 새로운 포교 방법을 창출 · 장려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포교대상과 콘텐츠대상으로 구분하여 제10회 대원상 후보를 공모합니다.

Ⅰ 포교대상

응모 대상 (개인 혹은 단체)
① 출가 부문 : 3인(곳) 이내
② 재가 부문 : 3인(곳) 이내

상금 : 총액 5,000만원 이내

수상자 추천 및 선정 기준
① 출가 부문 (개인 혹은 단체)
– 현대적 방법을 통해 효율적인 포교활동을 전개하는 데 업적이 많은 스님 개인 혹은 스님 중심의 단체/기관
– 단체/기관은 설립 3년 이상, 회원 10명 이상인 곳
② 재가 부문 (개인 혹은 단체)
– 불교의 현대화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단체/기관은 설립 3년 이상, 회원 30명 이상인 곳

Ⅱ 콘텐츠대상

응모 대상 (개인 혹은 단체)
① 스토리텔링(대본 등 제출), 다큐멘터리(DVD/대본 혹은 데모영상/대본 등 제출), 드라마(DVD 혹은 데모영상/대본 등 제출), DOCUDRAMA(다큐+드라마, DVD 혹은 데모영상/대본 등 제출)
② 영화(DVD/대본 혹은 데모영상/대본 등 제출), 애니메이션(DVD/대본 혹은 데모영상/대본 등 제출), INFORTAINMENT(정보+오락, DVD/대본 혹은 데모영상/대본 등 제출)
③ 오디오(작곡 등)
④ 미술 · 일러스트레이션
⑤ 상기 및 관련 분야 중 1개 작품 또는 그 이상

상금 : 총액 4,000만원 이내

수상자 추천 및 선정 기준
① 본인 또는 단체의 순수 창작물이어야 함(공동제작 · 합작 등 관련 기관 · 단체 또는 외부 지원에 의해 제작된 콘텐츠는 불가함).
② 응모자가 문화 콘텐츠 제작 또는 참여 경험 증명 시 심사에 참고함.
③ 영상자료는 DVD나 USB 등으로 제출

※ 각 분야에 대해서 특별상, 우수상, 장려상을 수여할 수 있음.
※ 후보자 혹은 후보 작품들이 본 상의 취지에 합당하지 않거나 자격에 미달하는 경우 수상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심사 · 운영위원회 결정에 의해 수상 부문 및 상금 액수를 조정할 수 있음.

신청방법 및 절차

접수기간 : 2012년 9월 3일(월) ~ 9월 20일(목)
제출서류 : 양식은 대한불교진흥원 홈페이지 www.kbpf.org(공지사항)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제10회 대원상 지원서(소정양식, 응모자 사진 부착)
접수 및 문의처 : 대한불교진흥원 사무국, 121-714 서울시 마포구 마포동 140 다보빌딩 15층, Tel. (02) 719-2606
접수방법 : 직접 접수 및 우편 접수(마감일 당일자 소인 유효)
시상식 : 추후 발표함.

대한불교진흥원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81기 佛敎儀式(범음 · 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법반(1년)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게, 다게작법(나비춤)등**
신행과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2년 6월 중
◆ 개강일시 : 2012년 6월 중. **매주 (화,금) 오후 5시 ~ 6시 30분(1시 30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敎儀式敎育院
海 東 佛 敎 梵 音 大 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백일법문’ 통해 돈오돈수를 설파하다

③ 합천 해인사(海印寺)

하늘에 넘치는 큰 일들은
붉은 화롯불에 한 점의 눈송이요
바다를 덮는 큰 기틀이라도
밝은 햇볕에 한 방울 이슬일세
그 누가 잠깐의 꿈속 세상에
꿈을 꾸며 살다가 죽어가랴
만고의 진리를 향해
초연히 나 홀로 걸어가노라.

– 출가시(出家詩)

일생동안 남녀의 무리를 속여서
하늘 넘치는 죄업은 수미산을 지나친다.
산 채로 무간지옥에 떨어져
그 한이 만 갈래나 되는데
둥근 한 수레바퀴 붉음을 내뿜으며
푸른 산에 걸렸도다.

– 열반송(涅槃頌)



성철 스님은 해인사에서 출가해 열반에 드셨다. 방장으로 주석할 당시 선문에서 전례없는 ‘백일법문’을 설했다. 원택 스님이 순례단과 해인사를 둘러보며 성철 스님과의 추억담을 순례단에게 설명하고 있다.

출가와 열반이 함께한 곳. 5월 26일 ‘성철 스님 수행도량 순례단’이 세 번째 순례로 경남 합천 해인사(海印寺)를 찾았다. 성철 스님이 출가 수행 생활을 시작하고 회향한 해인사는 스님에게 가장 특별한 인연이 있는 곳이다.

대원사서 동정일여(動靜一如)에 이르게 된 성철 스님을 보고, 당시 대원사 주지 스님은 스님에게 해인사에서의 출가를 권했다. 1936년 봄. 성철 스님은 해인사로 출가해 백련암에 주석하고 있던 동산(東山) 스님에게 수계득도 했다. 그렇게 스님과 해인사의 인연은 시작됐다.

교단정화가 본격화된 1955년 성철 스님은 해인사 주지에 임명됐으나 자리를 뿌리치고 대구 파계사 성전암으로 들어가 수행 정진에만 몰두했다. 이후 1967년 해인총림이 재건되면서 초대 방장에 추대돼 해인사에 주석한다.

스님과 해인사의 인연은 스님이 열반에 든 1993년 11월 4일, 해인사 퇴설당에서 끝이 났다. 스님은 “참선 잘하라”라는 말을 남기고 우리 곁을 떠나셨다. 당시 세수 82세, 법랍 58세였다.

순례단 300여 명이 다섯 시간을 달려 도착한 해인사는 5월의 신록으로 뒤덮여 있었다. 부처님오신날을 앞둔 해인사 대웅전 앞마당에는 형형색색의 연등이 걸렸다.

해인사는 국내 최대 명찰로, 신라 제 40대 임금 애장왕 3년에 창건됐다. 해인사는 신라시대부터 균여와 의천 대사 같은 빼어난 학승들이 많이 배출된 곳이다. 이런 사력이 있는 해인사는 존재만으로도 순례자들의 노곤함을 씻어내기에 충분했다.

뒤로는 가야산, 앞은 매화산을 둔 해인사는 모습 자체로 웅장함을 자아낸다. 해인사는 발 닿는 길 곳곳마다 빼어난 경관을 자랑한다. 최치원이 노년을 지내다 갓과 신발만 남겨둔 채 홀연히 신선이 됐다는 해인사 계곡길은, 걷는 것만으로도 속세에 찌든 번뇌가 씻겨나가는 듯하다. 순례단은 원택 스님과 천년 역사가 담긴 해인사 길을 걸으며 해인사 역사의 유구함과 찬란함에 절로 고개를 숙였다.

해인사는 성철 스님이 방장으로 주석할 당시, 전설로 회자되는 ‘백일법문(白日法門)’을 설한 곳이다. 스님은 1967년 겨울 안거 기간 선문에서 전례 없는 법문을 하셨다. 100일 동안 매일 2시간씩 불교의 핵심이 부처님이 깨달은 중도라는 것을 경전을 통해 증명하고 선종의 종지는 돈오돈수(頓悟頓修)임을 설파했다.

순례단은 당시 스님의 음성을 상상하며 ‘백일법문’의 일부를 읽어내려 갔다.

“불교는 내 마음 속에 절대무한의 세계가 다 갖춰져 있는 것이지 내 마음 밖에, 이 현실 밖에 따로 있지 아니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불교의 독특한 입장입니다. (중략) 그러므로 누구든지 불교를 믿으려면 자

출가·열반 한 절…동산 스님에게 수계
1967년 선문에 전례없는 ‘백일법문’
100일동안 매일 두시간씩 〈중도〉 설해
“불교는 인간을 완성 시키는 종교” 강조

기에게 그러한 절대무한의 세계가 갖춰 있다는 것, 내 마음이 곧 부처라는 것을 믿는 것이 근본 조건입니다. 불교는 처음과 끝이 인간을 중심으로 해서 인간을 완성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는데 그 인간이 절대적 존재라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백일법문〉 상권 중에서

법회를 마친 순례단은 성철 스님의 부도탑 앞에서 참배하는 시간을 가졌다. 스님의 부도탑은 한 눈에 봐도 여느 탑과는 확연히 다르다. 현대적으로 재 조성된 탑이었다. 3단의 기단 위에 반원이 2단으로 엇갈리게 놓여 있고, 그 위에 큰 원이 얹혀 있다. 둥근 원은 성철 스님의 완전한 깨달음이 표현된 것이다. 스님의 가르침이 현재와 미래에도 영원할 것이라고 말해주는 듯하다.

정인영 씨는 “해인사에 온 것만으로 가슴이 벅차다. 스님의 사리탑을 보니 아직도 스님이 살아 계신 것 같다”며 “이번 기회로 스님의 ‘백일법문’을 다시 공부할 예정이다. 6월 11일에 시작하는 고우 스님의 ‘백일법문’ 강좌도 신청한 상태이다”라고 각오를 밝혔다.

신순례 씨는 “친구 권유로 순례단에 참가하게 됐다. 막상 와보니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 성철 스님 수행도량 사찰들을 순례하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도 더 깊이 알게 됐다. 앞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열심히 따라야 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스님은 가야산 제일 높은 위치에 자리한 백련암에 주석했다. 스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부처님께 3000배를 해야만 한 일화는 유명하다. 스님들은 신도들에게 3000배를 하는 동안 스스로 참회하는 시간을 갖게 했다.

원택 스님이 얼마 전 자신을 찾아온 한 기자와의 일화도 소개했다. “기자가 묻습디다. 만일 성철 스님에게 도박사태 등 현재 종단 안팎서 일어나는 안좋은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으면 뭐라고 할 것 같으냐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했지요. ‘중보러 절에 오지 마라. 부처님 보러 절에 오라고 하셨을 거라고요.’”

‘백일법문’을 통해 불교의 바른 믿음과 진리를 전하고 싶었던 성철 스님의 육성이 해인사 곳곳에 쩌렁쩌렁 울려 퍼지는 듯 했다.

합천 해인사=이은정 기자 soej84@hyunbul.com



해인사 대웅전 앞마당에 연등이 걸려있다.



성철 스님 부도탑을 돌며 기도하는 순례단 참가자들.

www.minjoksa.org

지치고 힘겨운 당신에게 전하는 메시지

시끌벅적한
마음이여
지금,
잠시,
쉬었다
가거라.



석지현 지음 | 424쪽 | 15,000원
양장(146×185mm)

행복한 마음 휴식...

지치고 힘겨운
당신에게
복잡하고 빠르게 뛰는
당신에게
작은 휴식을
선물합니다.

민족사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58번지 두산위브파빌리온 1131호 Tel. 02)732-2403~4 Fax. 02)739-7565
이메일. minjoksa@chol.com 페이스북. www.facebook.com/minjoksa 농협 053-02-109450 (예금주: 윤재승)

www.minjoksa.org

경허선사가 살아 있다면
그의 제자가 되고 싶다!

(–미국 컬럼비아대, 로버트 서먼 교수의 내한 인터뷰 중에서)

인간 경허, 시인 경허,
선승 경허를 끈질기게 추적했다.

“만공이 스승 경허에게 물었다.
“스님, 저는 술이 있으면 먹기도 하고 안 먹기도 합니다만,
스님은 왜 그렇게 술을 드시는 겁니까?”
경허는 만공의 말꼬리를 끊으며 말했다.
“허 참, 자네는 아주 도가 높네 그려. 나 같으면 술을 먹고
싶으면 가장 좋은 밀씨를 구해서 잘 키워 술을 빚어서 마시고
또 마시겠네. 또 파전이 먹고 싶으면 파씨를 구해다가
잘 가꾸어서 파전을 먹고 또 먹겠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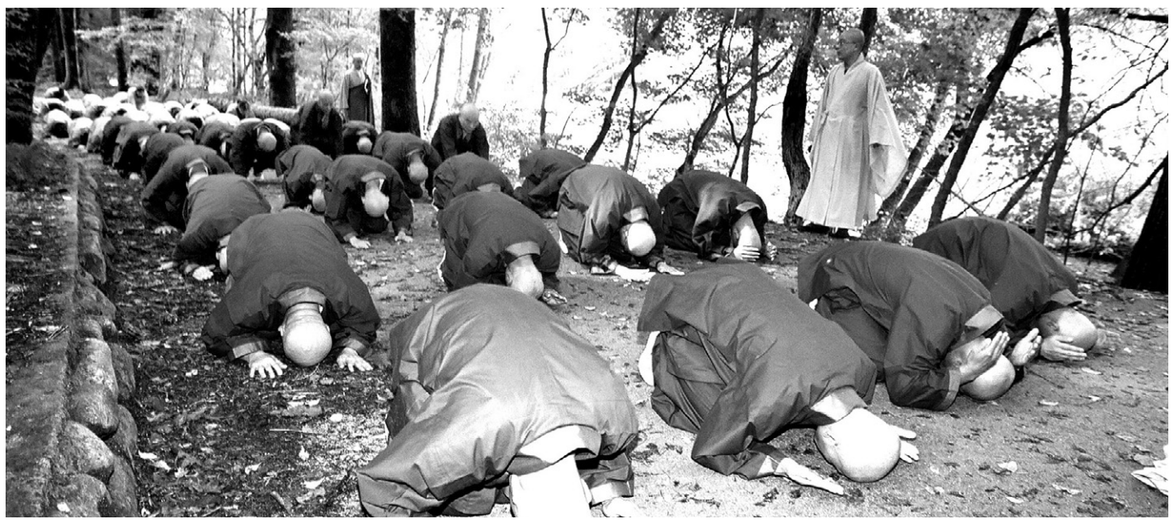


술에 취해 꽃밭에 누운 선승

경허

글 · 일지 | 352쪽 | 13,000원
소프트양장(150×208mm)

민족사





용맹정진을 발원하는 단기출가학교 재가자들.



월정사 단기출가학교에 참여한 재가자들이 삼보일배를 하며 자아성찰의 시간을 갖고 있다〈사진왼쪽〉. 문수선원 개원식에서 수행 중심 도량으로 발전방향을 밝히는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사진오른쪽 아래〉.

월정사, 수행 전문 도량으로 거듭난다

5월 12일 문수선원 개원 이어 단기출가학교 개교

평창 월정사가 전국 최대 규모의 재가자 전문수행기관 '문수선원' 개원을 기해 선수행 증진에 나섰다.

평창 월정사(주지 정념)는 5월 12일 재가자 전문수행시설 '문수선원'을 개원했다. 이날 개원식에는 권성동 국회의원, 김남수 도환경관광문화국장, 이석래 평창군수, 이만재 평창군의장을 비롯해 스님과 불자 1000여 명이 참석해 개원을 축하했다.

2009년 12월에 착공해 2년 6개월 공사 끝에 완공된 '문수선원'은 2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국내 최대 상설 수행공간으로 지상 2464.04㎡(745.37평), 지하 1989.56㎡(601.84평) 규모다. 템플스테이와 단기출가학교 참가자들을 위한 남녀 숙소와 강의실 및 연구실, 참선지도 공간 등 지하 1개동, 지상 5개동 등 총 6개동을 갖추고 있다.

이날 개원식에서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은 "월정사는 템플스테이와 단기출가학교 운영에 이어 이번에 문수선원을 개원함으로써 특성화된 재가수행문화 풍토를 조성할 수 있게 됐다"며 "오대산 청정 환경과 더불어 월정사를 수행의 대표적인 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2008년 승려 수행공간인 '만월선원'을 개원한 월정사는 이번 문수선원 개원을 기해 출재가 수행 풍토 증진에 나설 예정이다.

첫 행사는 7월 1~23일 진행되는 제33차 단기출가학교다. 제33차 단기출가학교에서는 문수선원과 월정사 일대에서 전문적인 수행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200명 수용 가능한 문수선원 개원
재가자 참선 수행 새 지평 기대

한 달간 행자생활을 체험하는 단기출가학교에서는 예불과 108배, 발우공양, 울력을 비롯한 사찰생활과 참선, 전나무 숲길 포행, 불교 교리 강의, 적멸보궁 삼보일배 등 다양한 수행·교육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단기출가학교 모집인원은 1기당 50명으로 수행경비는 60만원 수준. 신청률이 높아 접수 후 선발을 통해 진행되기도 한다. 제34기 단기출가학교는 10월 5일부터 11월 3일까지 열리며, 접수마감은 9월 8일까지다.

박재현 월정사 종무실장은 "2008년 선원 개원 이후 전문 수행지도를 하는 재가자를 배출하기 위한 공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며 "이번 상설 수행공간 마련으로 단순한 템플스테이나 단기출가학교를 넘어 수행심화과정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교도소에도 부처님의 법음이~♬

포교사단, 5월 24일 목포교도소 봉축법회

재소자들을 위한 특별한 봉축법회가 열려 화제다. 포교사단 광주전남지역단(단장 정영균)은 5월 24일 목포교도소 대강당에서 수형자 불자 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부처님오신날 봉축대법회'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목포불교사암연합회 회장 혜원 스님, 목포 정혜원 주지 효천 스님, 정영균 포교사단 광주전남지역단장을 비롯해 10여명의 교도소 교화 전담 포교사들이 참여했다. 목포 정혜원 에밀레 합창단의 축가로 시작된 1부 법요식에서 혜원 스님은 "부처님 가르침은 지혜와 자비, 그리고 '인욕'이 중심"이라며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스스로 돌아봐 안에서나 밖에서나 행복한 삶을 살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어울림 마당에서는 재소자 장기자랑과 각설이타령, 불자 가수들의 공연이 함께 펼쳐졌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해운대경찰서 경승 취임식 및 법회

부처님마을 주지 효범 스님의 경승실장 취임식이 5월 24일 해운대경찰서 3층 직무교육장에서 부처님오신날 봉축법회와 함께 봉행됐다.

효범 스님은 취임사를 통해 "경승실장으로 취임하게 돼 어깨가 무겁다"며 "지속적인 법회를 통해 부처님 법을 전하고 해운대경찰서 불자들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부산 지역은 부산지방경찰청을 포함해 16개 경찰서에 경승단이 구성돼있다. 부산경찰청과 동부경찰서, 강서경찰서를 제외한 13곳은 동호회 형태 모임을 통해 법회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사하구경찰서도 5월 25일 직무교육장에서 봉축법회를 봉행했다. **이재진 부산지사장**

원효학硏, 원효성사 제향대제 봉행

원효학연구원(이사장 성타)이 주최하고 분황사와 불국사가 주관하는 1326주년 원효성사 제향대제가 5월 19일 분황사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불국사 주지 성타 스님과 관장 종상 스님, 윤상현 경북도청 문화예술과장을 비롯한 300여 관계자가 참석했다. 행사는 육법공양을 시작으로 제향법어 경모사 추모사 봉향제문 낭독 및 추모의 노래 등으로 진행됐다. 분황사 주지 종우 스님은 "원효성사를 통해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자"고 전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내원정사 동자승의 탁발행렬에 부산불자들이 너도나도 보시의 손길을 내밀었다.

"아픈 동료 도우려 머리 깎았어요"

부산 내원정사 동자승 자비 탁발

부산 내원정사(주지 정련)는 5월 25일 부산 남포동 대영시네마 앞에서 동자승 탁발식을 개최했다. 이날 동자승 탁발식에는 내원정사 스님들과 1주일간의 단기출가를 거친 동자 16명, 동녀 20명을 비롯해 100 여 신도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한 시간 가량 남포동 일대를 행진하며 '소아암 어린이 돕기 자비 탁발'을 진행했다.

정련 스님은 "잠깐 동안이지만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 수행을 경험함으로서 어린아이들의 마음에 불심이 자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탁발 행렬은 근대역사관 건물 앞에서 회향됐으며 내원정사는 탁발로 모연된 금액 전액을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 **이재진 부산지사장**

자장면도 먹고 봉축도 즐겨요

송광복지관, 5월 24일 광산구 구민공원서 한마음잔치

"스님이 주는 자장면도 맛나고, 노래도 하고 춤도 추니 좋네요"

송광종합사회복지관(관장 도제)은 5월 24일 광산구 구민공원에서 광산구 시영아파트임차인대표들과 함께 '한마음·한가족·한마당' 행사를 개최했다.

광산구 대표적 서민지역인 우산동 시영아파트 1500세대를 대상으로 한 이날 행사는 지역 내 불교복지관과 임차인대표자, 우산동복지네트워크가 공동으로 마련했다.

특히 행사에는 자장면 스님으로 알려진 남원 선원사 운천 스님과 광주 자비신행회 등 다양한 단체들이 참여해 보시 및 봉사활동을 펼쳤다.

행사 기념식에는 前송광사 주지 현고 스님, 도제 스님, 민형배 광산구청장, 김동철 국회의원을 비롯한 지역주민 500여명이 참여했다. 기념식에는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착한 효도상', '아름다운 부부상', '건강한 장수상', '행복한 가족상' 등 시상이 진행돼 지역주민들의 호응을 얻었다. 이어 진행된 2부에는 난타공연, 장기자랑, 시립국극단의 공연이 펼쳐져 흥을 돋웠다.

도제 스님은 이날 인사말에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행복을 나누는 사람"이라며 "이웃과 스승, 그리고 가족에게 행복을 전해주는 날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행사에 참여한 민홍기 씨(79)는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주변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할 수 있는 잔치를 열어줘 고맙다"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대웅전 그늘서 꽃피는 아이들 재능' 미래의 우리 문화예술을 이끌어갈 청소년들이 전북 고창 선운사(주지 법만)에 모여 재능을 마음껏 펼쳤다. 5월 18일 선운사와 고창문화원이 공동주최한 제 36회 동백연 청소년문화예술 경연대회에는 전라북도의 유치부 어린이부터 중·고등학생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학생과 학부모 1500여 명이 참여했다. 문화예술부문과 민속부문, 체험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될 이날 행사는 경연부문에 백일장, 미술, 만담설화 등 문화예술부문과 제기차기, 투호, 긴줄넘기 등의 민속부문, 탁본, 향토문화알기 등 체험행사가 펼쳐졌다.
선운사 주지 법만 스님은 "오늘 행사로 청소년들이 불심과 나라사랑의 마음을 갖고 문화예술의 큰 재목으로 자라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Hwalbup Posture Correct Master

활 법 자 세 교 정 사

인체가 바로서야 건강이 바로 선다.



활법자세교정사란?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근육과 骨의 균형이 무너져 신체적 고통을 겪는 사람에게 과학적, 체계적인 방법으로 건강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가로서 바른자세원을 개원할 수 있음.

보건복지가족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자격검정)

자 격 과 정	교 육 기 간
● 체형교정 / 골반 / 선추(조정요법) ● 전신조정술 / 두개골 / 후두골 / 골반(조정요법) ● 경락 / 경혈학 / 임독맥소통(청혈요법) ● 자율신경 척추교정운동요법(맞춤운동) ※특강: 기공, 양자파동 분석 보건식품효소 발효액	8주 과정 토요일반

▶ 특별강사 : KBS / MBC출연 / 대한(병)의원 진흥회장. 활법창시자 직강
▶ 대 상 : 종교지도자 / 인체 교정 및 건강분야 관계자
평생건강에 관심과 질환으로 고생하는자
▶ 특 전 : 자세교정사 자격 부여

접 수 처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문 의 02)393-5111 / 019-517-1730

교육과학기술부허가공익법인/한국평생교육기구
한 국 보 건 교 육 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

영혼의 세계(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 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전생최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천 광 수 련 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서울 첫 전시회

업장소멸 법륜대 法輪臺

불교친환경작품

일시 : 불기 2556(2012)년 6월 21일(목) ~ 27일(수) 오전 까지
장소 : 서울 백악미술관(조계사 앞) 1층 / 전화 : (02)734-4205
문의 : 덕유산 청다향(055)941-1083, 010-4595-0017, 010-3852-9500(청오 스님)



법륜대 유래와 의미

양나라 때 선혜대사 부협 현풍으로부터 제작, 대정 17년 고려 명종에 건립, 그리고 티베트 사원에서는 법륜대에 경전과 소원을 비는 글을 넣고 돌리면 소원을 이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교의 비전으로 전하여 오는 전생록(경전)을 살펴 보면 이생에서 각자가 갚아야 할 전생의 빚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빚을 갚는 의식으로 금강경에 이름을 적어 넣습니다. 그리하여 금반 조성되는 업장소멸법륜대에 수많은 경전을 봉안하여 법사리로 친견하고 있습니다.

– 덕유산 청다향 청오합장 –



금강저 108염주

천수경·반야심경·관음정근·지장정근을 할 때 이제부터는 108백팔금강저염주를 돌리십시요!

일심으로 한알한알 돌릴 때마다 시방법계 부처님 법구의 무량한 힘으로 수행과 참회를 빛내 청정심이 되고, 전생부터 이생까지 알게 모르게 지은 업장소멸이 속히되어 망상과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불법인연에 따라 해탈의 길로 인도하게 됩니다.

세계 최초 출현

전체길이 245cm / 제조원 백팔금강저
가격 240,000원

- 사찰에서 고통이 심한 신도님에게 천도재가 어려울 때, 발원기도용으로 사용하시면 소원성취가 속히 이루어짐으로 스님들께서 방토방편용으로 많이 사용하시며, 사찰불사용으로 적절합니다. 스님들께는 20% 할인해 드립니다.
- 백팔금강저염주를 소지하실 때 부처님 법단에 7일에서 21일간 올려놓으신 후 사용하시면 효험이 더욱 큽니다.

부처님의 제 1 법구인 금강저를 정심모아 108염주로 만들었습니다!

본래 금강저 1개만 소지하여도 모든 만사의 화근을 물리치고, 악귀잡귀를 퇴치하여 삼재화, 삼재액을 퇴방한다 하였는데, 금번 금강저는 세계 최초로 금니 금강저108개를 모아 일개의 염주로 제작하여 상서로운 불법력을 강화시킨 장엄법구로서 큰 원력을 지닌 법구입니다. 사찰의 불법력과 스님의 신심원력을 한층 돋우게 하여 수행하는 불자라면 누구라도 소지하면 알게 모르게 지은 전생업장 소멸이 되어 참된수행정진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 성황리 사찰불사를 기원할때
- 자손득남 발원할 때
- 환자가 속쾌차하기를 바랄때
- 시험에 합격을 기원할때
- 사찰신도가 신심이 흩어져 줄어들었을때
- 새 사업을 개업할때
- 금전 재산이 모이질 않고 점점 줄어들때
- 집터나 가게터가 산란하여 장사가 안되고 재수가 없을때
- 가정이 평안하고 부부가 화목하기를 바랄때
- 망상과 마구니로 인해 수행정진이 잘 안될때

입금계좌 : 농협 302-4233-7099-41 / 전화 : 010-4233-7099

옴마니반메훔 금장시계

만사형통 소원성취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



남성용



여성용

부처님께서 고통 속에 있는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 내리신 영험의 비방이 옴마니반메훔 육자대명왕진언으로 항상 외우고 간직하면 모든 문제가 놀랍게 해결된다고 설하셨다. 옴마니반메훔은 부처님 영험으로 중생들의 갖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신속히 해결하고 승리하게 해주신 영험의 진언이다.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한 일들이 신통묘통하게 해결 된다는 옴마니반메훔을 마음속으로 흠모하면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신통하게 묘한 일이 일어나 해결된다. 금장시계 앞면에 동서남북에서 복이 들어오며 만사형통하게 육자대명왕진언 "옴"자를 넣었고 고통과 역경이 와도 승리하며 소원성취하는 행운의 법구가 금장시계 뒷면에 부착되어 있다. 모든 일이 신통하게 잘 풀리는 육자대명왕진언 옴마니반메훔 금장시계는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하며 고급무브먼트와 고급문자판을 사용하고 방수처리와 금장처리한 금장시계로 선물로도 품격이 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 드립니다.

가 격 : 남성용 75,000원 / 여성용 75,000원 (신용카드 분할가)
전 화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계좌 : 032-12-193445 (예금주 : 이상하)



남성용 반지갑

여성용 장지갑

※ 고급케이스에 선물로도 품격!

평생부자지갑

다라니 福 지갑

원하는 재물을 얻고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 마쳐 !!

소중한 남편과 가족친지에게 성공의 선물
소중한 아내와 자녀에게 부와 사랑의 선물

부처님 법구에는 세상사는 동안 물질의 고통을 소멸하고 평생부자로 살게하는 대비신력(大悲神力)의 법구가 있는데도 미련한 중생이 깨닫지 못하고 법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고통속에 살아간다. 불가에서는 인연법과 물연법을 중요시 한다. **돈의 집인 지갑 역시 연이 되면 돈이 동서사방에서 들어오지만 연이 안되는 지갑은 돈은 들어오지않고 고통만 준다.** 불경, 다라니의 근본은 신묘장구(神妙章句)로 글자 그대로 신통하게 묘한일이 일어나 해결된다는 뜻이다. 다라니 복지갑은 동서사방에서 복이 들어오게 하는 법구와 막혔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영험의 법구가 들어 있으며 음양의 조화로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게 왕진언이 지갑 앞면에 들어있다. 소재는 고급소가죽으로 되어 있으며 일반 지갑과는 비교될 수도 없게 내부도 잘 꾸며져 있고 사용하는 중생이 금전의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을 마친 복지갑으로 선물로도 뜻깊은 선물이 될 것이다. **남성용 반지갑 65,000원, 여성용장지갑 98,000원.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 드립니다.** (신용카드 분할가)
전화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계좌 : 032-12-193445 예금주 : 이상하

사업장의 법구 금강 삼고저

장사흥왕과 사업번창성공 축원불공 마쳐!



장사가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개업 선물로도 품격!

부처님 제1의 비방법구

경기가 너무 없어, 장사가 너무 안되, 문을 닫아야 겠어, 요즘 사업을 하는 중생들의 푸념이다. 반면 목도 안좋고 불경기에도 흥왕을 누리는 점포와 사업장도 많다. 부자가 되는 터가 있고, 패망하는 터가 있고, 그리고 항상 겨우겨우 먹고사는 터가 있다. 한건물 한지붕 밑에서도 좋은터가 있어 사업이 잘되고 장사가 흥왕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장사가 안되는 자리를 보면 중생의 지혜도 부족하지만 터도 세고 보이지 않는 잡귀의 방해로 오는 손님의 마음을 흔들어 문앞에서 방황하게 만들고, 들어왔다해도 결정을 못하게 방해하며, 일하는 사람이나 직원들은 오래 있지 못하고 첫 손님이 헛손님이 되면 하루종일 헛손님으로 장사를 힘들게 잡귀가 조화를 부린다.** 부처님 제1의 법구인 금강삼고저는 사업장의 화를 미리 쫓고 잡기를 물리치며 사업성공의 수호신으로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거상들이 사업장에 걸어 놓았던 금강삼고저를 국립 중앙박물관에서 유물로 볼 수 있다. 각종 식당과 점포, 각종사업장, 산재위험이 있는 사업장 등에 금강삼고저가 걸려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으며 장사흥왕 및 사업번창과 산재예방의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하는 금강삼고저는 금니로 제작되어있어 품위가 있고 가로8㎝ 세로3.5㎝에 벽에 걸게 고리와 수술이 달려있어 사업장 안에 걸어 놓으면 좋습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가격 : 85,000원 (신용카드 분할가)(사찰스님 20%할인)
전화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계좌 : 032-12-193445 예금주 : 이상하

장사 성공을 축원합니다

식당, 가든, 의류점, 보석상, 부동산중개소, 이미용실, 목욕탕, 다방, 정육점, 노래방, 주점, 모텔, 여관, 병원, 각종학원, PC방, 당구장, 서점, 인쇄소, 문방구, 기원, 복권방, 각종스포츠센터, 핸드폰점, 분양사무소, 안경점, 신발매장, 전자제품매장, 미곡장, 방앗간, 공장, 주유소, 산재사고 위험 사업장 등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창조·상징·장소성 3박자 맞아야

다리(3)

우리나라 사찰에 만들어진 다리는 그것이 만들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살펴볼 때, 예술적이나 공학적 측면에서 분명히 선진적 산물이었다. 다른 곳의 다리도 그렇겠지만 사찰에 만드는 다리는 공덕을 쌓을 수 있는 대상이었으므로 스님이나 발원자 그리고 다리를 만드는 기술자 모두 특별한 장소성을 갖기를 원했고, 모든 정성을 기울여 작품다운 작품을 만들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심미성과 상징성을 표현할 수 있었고 동시에 다리가 가져야 하는 본래적 기능성을 발휘할 수 있었다.

시대가 변하면서 오늘날에는 돌다리보다 콘크리트나 철 재료를 사용한 다리가 많아졌다. 사찰의 다리도 예외는 아니어서 재료와 구조의 변화가 없을 수 없다. 그러나 최근 사찰에 만들어지는 다리를 보면, 예전의 우리 사찰에서 발견할 수 있었던 우수한 작품성을 발견하기가 어렵다. 한 마디로 신소재와 신기술에 대응할 수 있는 디자인적 변화를 보기 어렵다는 말이다.

좋은 디자인을 만들어내는 것은 작가의 창조적 아이디어와 그것을 받쳐주는 경제적 뒷받침이다. 아무리 좋은 디자인을 만들어내려고 해도 훌륭한 작가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고, 훌륭한 작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경제성이 없이는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다. 지난날 사찰에 만들어진 다리는 바로 스님들의 안목과 작가의 창조성 그리고 경제적 여건이 잘 맞아떨어진 결과이다. 그러나 요즈음 우리 주변에서 발견할 수 있는 사찰의 다리는 스님들의 높은 안목도 녹아있지 않고, 작가의 창조적 노력도 찾아볼 수 없으며, 경제적으로도 뒷받침되지 않는 평범하거나 낮은 수준의 것들이 대부분이다. 그만치 훌륭한 작품성을 가진 다리를 찾기 어렵다는 말이 될 것이다.

최근에 사찰에 만들어진 다리는 대부분 콘크리트를 재료로 하여 만든 것들이다. 콘크리트는 자연재료이다. 이것에도 얼마든지 아름다움을 부여할 수 있고, 이것을 가지고도 당대의 문화성과 작가의 작품성을 펼칠 수 있다. 그러나 사찰에서 발견되는 우리 시대의 다리는 재료만 바뀌었을 뿐 그 재료에 대응하는 창조성과 상징성 그리고 장소성이 결여되어 있다. 심지어는 콘크리트로 홍예교의 구체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중국에서 수입한 화강석을 붙이기도 한다. 재료와 공법은 현대적이면서 양식만큼은 과거의 것을 고집하는 것이다. 이것은 디자이너의 상상력이 부족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스님들의 생각이 구태의연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우리시대에 만들어지는 사찰의 다리는 우리시대의 고민을 담고 있어야 하고 우리시대의 즐거움을 담고 있어야 한다. 궁극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바로 우리 시대의 문화를 담을 수 있는 우리 시대의 작품인 것이다. 지난날 선암사 승선교에서 볼 수 있었던 상상력, 송광사 능허교와 태안사 능파교의 심미적 아름다움은 그것이 만들어질 당시의 문화가 바탕이 되어 탄생한 작품이었다는 것을 되새겨보아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점차 다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신기술, 신공법, 신재료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작품성 있는 다리들도 많다. 그러나 우리 사찰에 만들어지는 다리들은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 한마디로 말해서 과거의 우수한 다리의 작품성을 계승하여 이 시대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새로운 디자인을 창조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우리의 사찰에서 한국 전통사찰의 경관적 정체성을 발견하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

영천 은해사에 새로 만든 다리에서 우리 시대에 만들어질 사찰의 다리가 어떠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약간의 힌트를 발견한다. 어쩌면 산사에는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철제다리이며, 디자인적으로도 우월성을 발견하기 어려워 작품성을 내세우기 힘든 다리이지만 왜 이 다리에서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인가? 그것은 구태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도를 하였다는 점에 이유가 있다. 지금까지 우리 사찰에서 전해 내려온 다리의 전통적 양식에서 벗어나기를 두려워하는 풍조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다리는 약간 엉뚱한 면모를 보여준다. 다리의 교각은 없고 단지 다리 양쪽 언덕에 기초를 한 후 빔을 걸고 그 위에 철판을 얹었다. 마치 그 옛날 널다리와 같은 구조인데 재료만 달라졌을 뿐이다. 그러나 이 다리는 발상의 전환이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일러주는 사례가 아닐 수 없다. 물론 이러한 유형의 다리가 한국사찰의 다리가 지향해야 할 현대적 프로토타입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 많은 생각을 하지 않은 어설픈 디자인, 주변과 어울리지 않는 색채의 도입, 불교적 상징성의 이탈 등등이 이 다리의 한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다리를 만든 스님이나 작가의 새로운 발상은 한국사찰의 다리가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흥미로울 수 있는 것이다.

최근 만든 다리 작품성 결여
돌다리 줄고 콘크리트·철재료 사용
디자인도 신소재 신기술에 맞게
영천 은해사 철제다리 시대 반영



통도사 삼성반월교는 세 개의 무지개 돌다리로 구축 되었다. 삼성반월교는 마음심(心)자를 나타낸다. 곧 깨끗한 한가지 마음으로 건너야 하는 다리라는 의미다. 즉 '일심교' 를 뜻한다.

은해사 다리를 통해서 향후 우리나라 사찰에 만들어져야 할 현대적 개념의 다리는 어떠하여야 하는지를 생각해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전통의 창조적 계승이 가능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우리 사찰에서 볼 수 있었던 다리의 양식, 예를 들면 무지개다리, 누다리, 널다리와 같은 유형의 다리를 신재료, 신공법, 신기술을 동원해서 우리 시대의 문화를 담을 수 있는 작품으로 재창조해야 한다. 또 한 가지 사찰의 다리는 종교적 상징성을 담고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현대적 언어로 해결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에 만들어진 다리들처럼 교각에 만(卍)자 문양을 넣는다든지 연꽃봉우리를 조각하는 것이 아닌, 불교적 상징성을 표현할 수 있는 우리 시대의 디자인 언어를 만들어내야 한다. 콘크리트는 그것대로 철 재료는 그것대로 재료가 가진 특성이 살아나야 하고, 다리의 본래적 기능 역시 확보되면서 작가가 추구하는 작품성이 살아 숨 쉬는 다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디자이너들이 생각해야 할 과제인 것이다.



홍광표(동국대 조경학과 교수, 사찰조경연구소장)



대원사의 징검다리는 극락정토의 구품연대를 상징한다.



시카고 밀레니엄파크에 만들어진 다리에서는 신공법과 신재료에 대응한 새로운 개념의 디자인을 볼 수 있다.



화엄사에 새로 만든 다리. 무지개 다리의 이미지를 주기는 하나 콘크리트 구체에 돌을 붙여 만든 작품이다.



최근 많이 사용하고 있는 목재 데크로 만든 다리. 기존의 다리에 대한 이미지와는 차이가 있다.

그림을 보고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습니다.

※ 단체주문 쇄도
이재복 지음(270면)
정가 12,000원



사은행사
정골요법을 구입하시는
분에게 드리는
무료증정품



이재복 지음(270면)
정가 12,000원

이 운동으로 죽을 병 고친사람, 몸이 건강해진 사람, 정력이 강해진 사람,
무수히 많아, 누구든지 하기만하면 제 병을 제가 고치는데 안하니까 문제여…
이 운동은 무병장수 할 수 있는 최고의 운동이여! (본문에서)

빛살림
척추교정운동

폐결핵으로 한쪽폐가 녹아버리고 간경화, 위궤양, 대장염으로 복수가 차서 피를 토하고 쓰러졌던 사람이 죽음을 기다리다가 무심코 『발치기』 운동으로 기적같이 살아난후 세계최초로 창안한 활인건강법!

골격이 비뚤어져서 생기는 병은 골격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모든 내장질환의 발병원인은 골격이 비뚤어져 척추 신경이 눌려서 발생한다는 연구보고가 있습니다.

종다는 곳 다 다녀보고 돈은 돈대로 없애고도 고통이 계속되는 분들의 종결 코-스

침, 뜸, 부항, 약물치료, 물리치료, 주사요법, 무중력감압치료, 수술을 받아도 여전히 고통이 계속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치료받을 때는 좋아지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재발하는 이유는 척추를 감싸고 있는 기립근육을 풀어주지 않고 척추의 토대인 골반을 바로 잡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스스로 골격을 바로잡아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십견, 허리디스크, 척추관협착증, 좌골신경통, 갑상선, 관절통, 고혈압, 당뇨, 안면마비, 위장병, 수족냉증, 두통, 이명증, 전립선, 피부병,
백반증, 아토피, 알레르기, 건선, 부정맥, 만성피로, 상기증은 골격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20여년간 수십만명이 체험한 건강법을 지도 합니다.
단, 한번만 체험해 보시면 곧바로 확신이 옵니다.

이 운동으로 지긋지긋한 통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 골반변형이 만병의 원인. 편안하게 누워서 골반과 전신의 균형을 바로잡는 법 수록
- 비뚤어진 척추를 스스로 바로잡고 전신의 막혀 있는 경혈을 뚫어서 질병의 뿌리를 뽑는 법 수록
- 퇴행성 질환을 예방하는 발가락 운동과 뱃속의 단단한 덩어리인 적취(냉적)를 쉽게 푸는 법 수
- 악어가족같이 단단해진 어깨근육, 기립근육 좌골근육을 아주 쉽게 풀어서 통증을 뿌리 채 뽑는 법 수록
- 양쪽다리 길이가 길고 짧은 것을 손쉽게 바로잡아 전신의 균형을 바로잡는 법 수록
- 단침이 몽글몽글 솟아나며 전신의 자장을 높이고 몸속의 냉기를 확 뽑아내서 체온을 높여주는 기지개운동법 수록

종다는약 다 먹어봐도 병이 낫지 않는다면 몸속을 대청소하라

독소가 우리몸을 공격하고 있다. 만성병이 잘 낫지 않는 이유는 독소가 꽉차있기 때문이다.
현대인의 만성병을 이기는 놀라운 디톡스요법 공개!

몸속에 쌓인 독소와 뼈속에 들어있는 냉기를 싹~ 뽑아내서 자연치유력을 높이는 동양의학 역사상 가장 놀라운 건강법 수록!

■ 책 구입안내
책값 12,000원을 입금하시고 전화로 주문하시면 책2권을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 농협계좌 : 751017-52-024285 예금주 김 순 옥
■ 위 치 : 경북 영주시 단산면 구구리 901 소백산수련원

책신청 :054)637-9810

정골본가(이영숙) 서울성수동1가 14-35(우영빌딩4층 제2010-서울성동 0204호

정찬주의 아쇼까대왕 유적기행 (12)

바이샬리서 붓다의 인간적 모습 보다

여래의 법 안에서는 모두가 하나

쿰나하르를 나온 일행은 파트나 시내를 관광하지 않고 바로 바이샬리로 행선지를 정한다. 파트나 도심지 북쪽으로 흐르는 강가강은 강폭이 바다와 같이 넓으므로 유람선을 타는 재미가 쏠쏠하지만 일행은 바이샬리로 가 아쇼까왕 석주를 답사하기로 한 것이다. 파트나의 강가강 강폭이 바다와 같은 까닭은 네 개의 강이 만나기에 그렇다. 히말라야에서 발원한 칸타키강과 골고라강, 그리고 야무나강과 데칸고원에서 시작한 손강이 합류하여 흐르기 때문인 것이다. 부처님은 이를 비유하여 신분차별이 없음을 말씀하신 적이 있다.

"세상에는 바라문,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와 같은 신분차별이 있지만 여래의 법 안에는 차별이 없다. 네 개의 강이 마침내 하나가 되어 흐르듯 여래의 법 안에서는 모두 다 하나가 된다."

파트나에서 바이샬리까지는 70km쯤 된다고 하니 버스로 2시간이면 넉넉할 것 같다. 유마거사의 고향인 바이샬리는 한역경전에 비야리(毗耶離) 혹은 비사리(毘舍離)로 나온다. 바이샬리는 부처님과 아주 인연이 깊은 땅이다. 파후푸트라카(Pahuputraka, 多子塔)에서 마하가섭을 제자로 맞아들이기도 했고, 카필라성을 나와 첫 스승을 만난 곳이기도 하거니와 정각을 이룬 뒤 그곳으로 가 이적으로 가뭄과 질병을 퇴치했고 여성의 출가를 허락했으며, 열반 3개월 전에 또 다시 마지막으로 들렀던 곳이다. 그만큼 부처님은 바이샬리를 사랑하셨고, 또 바이샬리 사람들은 부처님을 존경하였다. 부처님이 열반을 앞두고 바이샬리 거리를 떠날 때의 목소리에는 인간적인 아쉬움이 짙게 배어 있다. 부처님이 바이샬리 교외에 있는 차팔라 사당에 머물 때였다. 바이샬리 거리로 나가 탁발하고 돌아오는 길에 걸음을 멈춘 채 뒤돌아보면서 아난에게 말했다.

"여래가 이 아름다운 바이샬리 거리를 보는 것도 마지막이구나!"

부처님이 바이샬리를 떠나자 릿차비족 사람들은 흐느끼면서 부처님 뒤를 따랐다. 부처님과 헤어지는 것이 안타까워 발을 동동 굴렸다. 그러나 릿차비족 사람들은 칸타키강에서 부처님과 이별해야 했다. 부처님은 강을 건넜다. 그래도 릿차비족 사람들이 강 저편에서 흩어지지 않고 서 있자 부처님은 강물에 발우를 띄워 보냈다. 부처님이 릿차비족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선물이던 것이다.

부처님 열반 100년 후 시작된 계율 해석 문제

일행은 아쇼까왕 석주를 답사하기에 앞서 부처님이 열반하셨을 때 8등분한 사리 중에서 바이샬리국 몫으로 받은 사리가 봉안됐던 스투파 유적지로 먼저 가본다. 바이샬리 왕이 조성한 스투파 터 앞에는 제법 큰 카라우나 포카르(Kharauna Pokhar) 호수가 있는데 늘 이곳을 올 때마다 성스러움이 느껴진다. 최근에 안 사실이지만 강가 강물이 지하 수맥을 타고 흘러와 포카르 호수를 형성하고 있다고 하고, 공화제 왕국으로서 투표로 선출된 바이샬리 왕들은 의식을 치를 때 이 호수의 물을 성수로 이용했다고 한다. 지금도 인도 국회에서는 옛 바이샬리의 공화제도 정신을 본받고자 이 호수의 물을 떠와 의식에 사용한다고 안내하는 인도 청년이 설명한다.

호수 저편에 일본 절의 흰 탑이 보인다. 인도의 불교성지를 답사하면서 확인한 바지만 중요 성지에는 꼭 일본 절이 들어서 있는데 무엇이든 선점하는 데 있어서 우리보다 경제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재빠른 것 같다. 일본 절 부근의 숲이 제2차 경전결집의 장소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부처님이 열반하신 지 100년경이었다. 계율 문제로 바이샬리에 사는 젊은 수행자들과 서인도와 동인도에 사는 노수행자들 간에 갈등이 생겼는데 그것이 제2차 결집의 요인이 되었다. 어느 날, 아난의 제자이자 계율에 밝은 서인도 출신의 야사 장로가 상업도시 바이샬리에 왔는데 젊은 수행자들이 신자들로부터 금화와 은화를 시주받는 것을 목격하고는 깜짝 놀랐다.

야사 장로는 즉시 바이샬리의 젊은 수행자들에게 금화와 은화를 시주받는 것은 계율에 어긋나는 일이라며 지적했다. 그러자 젊은 수행자들이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다며 반발했다. 실제로 바이샬리 수행자들은 탁발에만 의존하는 숲속생활에서 스스로 수행하는 사원생활로 수행환경이 바뀌어가고 있었으므로 돈이 필요하여 시주를 받았던 것이다. 야사 장로는 바로 바이샬리를 떠나 동인도와 서인도의 수행자 대표를 4명씩 뽑아 돌아왔다. 노수행자 중에는 아난의 직계 제자인 법랍 120년의 사르바카마 장로를 비롯하여 700명의 장로가 참여했다.





부처님 사리를 봉안했던 아쇼까왕 스투파〈사진 왼쪽〉와 현재 남아 있는 아쇼까왕 석주 중에서 가장 완벽한 모습의 석주〈사진 오른쪽〉. 부처님의 열반지인 쿠시나가라를 바라보고 있는 석주의 사자상에서 전륜성왕 아쇼까왕의 불법에 대한 예경이 느껴진다.

부처님 인연 깊은 바이샬리
아쇼카왕 석주 온전히 남아

사자상이 북쪽 보는 이유는
부처님의 열반을 기리는 것

그래서 제2차 결집을 칠백인결집(七百人結集), 혹은 칠백결집이라고도 불렀다. 야사가 주도하여 논의된 내용은 십사비법(十事非法), 즉 열 가지 옳지 않은 일이었다. 그 내용인즉 스님들이 음식에 맛을 내는 소금을 지니고 다니는 것도 비법이고, 공양 후 발효된 우유나 술과 같은 발효시킨 과즙을 먹는 것도 비법이고, 금화나 은화를 시주받는 것도 비법이라는 등등이었는데, 10가지나 됐다. 이러한 내용의 시줏물은 당시 바이샬리 사람들의 높은 생활수준에서는 부담될 것이 없었지만 장로들은 제 1차 결집 때 정한 계율을 내세워 제동을 걸었던 것이다.

부처님 사리를 봉안한 스투파 터에 씌운 양철지붕이 별로 아름답지는 못한 것 같다. 1958년 발굴조사 때 부처님의 유회(遺灰) 사리가 발견되었다고 하여 스투파 기단을 보호하기 위해 그랬다고 하지만 하루빨리 스투파를 복원했으면 좋겠다. 아쇼까왕이 이곳의 사리 중 일부를 일행이 지금 가고 있는 아쇼까왕 석주 옆의 스투파에 봉안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아쇼까왕이 바이샬리로 순례 와서 조성한 스투파이기 때문이다.

아쇼까왕이 바이샬리에 석주를 세운 이유는?

아쇼까왕 석주와 스투파 입구에 있는 마을은 인도의 궁벽한 농촌 중에서도 가장 원시적인 모습이다. 천인(天人)이 어떤 모습인지 알려면 의식주가 풍요로웠던 릿차비족 사람들을 보라고 한 부처님의 말씀이 무색하다. 부처님께 망고동산을 기증한 유녀(遊女) 암바빨리가 살았던 마을치고는 너무나 초라하다. 마차들이 부딪칠 정도로 번화했던 거리가 소와 염소가 꼴을 먹고 있는 조용한 거리로 변해 있다.

그러나 답사일행은 아쇼까왕 석주를 보고 너도나도 놀란다. 지금까지 답사하면서 본 것 중에 가장 완벽한 모습의 석주인 것이다. 석주 상단의 사자상도 완벽하다. 아쇼까왕은 좀 전에 보았던 바이샬리 왕이 조성한 스투파에서 부처님 사리를 가져와 이곳에 봉안하기 위해 스투파를 만든 뒤 석주를 세웠을 것이다.

'아쇼까왕은 왜 이곳에 스투파를 조성하고 석주를 세웠을까?'

나는 그 해답을 석주 상단에 얹힌 사자상에서 찾는다. 사자상의 사자는 북쪽을 바라보고 있다. 부처님이 열반하신 쿠시나가라 땅을 응시하고 있는 것이다. 부처님이 바이샬리에서 열반을 선언하고 마지막 설법한 것을 기리기 위해 그랬던 것은 아닐까.

원숭이 연못 저편에 바이샬리 왕이 지어 기증한 대림정사 중각강당 터가 보인다. 바이샬리왕이 부처님에게 대림정사를 기증한 것은 은혜를 갚기 위해서였다. 당시 바이샬리는 오랜 가뭄으로 사람들은 기근과 질병에 시달렸는데, 바라문이나 육사외도들이 해결하지 못하자 바이샬리 왕은 부처님에게 사신을 보내 재앙을 해결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부처님은 바이샬리 땅을 밟게 되었고 부처님이 아난에게 〈보경 (寶經, Ratna Sutra)〉을 외우게 하고 자신의 위신력으로 가뭄과 질병을 물리쳤던 것이다. 이에 바이샬리 왕은 부처님에게 대림정사를 지어 기증했고 부처님은 2개월 동안 머물렀다고 한다. 지금은 벽돌 무더기만 남아 있지만 당시 부처님은 대림정사에서 〈화엄경〉 입법계품을 설했고, 양모 마하빠자빠띠가 카필라성 여인 500명을 이끌고 와 세 번을 간청하자 출가를 허락했던 곳이다. 물론 아난의 하소연이 없었더라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여성도 세존의 가르침에 따라서 수행한다면 남성과 똑같이 깨달음에 이를 수 있지 않습니까?"

"아난이여, 수행을 완성한다면 누구든지 깨달음에 이를 수 있느니라."

"그렇다면 왜 마하빠자빠띠님의 출가를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까? 마하빠자빠띠님은 마야부인께서 돌아가시자 세존께 당신의 젖을 먹이신 분입니다. 세존을 친아들처럼 정성을 다해 키운 분입니다. 어찌 은혜를 잊으시려고 합니까?"

결국 부처님은 아난의 간절한 청을 받아들여 여성의 출가를 허락했다. 부처님이 여성의 출가를 주저했던 까닭은 남존여비가 심했던 바라문 사회 분위기와 산적이나 무뢰한들의 폭력을 걱정하여 그랬던 것이지 다른 이유는 없었던 것이다.

어느새 파트나에서 보았던 중천의 해가 석양이 되어 기울고 있다. 일행도 깃을 접는 날새처럼 숙소를 걱정해야 하는 시각이다. 인도로 와 동가식서가숙하는 처지가 된 지 벌써 일주일이 넘은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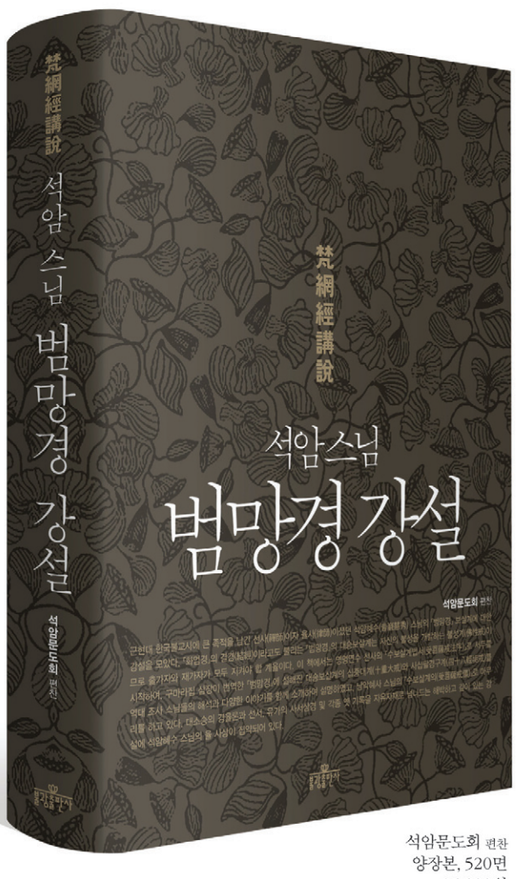


글=정찬주 · 사진=아일선



부처님이 천인(天人)의 모습을 가졌다고 비유한 바이샬라의 릿차비족. 부처님 재세 당시 영화가 무색할 정도로 그들의 현재 생활은 궁핍하다.

석암스님 범망경 강설
梵網經講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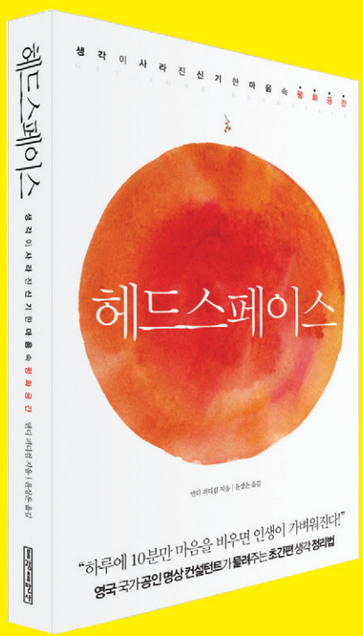
석암문도회 편찬
양장본, 520면
25,000원

戒器堅固하야사 계기견고 — 계의 그릇이 견고하여야
淨水澄淸하여 정수정청 — 선정의 물이 맑아지며
慧月長明이라 혜월장명 — 지혜의 달이 환히 비치리

영명연수 선사의 『수보살계법서』를 서두로 시작하여
『범망경』 10중대계와 48경구계를 자세히 풀이하고,
남악혜사 스님의 『수보살계의』로 마무리하였으며,
자운성우 스님의 서문, 호암인환 스님의 발문이 포함되어 있다.
대소승의 경율론 삼장과 선사들의 선어록,
유가의 사서삼경 및 중국의 각종 옛 기록을 넘나드는
해박하고 깊이있는 석암 스님의 율 사상이 집약되어 있다.

석암혜수(昔巖慧秀, 1911~1987) 스님
근현대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율사이자 선사로, 석호 선사의 선법을 계승하였고, 만하, 용성, 동산 스님으로 이어지는 보살계맥을 이어받아 범어사 금강계단에서 전계대화상을 역임하였다. 부산 도솔산 내원정사를 창건하였으며 말년에 조계종 원로의원으로서 후학들을 지접하였다.

생각이 사라진 신기한 마음속 평화공간
헤드스페이스
영국 국가 공인 명상 컨설턴트가
들려주는 초간편 생각 정리법



2011·2012 영국 아마존 베스트셀러!

앤디 퍼디컴 지음
윤상운 옮김
312면 | 15,000원
"하루에 10분만 마음을 바꾸면 인생이 가벼워진다!"
영국 국가공인 명상 컨설턴트가 들려주는 초간편 생각 정리법

불광출판사 Tel. (02)420-3200 Fax. (02)420-3400 www.bulkwang.co.kr @bulkwang_c www.facebook.com / bulkwang

인쇄 문화의 꽃 - 판화의 원류를 찾아 ⑧

한국고판화학회 제1차 해외 학술답사

전통문화 보존은 무강 연화(年畵)박물관처럼

중국 전통 연화를 모아 놓은 박물관 중 가장 규모가 크고 잘 정리된 하북성 무강 연화박물관을 한국고판화학회 회원들이 찾았다. 업무를 마친 토요일 늦은 오후였지만, 관장과 전 박물관 직원들이 퇴근을 미루고 남아 환대해줬다. 대륙인의 풍모에 다시 한번 감격할 수 밖에 없었다. 특히 2006년 11월 원주 명주사 고판화박물관에서 7일 동안 머물면서 자매결연을 맺었던 반가운 얼굴들을 다시 볼 수 있어 더욱 감회가 새로웠다.

무강 연화박물관은 1985년에 건립된 중국 제일의 연화(전통 목판화)전문 박물관으로, 무강현의 중심지역에 위치해 있다. 박물관의 건축은 청대 중국 북방지역 민간주택의 특색을 참조하여 설계됐으며, 백색의 벽에 회색의 기와가 날아갈 듯 한 처마의 형태는 중국 전통 건축의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었다.

무강 연화 박물관의 설립목표에 대해 담당 큐레이터는 "하북성 무강지역의 연화를 수집 · 보호하고 연구해, 중국의 전통문화를 널리 선양하고 계승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박물관의 건축물들은 중국의 북방의 민간주택을 모본으로 설계됐다. 우리나라로 치면 군에 해당하는 작은 마을에 위치한 박물관이지만, 중국 연화박물관을 대표하는 곳이라는 자부심이 대단했다. 박물관 건물 설계에서부터, 소장품의 특징에 맞춰 건립되는 등 작지만 강하고 알찬 박물관의 풍모를 갖추고 있었다.

이제 국가 등록 박물관이 800개관을 넘어 1,000개관을 바라보는 한국에서도 박물관의 성격에 맞춰 박물관 건물의 설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양적인 팽창에 걸맞게, 질적인 부분까지도 세심한 국가적인 배려가 고려돼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든다.



박물관 전시실을 중국 민가처럼 꾸며놔 유물의 가치를 더욱 살리고 있다.

무강 연화 박물관의 총면적은 25,100㎡이며 건평은 4,700㎡이다. 전시관, 전통공예실, 휴게소 세 구역으로 나눠져 있으며, 각종 화초와 수목, 연못, 푸른색의 벽돌로 포장한 산책로 등 아름다운 주변 환경이 백색을 위주로 한 박물관을 더욱 돋보이게 하고 있었다.

무강 연화박물관은 1992년 10월 4일, 최초로 전시관을 완성하여 일반 대중에 공개했으며, 2002년에 다시 확장과 보수를 거쳐 개방했다. 현재 5개의 전시관과 하나의 작업실이 있으며, 제1전시관은 무강 연화가 탄생하게 된 역사와, 문화적인 배경, 자연적인 조건, 전성기의 규모 등을 소개하고 있었다. 제2전시관은 무강 연화의 광범위한 제재, 풍부한 내용, 다양한 형식으로 구성돼 있다. 제3전시관에서는 무강연화가 민간에서 제작되고 판매되는 과정과 중국과 해외에 소장돼 있었다. 제 4전시관은 주로 근현대의 역사적인 변혁기의 사건을 묘사한 연화를 전시하고 있다. 제 5전시실은 중국 각지의 목각연화 및 해외의 연화를 소개하고 있었다.

전시관에는 청대 무강연화의 전성기와 혁명전쟁시기의 작품을 중심으로 진열하는 등, 모두 1,000점의 작품이 전시돼 있다고 한다. 전체적으로 중국 민간전통의 특색이 두드러지게 진열되고 있었으며, 전시관 내부에는 자체에서 제작한 등과 전통 민간주택을 모방한 건축물을 배치하고 각종 창화(窓畵:창문을 장식하는데 사용하는 연화)와 문으로 공간을 장식해 중국적인 특색을 잘 나타내고 있었다.

작업실에는 전통 목각화를 제작하는 전과정을 재현시켜 놓아, 관람객들이 전문가의 지도를 받아가며 자신이 직접 작품을 완성하여, 전통 목각화의 멋을 체험해 볼 수 있도록 해, 박물관 교육에 일찍부터 눈뜬 곳 임을 알 수 있었다. 박물관 주요 설립목적 중 하나인 수집활동을 무강 연화박물관에서도 꾸준히 전개하고 있었으며, 개관한 이후 20여 년간, 고대의 연화목판과 자료의 수집 및 보전작업에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한다.

전임 박물관장은 민간에 남아 있는 목판을 발굴하기 위해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호구별로 방문하며, 역대의 연화목판과 진귀한 작품을 세밀히 조사해, 지금의 소장품을 수집하는데 많은 성과를 거뒀다고 한다. 특히 2003년 10월 11일, 무강현(武強縣) 구성촌(舊城村) 고씨(賈氏) 고택의 지붕에서 발굴된 연화 목판 55장은 무강 연화박물관이 중국 유수의 박물관으로 발돋움할 수 있게 한 계기가 됐다. 결국 박물관의 차별성은 소장품의 질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사례다.

하지만 근래에 개관되는 우리나라의 박물관들은 소장 유물의 확보가 제대로 이뤄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건물만 크게 짓고, 디오라마 등 전시 인테리어에만 신경을 쓰고 있다. 이러다보니 어느 박물관에 가도 똑같은 느낌만 들고, 관람객들도 별 다른 감흥을 얻지 못하고 있다. 유물 수집이 없는 박물관은 '팥 없는 찐빵'에 비유되듯 한국 박물관들도 좀 더 유물을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개관됐으면 한다.

현재, 무강 연화박물관의 소장품은 목각판, 연화작품, 민속품의 3종류로 모두 1만여 점에 달한다. 목각판은 청대초기부터 현대의 작품까지 소장돼 있다. 연화작품은 고대 민속신앙을 반영한 신상화(神像畵)나 사회역사의 변혁을 반영한 신문화(新門畵)가 총망라돼 관람객의 발길을 사로잡는다.

1992년 개관, 연 7만명 방문
1~5전시실에 무강年畵 총망라
설계부터 소장 유물까지 특성화
건축물, 북방 민간주택 묘사
체계적 운영 한국도 배워야

개관 이후, 매년 평균 국내외 관람객 7만여 명이 박물관을 찾고 있다. 또, 초중학생과 미술학교 학생들의 교육에 중점을 둬 초중학생은 무료로 관람 시키는 제도를 실행하고 있다.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은 학생들의 집단 관람일로 지정해서 학생들이 직접 연화를 제작하게 해 학생들이 어린 시절부터 전통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미술 전공 학생들에게는 체계적으로 중국의 전통적인 목각판화 공예와 창작기교를 이해할 수 있도록 실습실을 제공해 국내 대학 미술학과의 제 2 강의실이 되고 있었다. 중국 전통문화예술의 보호와 계승에 대한 자부심은 이런 박물관 교육에서 비롯되고 있다.

무강 박물관은 국내외 순회전시회도 꾸준히 추진해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 중국에서는 북경 고궁박물관, 수도박물관, 국가박물관, 민족 문화궁 등과 해외의 한국, 일본, 싱가포르, 미국, 스페인 등지에서 전문적인 주제의 전시회를 진행한 바 있다.



중국 하북성 무강 연화박물관 전경. 중국 북방 가옥의 형태로 지어진 이 박물관은 무강 지역 연화를 총망라하고 있는 중국 유수의 박물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박물관 수장고 전경. 유물 보존과 체계적인 수집이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



전시실 내부. 무강 연화의 발생 역사부터 현황까지 정리했다.

무강 연화박물관에서는 전통 연화를 제작하는 각수와 인출장들을 길러내는 데도 심혈을 기울인 결과 중국 전통 연화 장인으로 평가받고 있는 마시찬 무강 연화박물관 부관장 같은 인물을 배출하기도 했다.

무강 박물관에서는 소장 목판을 이용한 인출작업을 통해, 다양한 서적들도 출판하고 있었다. 특히 무강연화박물관의 고문인 보송연(薄松年)교수가 편찬한 하북무강연화예술(河北武強年畵藝術)과 장춘봉(張春峰)선생이 편집한 하북무강연화(河北武強年畵)는 국내외 학술계의 호평을 받고 있는 서적들이다.

이번 무강연화박물관의 방문을 통해, 아시아 고판화의 다양성 중에 중국 연화가 차지하는 비중은 자못 대단하다는 것을 실감했다. 무엇보다 중국 연화는 한국의 민화처럼 질곡진 민중들의 삶이 묻어 나오는 생활예술의 절정이라는 것이었다. 우리들이 전시실과 작업실을 방문하는 동안 중국의 TV 방송국에서 나와 우리 일행들을 취재하는 등 고판화학회의 방문을 주요하게 다루고 있었다. 그들이 자신들의 문화를 얼마나 소중히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이기도 했다.

그 옛날 세계는 비단을 통해 길을 만들고 교류를 했다. 인쇄문화의 꽃 고판화 역시 유구한 역사 속에서 세계인들의 정보 교류에 한 축을 담당했으리라.

실크로드만 아니라 옛 세계인들이 정보를 소통했던 '프린트 로드'의 재건이 시작됐으면 하는 이번 중국 학술교류 행사를 통해 발원을 해 본다.



글=한선학 고판화박물관장
사진제공=황진 · 정찬민 · 무강 연화박물관

탱화 청동불상 전문 [1,000불 3,000불 10,000불]





신중탱화

四 代 傳 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효 → 보응당 문성 → 회응당 상균 → 원만당 석윤

해동불교미술원

010-3219-7180 / 010-3743-5167

해성불원(海成佛院) 자비회(慈悲會)

삼보에 귀의 하옵고
부처님의 자비의 광명이 온누리에 비추어 중생들의 소원성취 이루도록 발원 하옵니다.

베트남, 중국(한족), 필리핀, 캄보디아, 네팔, 몽골
아가씨와 짝지어 주기 운동

- 결혼정보 초혼 · 재혼 -

중국(한족)아가씨 신랑 한 사람 당 신부 열 명의 선을 보고 일일이 궁합을 보고 궁합이 좋은 아가씨 자택 방문하여 부모들을 만나보고 사는 모습과 미진한 점등을 묻고 살펴서 완전 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음 (스님의 직접 통역 하에)

□ 의심점이 있으신 분 먼저 중국에 결혼한 신랑들과 연결하여 투명하게 연결도 하여 드립니다. (원하시는 분들께)
□ 한족은 태국, 필리핀, 베트남 아가씨들과 똑같습니다. 우리말을 전혀 모르니까 (한국말을 나오면 가르쳐야 합니다)
□ 자격 : 직장이 있는 자, 전세방이라도 있는 자
(직장 확인서 1통, 갑근세 증명 1통, 전세 계약서 사본 1통)

왕복항공료, 호텔숙박비, 식대, 국제결혼 서류 작성비
신부 입국 모든 제반 일체를 책임성 있게 일괄 처리

대구 연락처
대구 (지장사)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동 1553-6
053)632-0078
010-9243-0113 범성스님 합장

중년여성 일본 결혼 할 분
준비 비용 일체 일본에서 부담

1. 불자 보살님들 여러분이 인도하여 주시며, 형제같이 지낼 분
2. 본인이 여러남자 선을 보고 자유로 선택하여 결정함.
3. 3개월까지 무료 침식제공
4. 일본은 불교국가라 불자 우대
5. 우리도 넓은 세상을 바라봅시다.

불교가족 선남 선녀 짝 지어 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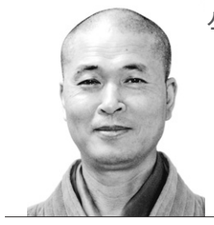
불교가족 중 과년한 선남·선녀들에 한함 , 재혼자 남·여
(가족 사항 자세히 기입 할 것)

신청 방법
1. 명함판 사진 1매
2. 자기 소개 이력서(상세히)
3. 직장자택유무

자비회에서는 궁합을 보아 좋은 커플을 소개 하오니 음력으로 년월일시를 정확히 기재 전등사 또는 서울사무소로 신청서류 보내세요.

담당스님 만 해 합장

◆ 담당 : 만해 스님 합장 인천 광역시 남구 용현동 463-57 우.402-202 (전등사 내)
주 · 야 핸드폰 010-5494-9595 / 전화 032)886-1661 / 070-8192-1661
서울사무실 :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3가7아쟈빌딩1505호(해피씨티 내)



석우 스님의
조주록 선해

근본으로 돌아가라

학승이 물었다.
"근본으로 돌아가면 뜻을 얻지만, 빛을 따라가면 높은 뜻을 잃는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노승은 그 말에 대답하지 않겠네."
학승이 말했다.
"화상이시여, 제발 말씀해 주소서."
조주 스님이 말했다.
"말하지 않는 것이 합당한 거야."

問 歸根得旨隨照失宗時如何 師云 老僧不答者話 云請和尚答話 師云 合與麼

세상이 어지러운 것은 근본을 잃어버리고 겉에 나타난 얄팍한 빛에 따라가기 때문이다. 만약 사람이 곧 붓다임을 안다면 어찌 사람을 해치고 속이는 일이 일어나겠는가. 만약 종교가 제대로 가고 있다면 어찌 신에게 기도하는 따위에 머물러 있으면서 깨우치지 못하고 있겠는가. 평등을 안다면 어찌 승속을 구분할 것이며, 진리가 무엇인가 안다면 어찌 불법이 어렵다 할 것인가.

뿐만 아니라, 선생이 본분을 잃고, 정치인이 탐욕으로 물들고, 경제인이 독선적이고, 노동자가 힘으로 전복하려 하고, 강대국이 약소국을 희롱하는 것, 있는 자의 횡포 등이 다 근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다.

사람들이 모두 근본으로 돌아가 각자 본분을 지킨다면 세상이 어찌 어지럽겠는가. 근본을 잃어버리고, 유혹하는 조그마한 빛, 즉 시기, 질투, 분노, 욕심, 박절, 쟁투, 미움, 시비 등에 끌려가기 때문에 세상이 혼란한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그 누가 이의를 달겠는가? 조주 선사라고 해도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학승이 물었다.
"무엇이 생각할 수 없는 곳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빨리 말해라, 빨리 말해."

問 如何是不思處 師云 快道快道

생각할 수 없는 곳은 근원이다. 만 가지가 나온 곳, 세계가 나오고 사람이 나온 곳, 자동차, 비행기, 우주선, 집, 꽃, 열매, 각종 법칙 등이 나온 곳이 근원이다. 근원은 세상을 만들지만 근원은 이름이 없고 형체가 없으므로 그것에 대하여 생각할 수도 없다. 그러면 도대체 그곳은 어디인가?

선사가 갑자기 독자의 멱살을 잡고 빨리 말하라고 다그친다면, 그때 어떤 상태가 되겠는가? 바로 그때 선사가 무엇을 알게 하려는 것인지 잘 착안해보라.

학승이 물었다.
"만리(萬里)동안에 여관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선원(禪院)에 유숙한다."

問 萬里無店時如何 師云 禪院裡宿

본 〈조주록〉이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 학인들이 물었던 것들을 모아놓다 보니까 다양한 질문과 답변이 나온다. 여러 상황에 대한 조주 선사의 답변을 보면서 한 시대를 살다간 고승 대덕의 인생관과 철학을 엿볼 수 있다.

만리 동안에 잘 곳이 없다고 하는 것은 몸이 편히 쉴 곳이 없다고 하는 것이다. 만리 사이에 여관은 없어도 산중에 선원(禪院)은 있다. 여관이 없으면 선원에 유숙한다는 것은 마음을 한 곳에 고정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응무소주이생기심(應無所住而生其心)이다. 진정한 선사는 정처(定處)가 없다. 여관이 없으면 선원에서 유숙하고, 선원도 없으면 나무 밑에서 유숙한다. 나무도 없으면 들판에서 유숙한다. 인연이 다하면 떠나고 인연이 남았으면 더 머문다.

몸을 유숙하는 것만 그러하지 않다. 마음도 그렇다. 사랑에 머물지 않고 미움에도 머물지 않는다. 얄팍한 지식에도 머물지 않고 반야에도 머물지 않는다. 중생에도 머물지 않고 부처에도 머물지 않는다. 그래서 선사는 늘 평안하다. 목적 달성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지만, 그 결과에 연연하지 않는 정신이 바로 선사의 정신이다. 목적이 달성되어도 평상시와 똑같이 담담한 것이 선사의 마음이다.

무불선원 선원장



주성원의
기초 교리〈16〉

바른 삼매의 네 가지 단계 사선정

팔정도-⑧ 정정(正定)

팔정도의 마지막인 정정(正定)은 고도의 정신수행과 가장 관련이 깊은 덕목이다. 부처님은 자신이 도달한 깨달음의 경지를 '고통도 아니요, 즐거움도 아닌[非苦非樂] 중도행(中道行)'이라 했고, 이러한 경지에 이르게 하는 수행방법 중 하나가 바로 팔정도라고 했다.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정견(正見)과 정정(正定)인데 그 이유는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수행의 출발점과 종착점이기 때문이다.

정정은 흔히 '바른 정신통일'로 번역된다. 즉 정(定)은 정신통일의 뜻을 갖고 있고, 다른 말로 삼매(三昧)라고 불린다. 불자라면 너무나도 귀에 익은 삼매가 바로 정(定)을 의미하는데, 이 정(定)과 삼매는 산스크리트어 삼아디(samādhi)를 번역한 말이다. 단지 정(定)은 삼아디를 의역한 것이고 삼매는 산스크리트어 삼아디의 발음만 차용해 번역한 것이다.

산스크리트어 삼아디는 '조합시키는 것', '결합시키는 것', '무언가에 열중하거나 주위를 기울이는 행위' 등의 의미가 포함된 말로, 여기서 발전해 '깊은 명상', '(정신을 집중해) 전심전력을 다하는 것' 등의 뜻을 갖게 됐다. 이렇듯 여러 의미를 갖고 있는 말이다 보니 옛 경전 번역가들은 삼아디를 정(定) 선정(禪定) 적정(寂定) 삼매(三昧) 삼마지(三摩地) 등 다양하게 번역했다. 따라서 정정(正定)의 '바른 정신통일'은 바꿔 말해 '바른 선정에 드는 것' 혹은 '바른 삼매에 드는 것' 등으로 이해 해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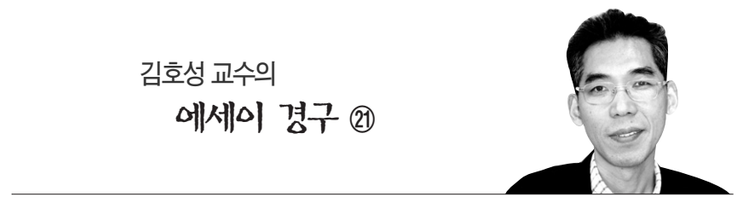
하지만 회사 업무에 집중할 때의 집중력과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에 몰두 할 때의 집중상태가 다르듯 선정(禪定)에 든 상태도 여러 종류와 단계가 있다. 불교는 이 부분을 '정학(定學)'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방대한 수행체계와 인간의 마음에 대해 다루고 있으나 이것을 모두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 하므로 정정에서 말하는 바른 선정의 정의에 대해서 요점만 설명하도록 하겠다.

초기 빨리 경전 및 한역 〈아함경(阿含經)〉, 그 밖에 대승경전에서도 정정을 말할 때 공통으로 언급되는 것은 사선정(四禪定)이다. 정신통일로 마음의 평정을 얻은 후 무념무상의 상태가 되는 것을 선정이라고 하는데, 사선정은 이러한 정신통일의 네 가지 단계를 가리킨다.

사선정의 첫 번째 단계를 초선(初禪)이라고 하는데, 선정에는 들었으나 아직 마음이 거칠고 미세한 작용이 남아있어, 보고 듣거나 추위와 더위 등의 인식이 일어나는 단계를 말한다. 이를 선정에 들어갔으나 '심(尋)과 사(伺)가 남아있는 상태'라고 한다. 두 번째 단계 제2선(第二禪)은 마음에 거칠고[尋] 미세한 작용[伺]이 사라지고, 신근(信根)이 뿌리내려 정신통일이 한 단계 상승한 상태가 된다. 여기서 기쁨[喜]과 즐거움[樂]이 생겨난다. 선정이 깊어지면 고뇌가 점차 사라져 기쁨을 느끼게 되는데 이 단계가 제2선이다. 제2선의 경지가 더욱 깊어져 세 번째 제3선(第三禪)의 단계에 이르면 '기쁨'의 감정이 둔감해지고 사라지게 된다. 고뇌가 사라져 생긴 기쁨을 제2선의 단계에서 느꼈다면, 제3선에서는 고뇌가 사라진 상태에 지속적으로 머무르는 경지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기쁨을 느낄 필요도 없게 된다. 이 단계에서 마음은 안락(安樂)을 얻고 정념정지(正念正知)에 이르게 된다.

마지막으로 제4선(第四禪)의 경지에 이르게 되면 안락조차도 멸해 마음은 미동치 않는 부동정(不動定)의 상태가 되고, 마치 동면에 들어가 동물처럼 심신의 활동이 미세하게 작용하게 된다. 즉 생각, 감정, 분별심 등의 마음작용이 멸한 멸진정(滅盡定)에 머무르는 것이다. 하지만 사선정은 정정의 네 단계를 설명한 것일 뿐 이 또한 열반의 경지는 아니라고 하니 일반 범부는 정신수행 단계의 깊이를 헤아릴 수조차 없는 듯하다.

日 용곡대 불교학석사 · 前 본지기자



김호성 교수의
에세이 경구 ㉑

인간을 비천하고 귀하게 만드는 것은 신분이 아니라 그 자신의 행위다

〈숫타니파타(經集)〉

부처님 당시에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부처님을 어떻게 불렀던 것일까? 그 호칭 속에는 부처님에 대한 그들의 평가가 담겨져 있었을 것이다. "업설자(業說者, karmavādin)!" 업을 설하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얼마나 업을, 다시 말해서 행위를, 강조하셨으면, "저 양반은 맨날 업만 말하는 사람이야"라는 소리를 들으셨을까?

하기는 부처님 이전부터 존재해 오던 인도종교인 바라문교의 입장에서 보면 이상도 하였을 것이다. 그들의 생각과는 너무나 다른 생각을 부처님께서는 하셨기 때문이다. 그들은 무엇보다 지혜를 중시했던 것이다. 우주자연의 본질, 즉 삼라만상의 본질을 브라만(梵, brahman)이라 하고 내 안에 있는 브라만을 아트만(我, ātman)이라 하였다. 그러면서 내가 곧 브라만임을 깨닫는 것을 해탈이라 하고, 지혜라 하였다. 바라문교에서는 이러한 해탈과 지혜가 인생의 목적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곧 브라만임을, 내가 곧 아트만임을" 배우고 알고 깨달을 수 있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깨달을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깨달음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한 카스트제도에 의해서, 인간은 고귀한 사람들과 비천한 사람으로 나뉜다는 것이다. 높은 신분의 사람들은 브라만을 알 수 있다는 의미에서, 그들 스스로를 브라만이라 불렀다. 하늘에도 브라만이 있고, 땅에도 브라만이 있었던 것이다. 부처님께서 당신의 가르침을 펴시는 환경이 이랬다. 그날도 부처님께서는 바라드바쟈라는 이름의 브라만을 만났다. 부처님께서 그의 집에 들어가려는 순간, 브라만 바라드바쟈는 외쳤다. "거기 서 있거라. 이 초라한 놈아, 더 이상 오지 말고 거기 서 있거라. 이 비천한 놈아, 거기 서 있거라."

그의 눈에는 걸식자의 모습을 한 부처님이 초라하게 보였을 것이다. 그에게 그런 부처님을 집 안에 들이는 것은 '부정(不淨)타는' 일이라 생각되었던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응대하셨던 것일까? "바라드바쟈여, 과연 누가 비천한 사람이며, 또 사람이 비천하게 되는 조건을 알고 있는가?"

이러한 역습에 주춤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이제 입장이 역전되었다. 브라만 바라드바쟈는, 누가 '비천한 사람'인지를 알려달라고 청하게 된다. 이에 부처님께서는 고구정녕(苦口丁寧) 친절한 말씀을 해주시고 있다. "자기를 치켜세우고 남을 헐뜯으며 / 자만심으로 목이 뻣뻣해진 사람, / 이런 사람을 일컬어 '비천한 사람'이라 한다."(석지현 옮김, 〈숫타니파타〉, 민족사, 40쪽)

이러한 일반적인 덕목들을 열거하신다. 그런 뒤에 널리 인구(人口)에 회자(膾炙)되는 명언을 토해 놓으신다. 앞의



그림 · 박구원

일반적 덕목들을 총괄적으로 맺음하는 차원에서이다. "출신 성분에 의해서 사람이 천하게 되는 것도 아니요 / 또는 브라만의 혈통에서 태어났다 해서 / 브라만이 되는 것도 아니다 / 인간은 모두 그 자신의 행위에 의해서 / 얼마든지 '천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 '귀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위의 책, 41쪽)

이 말씀은 인도의 고질적 신분제도인 카스트에 대한 불교의 입장을 내보인 것으로 종종 인용된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업설자'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시금 되새겨야 할 것 같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지혜나 도(道)를 보고서 칭찬이나 비난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 눈에 보이는 우리의 행위를 보고서 칭찬하거나 비난하리라는 것을. 정녕 지혜가 있고 도가 있다면, 그것이 행위로 드러나야 하지 않겠는가.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

해동 제일약사도량
동 해 약 령 사

해파스님의 원력과 약사여래의 가피로 불자님의 심신을 치유합니다. 도량의 맑은 기운과 자연에서의 섭생으로 **아토피, 건선, 고질적 피부병**은 물론 **지쳐있는 마음의 병**을 치유하십시오.


△약령사 법당

피부병(아토피, 건선 등)에 관한 6년여의 효과적 임상실험을 통한 질환 개선을 불자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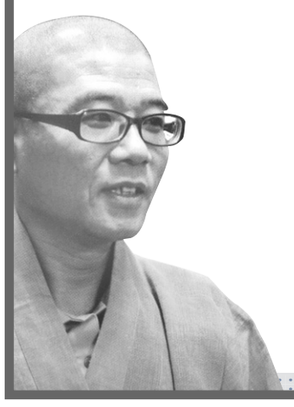
맑은 물 동트는 동해시 두타산 자락에 편안히 자리잡은 약령사에서 새벽 산사의 독경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산새소리와 파도소리...

번잡한 일상과 도시를 떠나 맑은 공기속에서 가고 머물고 앉고 눕고 말함과 말없음과 움직임과 고요함, 그 모두에서 나 자신을 찾아 삼매에 듭니다. 심신이 약하고 허해서 오는 마음의 병부터 온갖 세속의 고해에 찌들어 뼈속까지 상처가 들어간 난치병에 이르기 까지 약사여래의 무구한 가피력으로 스님의 지극한 기도와 정성 더없는 발원으로 중생의 아픔을 치유하는 청정도량입니다.

⊙ **천연연고비누 재료** : 서자초, 홍난석화, 초용피, 종려초, 용부향, 하로근 등 천연생약 30여종
(중화제,방부제,인공향유,인공색소 등은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 **천연연고비누 효과** : 아토피, 각종 습진, 피부병, 건선, 두피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체질 개선과 치료.
⊙ **사용방법** : 전신에 1~2회 마사지 하듯 골고로 발라준다. 타올로 꼼꼼히 문질러서 각종 노폐물과 각질을 충분히 제거한다. 목욕 후 일체 아무것도 바르지 않는다.
⊙ **보관방법** : 사용상 편의를 위해 비누처럼 굳혔기 때문에 수분에 약한 성질로 건조한 곳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습성분을 다량함유하고 있어 별도의 보습제품을 바르지 않아도 됩니다.



약령사 천연 초제 비누 ▷



불자님의 인연에 따라 약령사에서 직접 기도하면서 치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약 령 사 주 지 해 파 합장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립니다.
강원 동해시 대구동 174-2 / 전화 033)521-5453

희담석 건강용품 사은대잔치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희담석 염주세트
32,300원(염주, 염주 주머니)
· 사은품 : 희담석합장주 (낱개) 1만원
· 크기 : 직경 10mm
희담석 108염주 출시기념! 희담석 합장주 증정!

희담석 염주는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 목과 팔목이 늘 뻐근한 보살님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있는 청년불자 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등)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희담석(稀潭石,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적외선 파동검사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납니다.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원로회의 부의장 밀운 스님은 법어를 통해 대행 스님 평소 법문처럼 자성은 생사가 없음을 알렸다.



영결식장에는 3만명에 달하는 사부대중이 운집했다. 참석 대중은 저마다 스님이 남기고 가신 가르침을 되새기며, 큰 행원을 기렸다. **사진=박재완 기자 · 사진 제공=한마음선원**



총무원장 자승 스님, 종회의장 보선 스님, 포교원장 지원 스님, 전 포교원장 혜총 스님 등 종단 주요 내빈 스님들.



전 비구니회장 광우 스님, 명성 스님, 비구니회장 명우 스님 등 비구니 원로스님들의 추모 모습.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헌화하고 있다.

보현의 현신이시여, 그 행원 다시 펴소서!

"모두가 한마음이기에
손가락 하나를 들어도
일체가 다 함께
들린다"



정목 스님(BBS진행자) 사회로 영결식과 다비식이 진행됐다.



대행 스님 영전에 각계 인사들이 추모의 헌화를 하고 있다.



인로왕번을 선두로 대행 스님의 가르침을 기리며 추모하는 1천여 만장의 행렬이 끝없이 이어졌다. 이날 법구 이운은 안양 경찰서의 협조로 질서정연하게 봉행됐다.

★ 꿈이 이루어 집니다! ★
보현사신협과 함께하면
– 사찰대출 전문 불교은행 –



보현사신협 문의전화 (053)428-1133
전문상담 | 전무 서일영 010-3527-1037
차장 정종철 010-2543-1037

희담석 稀潭石 www.jawonet.com

건강하고 편안한 잠자리



전자파 걱정 없는 희담석 온열매트로
건강하고 편안한 잠자리를!!
희담석 에너지가 고객님의 건강을 증진시켜 드립니다.

희담석(稀潭石)의 가장 큰 특징은 탁월한 에너지 방사능력이며, 제오라이트(Zeolite) 또한 '생명의 돌'이라는 별칭이 있을 만큼 에너지 및 탈취 효과가 뛰어난 원석입니다. 희담 원석 중에서도 최고의 재료만을 엄선하여 만든 희담석 온열매트는 수면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를 충분히 보충해 드리며, 언제 어디서든 수맥파로부터 고객님을 보호할 것입니다.

희담석 온열매트
● 1인용 : 58만원 ● 2인용 : 85만원

제품 사양
• 내용물 : 희담석 볼 (희담석 60% + 제오라이트 40%)
• 열 선 : 실리콘 테프론 무자계 열선
(전자기장으로부터 안전한 열선으로 고가의 침대에서만 사용하는 열선)

정신 집중이 잘 되고 머리가 상쾌해지는
희담석 방석

사용방법
좌선용, 학생 및 사무용 의자, 소파, 차량 등에 사용하십시오. 희담석 방석은 오랫동안 앉아서 생활해야 하는 운전자, 학생, 사무원, 스님 등 수련하시는 분들께 매우 유익합니다.
(오래 앉아 있어도 땀이 차지 않습니다)



고급신형
● 50,000원 (색상 : 황토색)
(사이즈 450mm×450mm)

www.jawonet.com에서 카드 구입시 2~3개월 무이자 할부가 됩니다.

명상과 함께 하는 –
희담석 염주목걸이



건강과 활력을 주는
희담석의 무한한
에너지 방사능력을 체험해 보세요.

이런 분께 권합니다.
· 수행하시는 스님 및 불자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분
· 목의 뻐근함을 느끼시는 분 · 피로가 누적된 분
· 책상에 오래 앉아 있는 수험생 · 컴퓨터를 많이 하시는 샐러리맨

정 가 66,000원
↓
할인가 56,000원

합장주 35,000원 → 할인가 30,400원
염주목걸이+합장주 SET → 84,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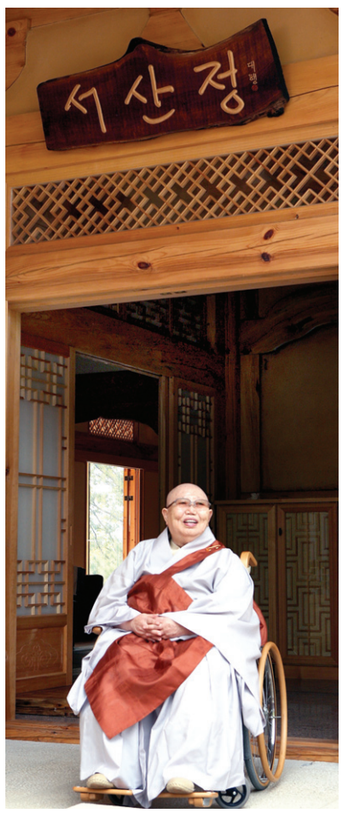
제품문의 011-9230-2335

자원넷 JAWONET CO.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718-4호 금구빌딩 B103호
TEL (02)3476-2335 FAX (02)3476-2505



"스님, 불들어 갑니다. 어서 나오세요" 연화대에 거화가 진행되자 대행 스님의 제자들이 참았던 눈물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내가 죽는다 산다는 생각 없이
그냥 놓고 간다면
그것이 벗어나는 길입니다"





대행 스님의 법구가 연화대 안으로 옮겨지고 있다.



운구가 스님의 주석처인 서산정에 도착했다. 다비식은 서산정 앞마당에서 진행됐다.

말년의 주석처 서산정에서의 대행 스님.



대행 스님의 제자들이 스승님께 마지막 인사를 올리는 듯한 숙연한 모습이다.

대행 스님 영결식 이모저모

- 대행 스님 영결식에는 3만 여 불자가 운집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음에도 질서정연히 영결식은 봉행됐다.



- 대행 스님 원적을 추모하기위해 부산 · 대구 지원 신도들은 관광버스 50대를 대절해서 올라왔다. 영결식 현장에 자리가 부족하자 추모객들은 영결식장 옆 산자락에 올라 스님의 영결식을 지켜봤다.

- 영결식 중 구름이 걷히고 강한 햇살이 내리쬐자, 한마음선원은 영결식 중간에 준비한 밀짚모자를 스님들에게 제공했다. 사회자 정목 스님은 "뜨거운 햇살을 피하는 것 또한 대중을 먼저 생각하는 대행 스님의 뜻일 것"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 영결식 법요는 조계종 어산어장 원명 동주 스님이 집전했다. 추모영상과 법어가 진행되는 동안 참석 불자들은 스님을 떠올리며 눈시울을 적셨다.



- 한마음선원 혼성합창단이 독일 지원 신도들의 반주로 조가를 불렀다. 독일 지원의 한스욕 에플레, 랄프 슬라우브시, 사빈 스터징어 씨 등 미국과 독일 지원 신도들은 대행 스님의 원적 소식을 듣고 바로 내한해 영결식에 참석했다.

- 달라이라마를 대신해 티베트하우스코리아 남카 스님, 태고종 열린선원장 법현 스님 등 국적과 종파를 초월한 추모행렬이 이어졌다.

- 대행 스님의 법구 이운은 비구니 제자 스님들을 시작으로 비구 스님, 법형제회 거사들이 번갈아 가며 운구를 담당했다.

- 대행 스님 법구가 지나갈 때까지 절을 올리는 신도 등 스님의 마지막 가시는 길을 애도하는 신도들의 줄이 이어졌다. 신도들은 다비식이 끝난 뒤에도 스님의 보임처인 서산정 주변을 경행하며 스님이 남기신 뜻을 기렸다.



- 안양시 석수동 주민들과 인근상가들은 현수막을 걸고 대행 스님의 원적을 추모했다. 한마음선원 측은 점심시간에 진행된 다비식을 고려해 떡과 과일과 물등을 제공하여 점심공양을 대신했다.

- 시민들의 안전과 교통질서를 위해 만안 · 안양경찰서와 녹색어머니회, 운불련 등에서 60여 명이 지원 나왔다. 법구 이운이 진행되는 동안 차량통제에도 안양시민들은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지 않았다.

-KBS, MBC, SBS, BTN, BBS 등 주요 언론매체는 스님의 영결식을 신속하게 보도했다. 생방송 중계를 맡은 BTN은 헬리캠 등을 동원해 영결식 현장을 방송을 통해 전했다.

-한마음선원은 스님의 법어집과 본지가 특별제작한 추모특집을 무료배포했다. 추모특집을 본 불자들은 스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실천하는 삶'을 다짐했다. **노덕현 · 이나은 기자**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열침의효능 헬스밸트

금강약돌 온열복대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볼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 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 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쑥뜸(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됩니다. 차거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 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식약청의료용구 개인용온열뜸기 : A83060호
식약청 의료용 전자기 발생기 : A85020호
전기용품 안정인증 : HH07236-5004A호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LIG화재 배상보험 가입
특허청 실용신안 출원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170-12-056037 정애영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대리점 및 딜러모집 (조합자극건강매트, 오십견조끼, 요추베개등 자매품다양)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신분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1/5 이하로 절약되는
슈퍼에너텍 순간전기보일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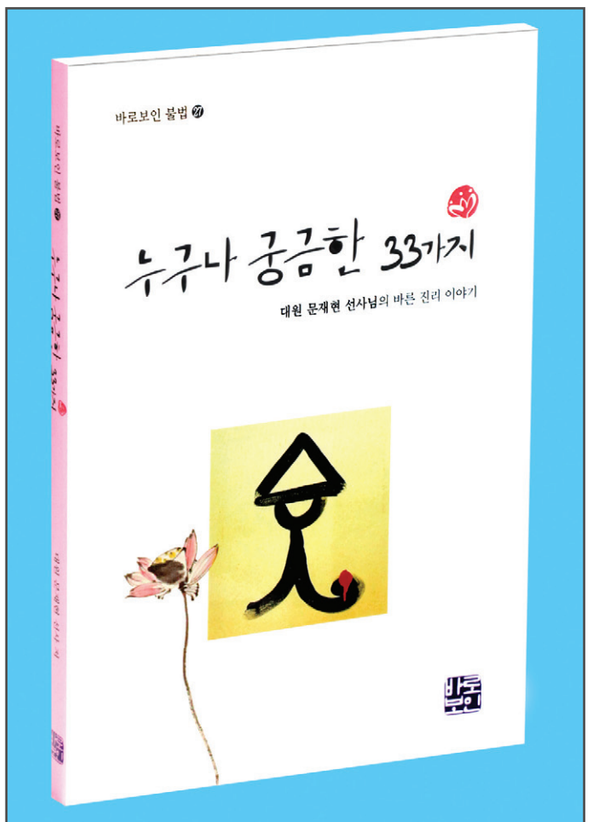


국내개발 1호!
기름값 대비
80% 이상 절감
에너지 전문 컨설턴트 무료상담

국내특허 제0751485호
세계특허출원 PCT/KR2007/006534

사찰.포교당.불교시설 상담 대환영 !!
전기보일러 15년 경력 전문가 직접 상담시공.
사찰 전기공사 사찰 리모델링 상담대환영
내 일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불자 혜봉 -

상담전화 021471-2356. 011-335-6389
www.superenertec.co.kr



신간! 누구나 궁금한 33가지
대원 문재현 선사님의 바른 진리 이야기
* 우리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갑니까?
* 우리가 죽으면 살아있을 때의 모든 인연과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풀기 어려운 인연은 어떻게 풀어가야 합니까?
* 종교만 믿으면 천국에 갑니까?
* 어떻게 하면 마음의 평화를 얻겠습니까?
* 지구종말론은 사실입니까?
* 이 험난한 시대를 지혜롭게 사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각권 10,000원
☎ 031-534-3373

한달 1천원으로 부처님 가르침 전하세요



"대행 스님 등 선지식 법문 큰 도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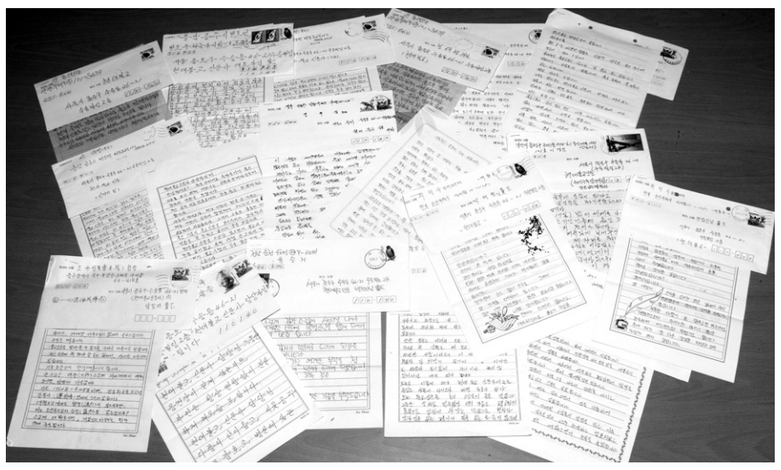
9년째 매달 5만원씩 법보시한 김강산 씨

김강산(42 · 사진) 씨는 2003년부터 9년째 매달 5만원씩 법보시를 해오고 있다. 대행 스님의 '길을 묻는이에게' 코너가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하다는 생각에서다.

김 씨는 "'길을 묻는이에게'와 큰스님들의 법문을 담은 '선지식을 찾아서'가 많은 도움이 됐다. 형편이 어렵든 어렵지 않은 사람이든 모두 고민이 있는데 대행 스님의 법문은 각자의 처지에 맞는 삶의 해답을 제시해 준다"며 "특히 재소자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 법보시를 꾸준히 해왔다"고 말했다.

안양 한마음선원을 10년 째 다니며 마음공부를 하려고 노력한다는 김강산 씨는 "여러분도 항상 법문을 가까이 하면서 지인들에게 법문을 권할 수 있는 생활을 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법보시를 통해 현대불교신문을 받아본 재소자들이 본사로 보내온 감사 편지들. 이들에게는 현대불교신문이 삶의 희망이 되어주고 있다.

교도소 · 군법당 · 병원 등 1246곳 전달

"현대불교 통해 불교수행의 길 찾은 것이 큰 행복"

"'모든 문제는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보성 스님의 글을 읽으면서 가슴 아픈 눈물도 많이 흘렸습니다. 비록 늦게 알아차린 잘못이지만 이제는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아야겠다고 다짐 했습니다. 하지만 인원에 비해 현대불교신문 수량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현대불교 신문을 편하게 매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박○○씨 (대구교도소)

"제가 이번에 심사에 합격해서 퇴소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훌륭한 기사와 좋은 내용의 현대불교신문을 보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전하고 싶어서 글을 보냅니다. 현대불교신문을 2년간 읽으면서 불교의 지식이 한층 깊어졌고 특히 대행 스님의 '길을 묻는이에게'를 읽으면서 불교수행의 길을 찾은 것이 제겐 큰 행복이었습니다. 2년동안 신문을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꼭 나가서 새사람이 되어 불자로서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전○○씨 (충남 공주치료감호소)

"신문에 게재된 스님들의 말씀을 읽고 제가 살아온 것이 너무 허망하고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싶습니다. 어려운 부탁이지만 저에게 희망을 안겨준 현대불교신문을 꼭 보내주세요." 임○○ 씨 (여주교도소)

"현대불교신문사 담당자님, 신문 1부만 부쳐주세요. 병실동료 불자와 3명이 함께 잘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셋이서 돌려읽기에는 좀 부족합니다. 다른 동료들도 같이 볼 수 있게 꼭 1부 더 부탁드립니다." 조○○씨 (충남 공주치료감호소)

"불교로 개종해 불교에 대한 궁금증을 풀고자 합니다. 출소할 때까지 만이라도 현대불교신문을 보고 싶어 어렵게 편지를 보냅니다. 신문을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안○○씨 (안양교도소)

1구좌 1천원으로 자비와 지혜의 법등 밝히세요

'현대불교'는 소외된 이웃과 우리 사회를 지켜가는 분들에게 부처님의 정법을 전하고자 군부대, 교도소, 양로원, 고아원, 병원 및 사회복지단체 등을 대상으로 '현대불교 보내기 운동'을 전개해 불국토를 가꾸어 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637명의 법보시 후원자가 동참해 매주 1246부의 신문이 군장병 · 교도소 수형자 · 경찰 병원 등으로 발송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210여 만 여부의 신문이 포교사 기능을 훌륭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보시는 일시적이지만 법보시는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에게 무한한 공덕의 씨앗이 됩니다. 〈금강경〉에서 이르기를 "사구게 하나라도 남에게 일러주는 공덕이 삼천 대천 세계를 가득 채울 만큼의 칠보로써 보시한 공덕보다 더 크다"고 하셨습니다.

- **법보시 동참방법**
  매월 1000원 이상 자동이체 또는 수시 온라인 입금(문의시 상세히 안내)
- **참여방법**: 자동이체는 관리부로 전화신청하시고, 온라인 입금은 아래의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입금 후 전화주세요.)
- **법보시 동참 계좌번호**(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국민은행 038-25-0008-365
- **법보시 동참 문의 및 안내**: 현대불교신문사 관리부
  전화: (02)2004-8200(대표) (02)2004-8212(직통) / 팩스: (02)737-0697

■ 법보시 발송처

구분	발송처	발송부수	구분	발송처	발송부수
경찰	경찰서	168	복지단체	복지관련대학	30
	감별소	3		복지단체	46
	교도소	296		복지협의회	4
교화기관	교정청	3		부랑인복지	3
	구치소, 감호소	77		아동복지	23
	소년원	30		의료기관	71
군부대	군법당	399		장애인복지	10
	군병원	10		지역복지	20
병원	법당	13		청소년복지	10
복지단체	기업복지재단	6	합계	20건	1246
	노인복지	24			

현대불교 법보시 동참에 감사드립니다

강덕순 강명옥 강명자 강미지자 강민정 강수옥 강순희 강영내 강은심 강춘계 강황진 경연혜 고경옥 고은영 고준영 고필선 공병길 공평근 곽명순 곽순정 곽은아 곽춘자 권경숙 권두상 권미경 권익중 권정화(2) 권효심 김강산 김강웅 김경숙 김경희 김광환 김교도 김규순 김규연 김근숙(김무진행) 김기석 김기성 김기홍 김나령 김나영 김남규 김남오 김다정 김덕순 김명란 김명숙 김명옥 김무재 김문윤 김미래 김미리 김미원 김민지 김방옥 김병희 김봉란 김비연 김상분 김선아 김선엽 김선옥 김선자 김성수 김성희(2) 김수옥 김숙자 김숙희 김순남 김순복 김순분 김순희 김승재 김승훈 김승훈 김신숙 김연수 김영선 김영성 김영식 김영애 김영예 김영옥 김영임 김영자 김영팔 김옥선 김옥수 김용만 김용순 김용호 김윤경 김윤관 김윤성 김윤자 김의식 김인순 김인태 김장원 김재방 김재철 김재희 김정규 김정단 김정덕 김정렬 김정석 김정아 김정애 김정헌 김정혁 김정환 김정희 김종미 김종영 김주일 김준 김중철 김지숙 김지영 김진금 김진영 김채란 김철수 김철종 김춘희 김태수 김태영 김태윤 김학수 김학표 김향숙 김현국 김현신 김현진 김현화 김화일 김효상 김효찬 김희주 김희진 나귀례 나민자 남선자 남정현 남주희 노덕현 노성일 노성희 노승현 노실호 노영애 논술문화 단영숙 대일스님 대지행 대한불교조계종교육원 도순련 도이환 류지연 류진훈 류해창 무원스님 문경숙 문수홍 문숙희 문영희 문임숙 문점숙 문정희 민경애 민미자 민정원 박건웅 박경국 박경수 박경순 박경환 박경희 박공임 박귀자 박기숙 박기임 박남순 박말이야 박맹순 박명란 박무주행 박미자 박봉균 박봉순 박봉영 박상섭 박상현 박성준 박수경 박숙자 박숙희 박순애 박순자 박순희 박승목 박연신 박영숙(2) 박영준 박영춘 박옥경 박옥남 박원희 박은미 박은주 박인서 박장미 박재석 박재완 박정노 박정부 박정숙 박정자 박정희 박종임 박종희 박주호 박준용 박지연 박진우 박 찬 박철홍 박춘미 박춘봉 박태수 박한기 박향옥 박현동 박현주(2) 박형숙 박형채 박혜경 박혜리 박혜선 박화재 방명극 방명섭 방순자 방장수 방재순 배광자 배민화 배영숙 배정임 백경훈 백규현 백영규 백인창 백지은 백훈규 법공스님 변영희 변융태 상현스님 서미옥 서영호 서예숙 서의숙 서정우 서청자 서춘건 서호준 석영수 석우스님 선덕스님 설정수 성민자 성불사주지스님 성진스님 소충호 손문영 손문철 손종헌 송동호 송연희 송용관 송은경 송정구 송종화 수선화 보살 신경희 신남선 신덕근 신상균 신선자 신수영 신수호 신영찬 신용례 신용순 신정우 신조현 신주호 신중일 신창순 신희순 심경우 심광화 심길현 심영애 심영자 심원식 심현보 안병태 안양본원보시함 안정은 안중희 안형준 양세욱 양순조 양연희 양영모 양영순 양현주 양흥용 엄경미 엄재욱 엄태영 염종희 오강록 오경환 오광자 오병건 오병진 오상숙 오승훈 오신재 오용근 오용득 오원중 오윤서 오재영 오정애 오지은 옥영식 용석천 우림사 우병선 우지예 우진궁 우춘자 원명스님 위영란 위주환 유경자 유금열 유상재 유영미 유재기 유지연 유지호 유태선 육성희 윤기홍 윤병덕 윤본숙 윤석범 윤순화 윤여경 윤오인 윤정연 윤정일 윤채남 윤춘매 윤현숙 윤희원 이강만 이강민 이강희 이건우 이경남 이경애 이경자 이광수 이광훈 이군자 이규달 이근기 이근혜 이기덕 이기승 이기탁 이기현 이기환 이나은 이낙영 이대섭 이대성 이동건 이동격 이동준 이동진 이명수 이명숙 이명순(2) 이명희 이미화 이민서 이보편 이복성 이복희 이산궁 이상숙 이상은 이상태 이성수 이수옥 이순희 이승남 이여주 이연보 이연애 이영득 이영숙(2) 이영애 이영자 이옥순 이왕구 이왕진 이용법 이우순 이우윤 이우진 이운화 이원상 이원호 이원희 이윤경 이은자 이은정 이은희 이익수 이정남 이정석 이정순 이정식 이정안 이정옥 이정일 이정자 이정조 이종락 이종섭 이종옥 이종의 이종협 이종희 이준구 이준범 이중기 이지현 이진선 이창환 이철헌 이춘근 이춘자 이충선 이해 이해송 이향림 이향순 이현숙 이형신 이화자 이훈노 이희숙 이희영 이희정 일진성 임경희 임미순 임성환 임연미 임연희 임옥빈 임용식 임재철 임재환 임점순 임종구 임춘희 임형준 임희석 장미숙 장미순 장미자 장성윤 장성호 장영철 장재원 장현만 장혜선 장희숙 전계영 전명국 전미영 전병수 전소윤 전재호 정갑임 정경남 정구순 정규열 정금란 정길동 정동하 정명자 정미자 정영수 정영숙 정운경 정은영 정인순 정인자 정재평 정정애 정창남 정하석 정학진 정해순 정혜숙 조계종교육원 조공옥 조대영 조민규 조성준 조재규 조정해 조정희 조진한 조창희 조행숙 조현정 주미숙 주정숙 주현순 지경애 지민정 지장사 진동석 진말련 진수명 진일스님 채은훈 천병길 천상봉 천수해보살 천영기 천지현심 청무스님 청일스님 최갑식 최미희 최복림 최복순 최분태 최순옥 최순이 최영숙(2) 최원주 최윤희 최재순 최재원 최정기 최정희 최종열 최종원 최주범 최주선 최창숙 최태영 최태준 최현창 최희숙 최희승 탁순례 표경희 하미경 하미희 하재한 하정희 하태선 학림사 화정스님 한경규 한광호 한기영 한기준 한동원 한마음선원공주지원 한마음선원광주지원 한마음선원목포지원 한마음선원안양본원 한마음선원울산지원 한마음선원진주지원 한마음선원통영지원 한마음선원포항지원 한세진 한승균 한승화 한영순 한윤진 한은섭 한인식 한재희 한창훈 한효정 허명범 허미옥 허복영 허수자 허추자 허태환 혜월스님 홍순 홍순혁 홍승덕 홍애순 홍월자 화정스님 황경숙 황금영 황논철 황성미 황순희 황용숙 황인형 황태숙 황향숙 황희자

친환경 삼베타올선물 SET



NEW 소중한 분께 마음을 전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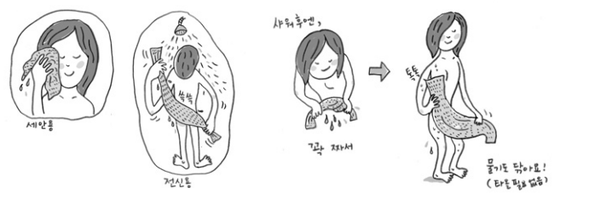
삼베타올은 강원도에서 재배한 마의 속줄기를 삼베틀로 만들어 선조들의 지혜와 멋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곰팡이를 억제하는 항균성과 항독성이 있는 순수 천연 삼베(햄프)사와 죽사(대나무에 추출한 원사)를 합사하여 제조된 순식물성 제품입니다. 수분을 빨리 흡수, 배출하고 자외선을 차단해주어 피부 자극이 없으며 피부의 노폐물 제거와 혈액순환 촉진으로 곱고 탄력 있는 피부로 바꾸어 드리는 환경친화적 제품입니다.

샤워타올, 세안타올, 수세미 - 3종 세트

27,000원 (2세트 이상 주문시 배송비 무료)



햄프오일비누
1개 10,000원



■ 건포, 습포 마사지 특징

10분 정도 마른 수건 또는 젖은 수건으로 손발 끝에서부터 심장 쪽으로, 배꼽을 중심으로 둥글게 피부를 마사지 합니다. 외출 후 샤워 전 워밍업으로 건포마사지를 해주면 몸의 신진대사가 왕성해지고 혈액순환이 활발해져 체내에 독소가 쌓이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피부 보호 및 면역력 향상에도 좋고, 감기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삼베샤워타올 (건포마사지)
- 혈액순환 및 피부 신진대사를 좋게 합니다.
- 피부의 더러움과 묵은 각질을 제거해 줍니다.
- 지치고 활력 없는 피부에 탄력과 윤기를 부여 합니다.
- 피지분비가 줄어드는 피부에 피지선의 기능을 활발히 해줍니다.
- 환자목욕용으로 사용해도 좋습니다.

값 15,000원





■ 삼베세안타올
- 삼베세안타올을 물에 적신 후 얼굴전체를 마사지 하듯 닦아줍니다.
- 특히 코 주변을 닦아주면 피지가 제거됩니다.
- 삼베세안타올을 물에 헹군 후 닦아줍니다.

값 6,000원





■ 삼베수세미
- 세제없이 식기세척이 가능합니다.
- 항균, 항독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 과일세척에도 세제없이 세척이 가능합니다.

값 4,000원



현대불교 현불샵 |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수송빌딩 2층
T. 02)2004-8216 / F. 02)737-0696 www.hyunbulshop.com
[농협 053-01-269062 | 국민은행 343601-04-046766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법회, 환갑, 돌잔치, 칠순 명절 등 각종 행사용 선물로 아주 좋습니다!

“대중가요 버금가는 찬불가 만들고파”

불교 · 환경 노래 불러온 가수 라마…첫 찬불가 앨범 발표

부처님 말씀 가사에 담은
연꽃의 왈츠 등 신곡 발매
찬불동요 보급에도 힘쓸 터



가수 라마가 첫 찬불가 앨범을 발표한다. 7월 싱글앨범 발매를 앞두고 자신의 구로동 연습실에서 연습중인 라마.

난 살아갈게 더럽혀지지 않는 연꽃처럼/ 난 바라볼게 내 마음속의 거울 흔들리지 않게 난 기억할게 나를 바라보던 너의 미소/난 노래할게 바람의 마음 전하는 풍경처럼

에코어커스틱 밴드 요술당나귀 리더 라마(32)의 노래 ‘풍경’의 한 소절이다. 긴 머리에 나뭇잎으로 장식한 맑은 눈의 청년은 무대 위에서 서정적이면서도 단단한 목소리로 환경을 노래하고 불법을 말한다. 법구경-술천품의 ‘그릇되고 거짓된 마음으로 백년을 사는 것보다 단 하루를 살더라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낫다’는 귀절에 감명 받아 만든 노래다. 애절하고도 서정적인 노래에는 부처님 말씀을 좀 더 쉽게 대중에게 알려보고자 하는 간절함이 담겨 있다.

“‘가시나무새’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은 모두 CCM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이 기독교 음악이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찬불가도 대중적으로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되 그것이 종교를 떠나 모두에게 사랑 받을 수 있는 그런 노래 말이죠”

서울 구로동에서 만난 라마는 올 7월 첫 찬불가 싱글 앨범 발매를 앞두고 노래 연습에 몰두하고 있었다. ‘연꽃의 왈츠’ ‘말(정구업진언)’ ‘풍경’ 등의 노래가 담긴 앨범은 불교 철학을 바탕으로 했다. 라마가 찬불가에 관심갖기 시작한 것은 2년전 낙산사 공연을 가서다.

“해수관음상 불전함에 새겨진 비익조의 전설을 알게 됐어요. 암수의 눈과 날개가 각각 하나씩이어서 짝을 짓지 않으면 날지 못한다는 전설을 듣고 만든 노래가 ‘비익조’에요. 그때부터 스토리텔링을 위해 〈법구경〉 등의 불서를 읽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불교에 관심을 가졌죠”

이후 그는 BTN 음악 프로그램 등에 출연하며 1년 반만에 찬불가 15곡을 만들어 낸다. “작업하면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많이 얻었습니다. 그 마음으로 정신없이 돌아가는 세상에서 혼탁해지지 않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었죠. 15곡 모두가 이번 앨범에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3곡 정도 씩 나눠 발표할 거예요. 아직 제목을 못 붙인 노래들도 있어요. 나머지 곡들은 더 다듬어 순차적으로 발표할 겁니다”

본격적으로 음악을 시작한지 3년 밖에 안됐지만 그의 활동은 활발하다. 2010년 통영국제음악제에서 그랑프리를 수상한 것은 물론, 지구를 살리는 예술-그린아티스트(green artist) 활동을 해온 라마는 강정마을 등 환경문제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 달려간다. 또한 울산 MBC에서 공정 여행 프로그램 ‘달팽이’ MC, BTN ‘소찬휘의 라이브콘서트 풍경’ 오프닝 공연을 연주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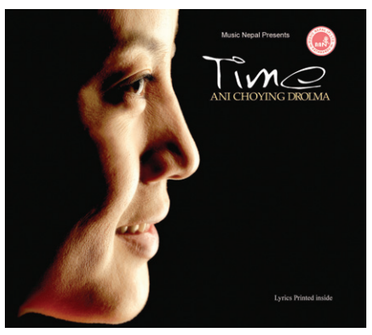
그는 요즘 108배를 시작했다.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기도를 하며 자신의 몸과 마음을 비우고 있는 라마는 앞으로 법당에서 녹음 작업을 해보고 싶단다. “대부분의 사찰이 목조 건물이잖아요. 그 속에서 찬불가를 부르면 울림과 느낌 자체가 음악에 그대로 반영될 수 있을 거라 생각 돼요. 물론 저희 밴드 요술당나귀가 지향하는 환경과 식량문제 등 사회적 이슈를 담은 노래도 꾸준히 부를 겁니다”

특히 그는 환경을 주제로 한 찬불동요에 관심이 많다. “아이들이 자연에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바르고 착하게 살아갔으면 하는 마음을 찬불동요에 담아 보고 싶습니다”라는 말을 덧붙였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시간의 강’ 건너는 천상의 목소리

아니초잉돌마 자선앨범 발매



영혼을 울리는 천상의 목소리 네팔 최고 국민가수 아니 초잉 돌마의 베스트 셀러 자선앨범 ‘타임(시간의 강)’이 발매됐다. 이번 앨범에는 네팔의 대중가요인 아두닉 팝(Nepali Aadhunik pop) 스타일의 음악 등 총 11곡이 수록되어 있다.

시적인 노랫말들이 평온하면서도 잔잔한 어쿠스틱 악기와 절묘하게 어우러져 환상적 조화를 이룬다. 여기에 영혼을 울리는 듯한 읊조리는 아니 초잉의 목소리는 들으면 들을수록 가슴 속 깊이 사무쳐 흐른다. 그녀의 음악에는 영혼을 정화시키는 듯 형언할 수 없는 무한한 감동과 종교를 초월한 진정한 마음의 평화가 깃들어 있다.

이번 앨범은 아니 초잉이 설립한 ‘네팔 비구니 복지재단(NWF)’ 운영기금 마련을 위해 발표됐으며 네팔 최고의 시인인 ‘두르가 랄’과 ‘느요 바즈라차르야’가 작사 작곡가로 참여했다. 앨범의 첫 번째 트랙은 산스크리트어로 된 가네시(Ganesh 혹은 가네샤 Ganesha) 만트라다. 가네시 신을 찬양하는 바잔(Bhajan)으로 이른 아침에 주로 암송한다. 이 만트라를 암송하면 마음의 평화와 행복을 얻게 되고 모든 근심이 사라진다고 한다.

정혜숙 기자

심우도로 종교적 이상 표현

갤러리디엠 특별기획 김성헌展



희망과 자유 가족 등을 주제로 작업을 해 온 김성헌 작가의 개인전이 6월 22일까지 갤러리디엠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에서는 점토로 구운 설치품과 평면회화작품 등 다양한 장르의 신작 30여점이 선보인다.

페인팅 작품과 도자기 설치품들은 명상과 종교적 이상향을 표현하고자 하는 작가의 세계관을 보여준다. 특히 불교의 선종(禪宗)에서 인간의 본성을 찾는 과정을 심우도’로 보여줘 관객들의 눈길을 끈다. 또한 점토 작업은 생략과 변형, 단순미를 그만의 새로운 조형언어로 표현하고 있다. 점토는 작가의 표현욕구인 회화적 욕구와 조각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재료로 사용되고 있다. (010)2472-1283

행원문화상 6월 30일 마감

행원문화재단이 주최하는 ‘제21회 행원문화상 공모’가 6월30일까지 후보자를 추천받는다.

▷역경상은 불교와 불교학 발전에 기여한 학술 연구 저서를 출간한 학자 ▷예술상은 불교사상을 토대로 한 예술 분야에 업적을 이루었거나 혹은 방송 연예활동을 통해 불교사상을 선양 홍보하고 대중교화에 이바지 한 예술인이다.

접수는 우편 혹은 방문 접수 가능하다. 접수처는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03-67 강남종합상가 10동 401호 재단사무국(우 137-877)이다. 심사를 거쳐 8월 중순경 수상자를 발표하며 시상식은 9월 24일이다. (02)586-6521

지철 스님의 **도상(圖像)을 통해 본 상징과 은유**

“종교의 미래 교육에 달렸다”

도제교육 받는 스리랑카 동자승들



고대도시 ‘캔디’서 만난 스리랑카의 동자승들

UN의 교육비 재정 도움에도
정규 교육 못받는 안타까운 현실
전통사원서 교리 · 수행 등 배워

스리랑카에 처음 가서 가장 감명 깊었던 것은 수많은 동자승들이 있다는 사실이었다. 스리랑카의 고대 도시이자 불치사(佛齒寺, 부처님의 불치사리를 봉안한 스리랑카 최고의 사찰)가 위치한 산악도시 ‘캔디’의 어느 동물원에서 만난 수백명의 동자승들은 진정 부러움의 대상이었다.

나라의 미래가 그 아이들에 있듯이 종교의 미래도 가장 젊은 성직자들에게 있다. 도제교육(徒弟教育)은 불교가 그 혜맥(慧脈)을 잇고, 교세를 넓힐 수 있는 유일무이한 방식인 것이다. 미국의 어느 기독교 종파 중에 특이한 종파를 본 적이 있는데, 그 종단의 특징은 결혼도 하지 않고, 아이도 낳지 않는 교리를 가지고 있었다. 결국은 그 종단의 마지막 남은 신도인 어린 소년의 모습이 찍힌 사진을 보았는데, 그 소년도 결국은 어린 나이에 죽어 종단은 종말을 고하고 말았다고 한다.

결국은 인재불사(人才佛事)가 인간만사(人間萬事)의 종결적인 방안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웠던 일은 스리랑카 사찰들의 운영상황이었다. 스리랑카의 사찰들에는 신도들이 돈을 직접 시주하는 경우는 드물고, 대개가 생필품을 직접 시주하는 형태로 되어있다.

신도들이 시주한 물품들을 모아 팔아서 사찰의 운영경비를 조달하는 방식으로 사찰경영을 지탱하고 있다. 사찰에 있는 많은 동자승들의 도제교육비가 문제가 될 수 밖에 없는 단계에까지 이르렀다.

그런 상황을 안타까워한 UN의 어느 기관에서 몇 백만 달러 보조예산을 배정해서 나눠줬다고 하나 역시 그 예산도 사찰운영에 사용되었다고 한다. 결국 많은 스리랑카의 동자승들은 정식교육을 받지 못한 채, 전통적인 사원교육제도인 ‘피레베나’에서 교리 · 수행 · 일반교양 · 불경 등을 배우고 있다.

8세기 중반 아누라다푸라 시대 당시에는 스리랑카는 대승불교의 세계적인 근거지였다고 한다. 중국에서조차 스님들이 찾아와서 많은 경전을 가지고 갔다는 기록도 남아있다. 정릉 보국사에 처음 갔을 때 영정사진의 자운(慈雲)노스님이 남방가사를 가지런히 수(收)하신 채 그윽하게 웃고 계신 것을 보았다.

스님께서는 단일계단이 설립되기 이전인 1980년까지 해인사와 통도사 금강계단의 전계사로 비구 876명, 비구니 953명, 사미 207명, 사미니 212 등 2248명에게 계를 설하고, 1982년부터 8년간 1076명의 수계자를 배출하는데, 수계제자가 10만여명에 이른다고 한다.

그렇다면 왜 자운(慈雲) 노스님께서는 남방가사를 입고 계신 것일까? 끊어진 계맥을 스리랑카와 태국 같은 남방 불교국가에서 이어오셨기 때문이다. 스리랑카와 미얀마, 태국 등은 자국의 불교가 쇠퇴하여 법통이 끊어지면, 이웃나라의 장로들을 초청하여 법통을 잇는 관습이 있다.

11세기에 미얀마, 13세기에 태국, 14세기에는 캄보디아로 불교를 전파한 스리랑카는 네덜란드 지배 당시(1655에서 1799)에 승단의 법통이 끊어졌을 때, 미얀마에서 비구를 초빙해 법통을 잇고 17세기 후반에는 태국에서 다시 전법을 받는다.

스리랑카의 도제교육(徒弟教育)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다. 우리 대한불교조계종의 문제인 것이다. 청정(淸淨)을 지닌 스리랑카 동자승들의 얼굴에 지성(智性)의 혜안(慧眼)이 빛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동화사 성보박물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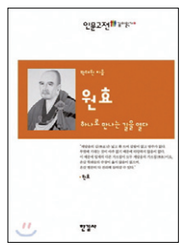
승단을 지켜내지 못한 죄를 참회합니다.
마이크 목걸이
A 타입 분리형
B 타입 고정형
실용신안의 장 특허출원
A타입 ₩65,000
B타입 ₩55,000
A+B (1set) ₩100,000
택배비무료
주문전화
구 미 미륵사 (지연) 010-8631-3527
팔공산 정원사 (성봉) 016-849-8889
거제도 정토암 (진각) 010-6657-5522
☆ 마이크 굵기 직경 38㎜ 이상은 장착이 불가합니다.
입금계좌(예금주 : 미륵사)
농협 351-0251-7333-73
우체국 700914-02-063333

‘적하수오’
묘목 분양
우리 몸 최고의 보약인 적하수오 묘목을 분양 합니다.
스님들께서는 사찰을 운영하시면서 적하수오 재배시 최고의 소득작물로 수익을 거두실 수 있으며, 또한 불자님들께서도 재배하실 수 있는 부지만 있다면 가능합니다.
하수오 된장, 간장 등 하수오를 사용하여 만드는 법도 전수는 물론, 농약 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 재배를 할 수 있는 노하우(방법)도 전수해 드립니다.
적하수오
묘목 재배시 판매가 불안하신 분에 한하여 계약재배 가능합니다.
3.3㎡(1평) 10만원 확정 매입 해 드립니다.
■ 문 의 : 010-8442-4444 (상담)
■ 묘목 재배 농장 : 경북 청도군 풍각면 흑석1리 368

다라니 수지자는
광명의 깃발
신통의 창고!
다라니 수행
진언행자 필독서!
다라니 수행
신묘장구대다라니경 강설
일산법상 지음
신국판 | 컬러 | 344쪽
2012년 1월 25일 발행
15,000원
■ 전국 서점과 인터넷에서 판매
불자들이 가장 애송하는 신묘장구대다라니!
그 첫 수행지침서이자 ‘긍정의 힘’ 사용설명서
수행중에 ‘아공(我空)’을 체험한 덕양선원(cafe.daum.net/zeol) 선원장 일산(一山) 법상스님은 “신묘장구대다라니 수행으로 창조력, 삼매력, 자비심, 용맹심이 확연히 드러나기 때문에 본성의 무한한 잠재능력을 일깨울 수 있다”고 강조한다.
비움과소통: 02-2632-8739, buddhapia5@daum.net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슬라브, 창고, 공장, 일반 가정집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9190-3350
전라도 : 011-248-6298
현 대 칼 라 지 붕 공 사

10가지 화두 푼 원효 스님의 불교 철학



원효
박태원 지음
한길사 펴냄
1만7천원

원효 스님은 동아시아 권역을 통틀어 가장 방대한 양의 저술을 남겼다. 흔히 100부 240권의 저서를 남긴 것으로 알려져 있고, 최소 80여 부, 200여 권을 저술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그러나 원효의 저술 가운데 현존하는 것은 20종에 지나지 않고 그나마 온존하는 것은 13종뿐이다. 원효의 방대한 저술은 그의 사상의 넓이와 깊이를 방증한다.

원효…100부 240권 저서 남겨
현존하는 책은 20종에 그쳐

특히 〈대승기신론소〉 〈대승기신론별기〉 〈금강삼매경론〉 〈열반경종요〉 〈보살계본지범요기〉 등은 원효 사상의 핵심으로 돋보인다. 이런 저술은 양과 질에서 당대 동아시아 권역에서 단연 최고였다.

또한 원효는 경/율/논 삼장과 대승, 소승 경전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특정 분야나 이론에 치우치지 않고 널리 탐구하면서 다양하고 다층적인 불교 이론들을 '한 맛'으로 꿰어낸 원효의 저술은 방대하며 통섭적이다.

시대를 이끈 사상가의 핵심사상과 저작을 10가지 주제로 살펴보는 '인문고전 깊이읽기' 시리즈 가운데 열 번째로 출간된 〈원효-하나로 만나는 길을 열다〉는 시리즈 최초로 한국의 인물과 사상을 다룬다. 저자인 울산대 박태원 교수는 원효 연구자로서 2011년 '간화선 화두간병론과 화두 의심의 의미'로 대한불교진흥원이 제정한 제2회 원효학술상을 받았다. 박 교수는 이 책에서 원효 사상을 열 가지 화두로 풀어 원효의 불교철학과 인간 존재에 관한 성찰을 담아냈다. 일심 사상, 불각과 본각, 시각, 일리, 쟁론과 화쟁, 선, 중생 구제 등 원효가 설파한 핵심 사상을 원효의 삶과 배치시켜 설명한다. 이중 깨달음에 대한 내용을 보자. 원효는 의상과 함께 당나라 유학길에 올랐다 무덤에서 밤을 보낸 것을 계기로 깨달음을 얻는다.

인간은 누구나 스스로의 노력과 힘으로 깨달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체득한 원효는 이후 불교의 깨달음 사상을 언어와 몸으로 밝히는 일에 몰두했다. 그가 깨달음 사상을 본격적으로 거론하고 있는 〈대승기신론〉과 〈금강삼매경〉 해설에 역량을 집중한 것은 그런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원효의 핵심 사상은 '하나가 된 마음'이다. 불교에서는 삶의 근원적 불안과 고통은 무지로 인해 '존재 고향'에서 일탈했기 때문으로 본다. 존재 고향은 존재나 현상의 사실 그대로의 참모습이다. 따라서 삶의 근원적 평안을 회복하려면 존재 고향으로 복귀해야 한다. 원효는 그 생명의 고향을 '하나가 된 마음'이라고 부른다.

원효는 일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대승의 진리에는 오직 '하나가 된 마음'이 있을 뿐이며, '하나가 된 마음' 이외에 다른 진리는 없다. 단지 무명이 '하나가 된 마음'을 미혹시켜 파도를 일으키어 온갖 세상에 흘러다니게 한다. 하지만 윤회하는 세상의 파도를 일으킬지라도 '하나가 된 마음'의 바다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다." (〈대승기신론소중에서〉)

저자 박태원…원효학술상 수상
원효 핵심은 '하나가 된 마음'

이 책 부록에는 더 읽어야 할 문헌, 용어 해설, 묻고 답하기, 증언록 등을 넣어 독자들이 그 사상가의 행적과 세간의 평가, 인간적인 면모를 알 수 있도록 했다. 텍스트에만 의존하지 않고 그 사상가가 맞닥뜨린 현실과 삶의 궤적을 입체적으로 파악하면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원효〉편에서는 "파계한 원효를 과연 승려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중심으로 '묻고 답하기'를 진행했다. 파계 후 스스로 소성거사라 불렀다는 원효는 일반적인 승려와는 다른 길을 걸었다. 이에 대해 박태원 교수는 다음과 같은 답을 내놓는다.


원효 스님 진영.

"원효는 애초에 구도의 가장 이상적 방식으로 권장되는 출가수행의 길을 택했다. 그러나 요석과의 인연으로 인해, 출가수행의 사회적 합의인 독신 수행이 어그러졌다. 그렇다고 구도의 열정과 의지마저 퇴색된 것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지고 거사가 되었지만, 가사와 생업에 몰두하는 세속의 삶을 선택할 수는 없었다. 그리하여 승려도 아니고 속인도 아닌 삶, 승려일 수도 있고 세속적일 수도 있는 경계인의 삶을 선택한다. 거사라고 하는 비승비속적 삶의 방식을 선택하여 치열하게 가꾸어갔던 것이다."

스스로 파계했기 때문에 승려는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속인으로 온전히 돌아간 것도 아니었다. 원효는 거사가 된 이후에도 치열하게 연구하고 수행했다. 그에게 요석 공주와의 인연은 구도자로서 현실을 경험하고 인간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즉 혼인 여부를 따지며 구도자로서의 그의 삶을 평가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결론이다. '인문고전 깊이읽기' 〈원효〉는 당대 최고의 사상가인 원효의 삶과 사상, 그리고 깨달음을 우리들에게 전한다. 원효가 갈구한 '하나가 된 마음'은 각박한 세상에서 돌아갈 곳을 찾지 못하는 현대인들에게 하나의 길잡이가 될 것이다.

파계후에도 치열히 연구 수행
부록에 용어해설 등 수록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실천 가능한 위빠사나 수행 정리

나라고 불리어지는 것에 대한 알아차림

도현 지음 | 웅진 뜰 펴냄 | 1만2천원



위빠사나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30년이 되었다. 그동안 위빠사나에 대한 책들은 많이 있었지만 학문적으로 깊이 들어가거나 소개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이 책은 저자의 수행 경험과 그간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한국불교 간화선의 장단점과 위빠사나의 장단점을 흡수하여 우리나라의 수행풍토에 맞게 재창조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이는 저자가 간화선과 위빠사나 수행 모두를 철저하게 했기에 가능한 일이다.

저자는 위빠사나 수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만 고집하는 게 아니라 대승적 관점에서 위빠사나를 풀어 설명하고, 간화선과 위빠사나를 접목시키기 위해 많은 고민을 한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란 평가를 받고있다. 저자는 간화선만 해나갈 수도 있고 위빠사나만 해나갈 수도 있고 간화선과 위빠사나를 절충적으로 수행할 수도 있다고 얘기한다. 마치 고욤나무에 열매가 큰 감나무를 접붙이기 하듯이 대승불교(간화선)에 초기불교(위빠사나)를 접목하면 된다는 것이다. 저자는 사마타를 해 들어가는 데에는 위빠사나보다는 간화선이 더 강하다고 얘기한다. 간화선은 분석적이지 않고 화두 하나로 들어가기에 더 집중이 강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간화선을 하다 보면 안정이 되는 지점이 있는데, 그 때 호흡으로 돌려서 '들숨도 무상' '날숨도 무상'하다고 바로 무상관찰로 들어가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간화선과 위빠사나는 어떤 점에서 다를까. 저자에 따르면, 부처님이 인생에 대해 고뇌하고 생각하던 그것을 순서를 밟지 않고 비약적으로 발전시킨 것이 간화선이라면, 위빠사나는 구체적으로 따져가면서 하나하나 밟아간 것이라고 한다. 간화선에도 이상과 현실이 같이 있지만 이상이 조금 두드러지고, 위빠사나는 현실 직시적인 점을 차이로 둔다.

이 책은 부처님께서 제시한 호흡수행에 관한 것이지만 광범위한 위빠사나의 수행법 중에서 저자가 체험하고 수행한 방식을 정리하여 꼭 필요한 것들로만 모아서 만든 테크닉 중심의 책이다. 저자는 이론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초보자도 수행에 집중하도록 간략화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김주일 기자

신흥사 역사, 문화재 등 소개

설악산 신흥사

오경후 · 지미령 지음 | 활불교문화단 펴냄
1만8천원



제 3 교구 본사인 속초 설악산 '신흥사' 하면 수행여행으로 유명한 흔들바위나 울산바위만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작금의 신흥사는 '향성선원'을 복원해 수행하는 불교의 전통을 충실히 계승하고 있다. 또한 만해사상을 이어받아 한국불교의 위상을 높이는 사찰로 거듭나고 있다. 백담사 입구에 설립된 '만해마을'은 해마다 '만해축전'을 열어 만해의 정신을 전하며 한국불교 세계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올해 신흥사에는 반가운 소식이 날아들었다. 명부전 지장보살삼존불이 보물 1749호로 격상된 것이다. 없어진 줄 알았던 극락보전 후불탱 '석가여래설법도'가 LA박물관서 발견되고 아미타여래삼존불이 보물 제 1721호로 지정된 후 연이은 낭보다. 기억에서 사라지고 잃어버렸던 보물들이 점차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번 한국의 명찰 시리즈 〈신흥사〉에서는 모두가 궁금해 하던 LA박물관의 극락보전 후불탱 '석가여래설법도'를 만날 수 있다. 또한 이 책에서는 신흥사 역사는 물론 가람배치, 문화재, 산내암자를 비롯해 신흥사서 주석한 선지식들도 조명하고 있다.

김주일 기자

진정한 행복 수행 안내

붓다테라피

토마스 비엔 지음 | 송명희 옮김 | 知와 사랑 펴냄 | 1만5천원



행복과 웰빙, 명상이라는 말이 어느 때보다도 우리 사회의 인기 키워드로 등장하고 있다. 왜 일까? 현대인들에게 걱정이 많기 때문이다.

시간에 쫓기면서도 자신이 행복한지, 어떻게 하면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고 직장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을지 걱정이 많다. 모두 행복을 추구하지만, 보통 그 방식이 지혜롭지 못한 경우가 흔하다.

그렇다면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일까? 덧없는 감각적 즐거움과 희열, 행복, 좋은 기분, 깊은 충족감, 성취감, 기쁨, 내면의 평화, 만족감, 열반의 행복 사이에 각 단계의 차이는 없을까? 저자는 이런 흥미로운 문제들을 충분한 연구를 바탕으로 설득력 있게 제시한다.

또한 참된 삶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 신뢰할 만한 지침도 소개하고 있다.

저자는 깨우침을 얻은 인도의 현자, 붓다의 통찰이 어떻게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치유하며 온전하게 하는지 보여준다. 그는 "행복으로 가는 길이란 없다. 행복이 바로 그 길이다"라는 불교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는 데 실제로 도움을 주는 수행법과 그 배경에 관해 상세하게 설명한다.

저자는 "붓다의 통찰은 힘겨운 감정, 상실감, 질병, 그 밖의 어려운 문제들에 대처하는 데 효과적이며, 무엇보다 지혜롭고 품위 있게 죽음을 대면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이어 저자는 이 책에서 "사람은 모두 죽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나면 우리는 완전히 살아 있을 수 있습니다. 죽음을 알게 되면 삶을 낭비하지 않는 지혜가 생깁니다. 죽음은 자신이 상상하는 미래에 이르기 위해 삶을 인식하며 매 순간 깨어 있게 합니다. 또한 우리를 현재에 살도록 해주며 지금이야말로 살아 있을 수 있는 유일한 시간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라고 말한다.

이렇듯 이 책은 순간적인 행복은 물론 지속적이고 궁극적인 행복을 위해 필요한 방법을 알려준다. 중요한 점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있다는 것이다.

행복은 언제나 가까이에 있다. 행복으로 가는 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행복 자체가 길이다. 반이나 남은 술잔인지 반밖에 안 남은 술잔인지는 우리의 시각에 달렸다.

모든 것이 우리가 마음먹기 나름이다. 우리는 모든 영역에서 주인이며 주인이 될 수 있다.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지혜롭고 깨어 있으며, 이타적이고 사랑을 베푸는 깨우침의 삶으로 가는 길이다.

우리가 그토록 갈구하는 행복, 성취감, 기쁨을 주는 편안함, 웰빙을 얻기 위해서 어떤 긍정적인 통찰의 지혜가 필요할까? 놀라운 통찰력이 담긴 이 책을 읽고 그 해답을 찾아보자.

아름다운 등

찬덕불교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책임 시공 합니다.



전선(케이블) 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홍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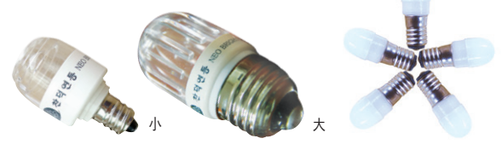

윤장대 인등

찬덕연등이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영구위패 · LED 인등 · LED 전구


용주사 LED 인등


보급형 위패

찬덕 LED 전구
1년 365일, 하루 6시간 사용 전기요금 : 98원/1kwh



※ LED 전구 :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찬덕불교 www.chanduk.com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양2리 261-6 /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생 활 안 내

▷ 문 의 : 02) 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hyunbul.com
▷ 가 격 : 1Box (4.6×4.6) 4만원, 1Box (9.2×4.6) 8만원, 상단 Box 12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갓 짜낸 젖이 즉시 변하지 않듯이 악업의 과보가 즉시 무르익지 않지만
악업은 끝내 잿더미 속 불씨처럼 어리석은 자를
뒤따르며 모든 것을 불태워버린다

– 법구경 –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증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금정사 대명 합장 (부산)

역학계 최초!

40년 지도경험 총정리
물상 비법전수
숨어있는 조상영가의 비밀전수
(수강즉시 상담가능, 책임지도)
- 사주, 궁합, 작명, 이사, 택일
- 영가지도, 퇴마, 빙의
(보경사 주지스님 직강)
(부산) 010-3591-5277

불교전통(범음,범패)

불공 해드립니다
49재, 천도재,
점안, 예수재, 수륙재,
각종불공(바라, 작법)
010-2200-8176

역학·빙의퇴마

개인지도,직접상담
1.역학 : 사주,궁합,택일,성명학
2.최면,전생요법,귀신들린병 퇴마
3.빙의(신병)출장 퇴마해 드립니다
4.빙의,전생,우울,공포증,상담
011-772-4606
031)842-8023
의정부 비룡정사 제행스님

초혼 재혼 인연찾기

불자 독신 남녀 , 결혼, 친구
연인 인연 지어드립니다.
성실하고 진실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전화상담 환영
원갑사 인연찾기
02)365-1345
010-9114-4345
소정의 비용 있습니다

국제불교지도자협회

종단가입 및 봉사단
회원 모집
일불 제자의 기치로 사찰 운영 및
모든 행사에 품앗이 정신으로
함께하고자 합니다
종단을 불문, 불교인이면 누구나 환영
전화 02)733-5665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49재회향·바라무·
점안식·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1-850-0176

49재 천도재 전문

사찰행사, 각종불공, 산신재
점안, 바라무, 나비무,
회심곡, 구병시식,
산사음악회
010-8676-6132

능엄신주, 영가천도

우울증, 지방간, 스트레스,
학교폭력
가정방문 회사방문
상담 기도해 드림
꿈바위불교교육원
010-6789-5008

법당 유무선 마이크

고성능이 100만원 초반대
소리를 들어본 후 공사결정
중고고가 매입
전통사찰 200만원대
한성음향
010-4440-8687

범음범패 불공 해드립니다

천도재, 49재 및
각종 불공
바라작법
스님이 직접 만든 은행 엑기스 판매합니다
011-628-1156

동영상 기문성명학

평생운을 볼 수 있는 한글성명학
용신, 실전사주. 고급-일진내정법
(명반법,낙화법), 육효, 기문둔갑
누구나쉽게단기간에배울수 있음.
범 천 명 리 강 의 실
02)389-6597
www.beumchun.com

쉼 터

석정수 스님의
기적의 비법
대체의학
약사여래 가피로 만병을 환부
손으로 직접 뽑아 버리는 신비의 약손
치유, 빙의, 정신병, 신경통, 위장병, 요통,
중풍, 갑상선, 우울증 등 잡신의 병.
•사업성취 업장소멸 여러가지 상담을 기다립니다.
* 노숙자 식사제공, 스님 건강 보살펴 드림
양주시 장흥면 부곡리 약사선원
010-2766-7677

백발 백중 정확한 비방술을 출판하였다

*일반서점에는 공급하지 않습니다
정가 25만원
농협 : 352-0284-3938-73 하영옥
010-4735-3232

불교대장경. 고려대장경
축역한국대장경. 한글대장경

구입하여 소장 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가격 : 1,300만원(절충가능)
010-4383-5077

양 도 공 고

(법원 등기된 종무법인 임)
법인 불교단체양도
법인 종단 양도
011-412-8040 법광

지장대사 원력 천도법

1. 조상빙의와 대화를 통한 천도재
2. 빙의 퇴마 치료전문
3. 가정우환, 병명없이 몸이 아프신 분
4. 엑소시스트도 치료 못한 환자도 치료
금 강 사
010-2418-6222

화주보살,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기 가평)
011-774-4099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서울 정릉)
02)919-0480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50~65세 까지)
(사명산 상운사)
033)482-3382
011-764-3661

총무원장 초빙!!

호국종단을 이끌어 주실
능력있는 선지식을 모십니다
(수도권에 주석하고
계신 스님, 법사)
포교원장 법산
010-3011-0853

사찰화재보험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 가입시 필요자료

· 사찰등록증
· 각 전각의 건축(증, 개축)년도 면적

보험사 현장 실사후 보험가입 함

사 찰 화 재 보 험
서일석(圓明) 합장
010-7344-1881
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704

※ 원거리일 경우 소정의 출장료가 있습니다.

심 와 기 도

• 업장을 소멸시키고 운도 바뀌게 하는
심와기도법을 스님에게 전수합니다.

☎ 032)664-0048 / 011-741-0867

무형문화재 범음범패
전통불교조계종 총본산

제9호 부산영산제 연수원(바라,작법) 3개월 과정 학인모집
❁ 무형문화재 제9호 영산재 천수바라 작법무 ❁ 사물 ❁ 불교의식
특전 1. 본교(졸업) 우수한 자는 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 추천 특전 2. 부산시 문화재 행사 출전 실무

부 전 스 님 안 내
부전스님 필요한 사찰
부전 사찰이 필요한 스님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010-5511-7000 (사주,명리,영가찾는법 개인지도)
전통불교조계종에서는 종도 여러분의 입종을 환영합니다.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산청, 대원사 선방)
055)972-8068
010-9123-9948

전통 염불 배우면서 부전하실 분 모십니다

(마산, 55세미만)
010-3428-6665

생활역학강의 : 전문교육처 (주간반) (야간반)

1)초급 4개월 : 중급 4개월 : 연구 4개월 : 실증철학 고자강 이석영 고단원 이병렬 선생의 정통학문
2)정규야간반신설. 월요일 오후 7시 ~ 10시. 수시접수
3)특강 사주통변실전반 : 수요일 오전 9 ~12시. 수시접수 역학은 배웠으나 통변이 어려우신 분들의 특강반 핵심적인 용신법을 바로 알아낼 수 있는 비법전수한 눈에 오행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전수
4)작명학 연구반 : 실증성명학전서 : 수시접수 본명사주의 격국법 조후법 통관법 병약법 억부법 오행균형법 부족된 원형이정의 수리법 자원보충법 음령법 호성법의 체계적인 이론과 사상체질법 등 정통작명 비법을 전수 합니다
5) 종합 개인지도 : 수시모집 명리정통 정규반 + 작명 + 관상 + 수상 + 타로

단원역리학회 동대문구 T : 2243-9598. H·P : 018-470-6314
지현역리학연구원 http://kr.blog.yahoo.com/han10305

佛 불영TV

불영TV는 인터넷방송으로 영상 뉴스 다큐 법문 행사사찰순례,산사음악회등 의 영상사업전반에 걸쳐 토탈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를 지향하고 영상포교의 선구자가 되고자 합니다.

■ 원통스님 관세음보문품 CD27장	190,000
■ 예불대참회문 DVD 52장	290,000
■ 원순스님 신심명 12장	120,000
■ 능엄주(도민스님)DVD동영상+오디오CD	15,000

www.bytv.kr 영상제작 및 구입문의
02)2236-7209, 010-8519-9279 〈 법보시 상담환영 〉

불교성지순례 전문여행사

프리랜서 직원
모집합니다
모집인원 : 00명

02)365-7747
010-9468-1714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예비스님(행자)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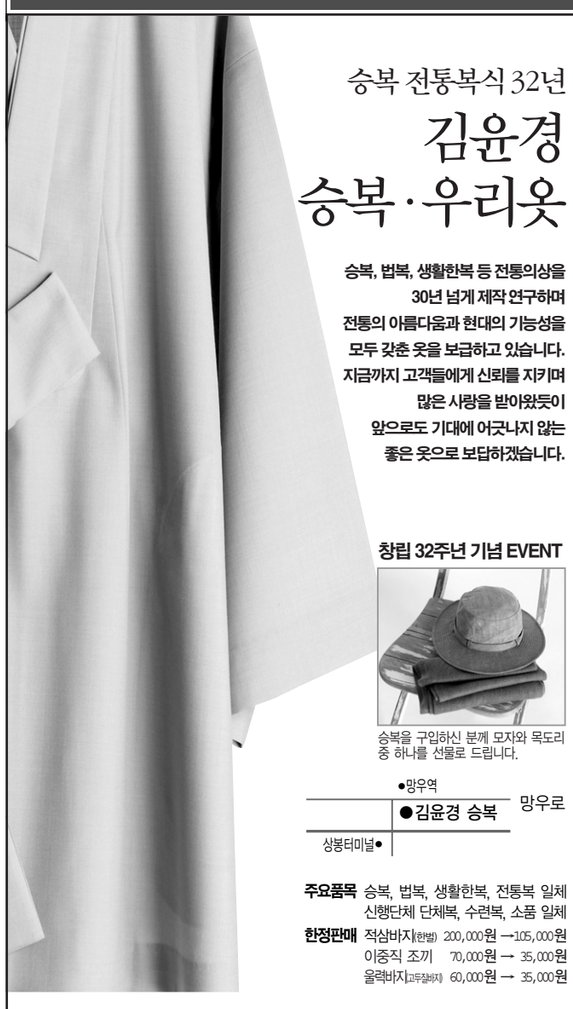
1. 수행위주의 교육
2. 수계 후 공부 100%(대학, 강원, 기본선원)뒷바라지
3. 공부 마친 후 국내도량, 해외도량, 복지시설 등에서 활동 할 수 있음.
4. 본인의 희망에 따라 대구큰절, 산중사찰 선택하여 행자생활 함.

☎ 문의 : 010-9562-8228

불자축구팀 FC붓다 회원 모집

축구를 통한 불자들의 소통과 화합을 목적으로 하는 불자축구팀인 'FC붓다'가 신규회원을 모집합니다.
▣ 모집대상 : 불교계에 종사하는 불자 (서울, 경기지역 / 20~50대까지)
▣ 매월 2, 4주 토요일 09시부터 정기모임 (인조잔디 전용구장)
▣ 불자축구대회 준비 중

홈페이지 - http://WWW.fcbuddha.com
페이스북 - FC붓다 / 문의 010-7339-8688



정통침술 개인지도 안내

〈 한국침의학연구원 〉의 정통침술은 조상대대로 전해져오는 한국의 전통침술을 현대의 인체과학과 접목시킨 세계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우수한 침술입니다.

〈 한국침의학연구원 〉의 정통침술은 음양오행론적 이론의 바탕위에서 형성된 한국의 전통침술을 인체과학적인 이론 체계로 재정립시킨 침술입니다. 아울러 한국의 전통침술이 가지고 있는 특장 점은 최대한 살리면서 불합리하고 맹목적인 부분은 대폭 혁신시키거나 개선했습니다. 따라서 〈 한국침의학연구원 〉의 정통침술은 기존의 전통침술에서 상당한 단계까지 정비되고 과학적으로 진화된 침술입니다.

지금, 한국의 침술은 정통침술이 아닌 형편없는 침술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병증에 따라 특정의 경혈에 침을 여러 개 꽂아 놓고 막연하게 질병이 치료되기를 바라는 허망하기 짝이 없는 침술을 시술하고 있는 게 한국 침술계의 현실입니다.

〈 한국침의학연구원 〉의 개인교습을 통해 침술을 익히게 되면 숱한 시행착오의 결과로 얻어지고 인체해부학적인 지식에 근거한 정확한 침놓는 자리와 인체생리학적인 메커니즘에 의한 합목적적인 수기법을 고스란히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게다가 다른 곳에서 수 년 동안 침술을 배웠는데도 별로 진척이 안 되는 분들에게는 40시간의 개인지도를 통해서 놀라울 정도로 자신의 침술이 완성되어 가는 걸 체험하시게 됩니다.

〈 한국침의학연구원 〉의 정통침술 개인지도는 1:1의 완벽한 실습위주로 실시되며, 지방 어느 곳에든지, 그리고 언제든지 수강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blog.naver.com/kppass7 또는 네이버 검색창에서 '침술배우기'를 치시면 '신보선의 침의학과 건강.의학칼럼'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 010-4054-7110
한 국 침 의 학 연 구 원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향다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
Fax 031-881-1350 긴급전화 : 011-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조명숙)

한방(韓方)치료로 갑상선, 통풍, 류마티스 관절염, 척추질환으로

오랫동안 고생하신 분은 상담 받아 보세요.

난치성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본인 또는 가족으로
상담이 필요하신분은 문의하십시오

한 솔 한 의 원
031)555-7780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847번지 타워크리닉 3층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110408-중-8421호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
- 법당 : 30평
- 요사 : 50평
- 부지 : 80평
- 가액 : 2억

- 위치 : 부산
- 법당 : 33평
- 요사 : 36평
- 부지 : 52평
- 가액 : 3억9천

- 위치 : 경남
- 법당 : 20평
- 요사 : 50평
- 부지 : 100평
- 가액 : 3억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사찰 및 토굴안내

경남 사천 아름다운 토굴(급)

- 총 부지 : 630평
- 건물3동, 법당25평, 요사(방5칸)
- 사천읍내 5분거리
- 가액: 1억8500(은행 7천)

대 사찰 급 양도(반값)

- 총 부지: 약 1000평(평지)
- 건물8동,목조40평 2동, 요사채 방(12개)
- 사천왕 • 종가: 대북, 대종
- 진주공원 부근, 대단지 아파트 밀집지역
- 총가액: 9억(은행 6억가능)

※공양주 구함 (수수료 없음)

부산 사찰 전문 연산공인중개소 직011)560-8522,051)863-6622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 은행 · 일반융자 좋은 조건으로 알선해 드립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 다음카페 : 이박사 공인중개사 〉

♣ 사찰안내는 사찰부동산전문 이박사에게♣

- 전국에 도량을 구하시거나 매도 하실때는 이박사에게
- 전국에 수백건의 사찰매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참되고 좋은 인연을 찾아드립니다. (방문접수.비밀보장)

■ 사찰, 암자, 토굴 포교당, 사찰부지 매매,임대 전문중개사

직통: 010-7347-1010 <이박사(이규철)드림>

■ 사찰,암자,토굴,포교원 양도 급히 구함!!!

사 찰 안 내

- 위치 : 대구 광역시 동구 신도시 인근
- 부지 : 500평(종교용지)
- 법당 25평, 요사 40평
- 산신각 5평
- 가액: 3억 7천만원
- 특징 : 신도시 인근의 조용한 사찰로 포교지로 좋음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창녕군 창녕읍
- 부지 : 1000평(종교용지)
- 법당 : 30평
- 요사: 2동 50평
- 기타: 산신각, 나한전, 용왕당 등
- 가액: 1억 9천만원
- 특징 : 도심 인근의 조용한 사찰로 기도정진 할수 있는 도량임

좋은인연 됩시다

동진불사 대구 010-9636-0455 / 서울 010-5828-0455

사 찰 안 내

- 한번 가보고 싶은 사찰
- 지리산 천왕봉 아래 위치 최고(목조건물)
- 아주 완벽한 전통사찰
- 대웅전 27평(토굴) 황토, 요사채 55평
- 법륜전 70평 6개 각방 욕실완벽
- 등산로 끝까지 도로 포장되어 있음
- 현공풍수학으로 (최고 좌향)
- 가액 : 8억

010-4586-4525

사 찰 터 안 내

- 위치: 경남 창원시 명곡동
- 전 1,200평, 2500평, 3600평
- 평당 65만원
- 물좋고 양지바르며 태풍의 피해가 없는 명당땅
- 원로스님, 유명지관이 추천하는 명당 창원 통합시 인구 110만명의 도심속의 주변야산 200만평 속의 금세기 최상의 큰 절터

010-9393-8945

사찰(급)안내

- 위치 : 충남 논산시 가야곡 야촌리 논산 IC 2분거리
- 대지 125평 조경완벽
- 법당 20평, 산신각 5평, 요사채 10평, 공양간 15평,
- 석물- 5층석탑, 해태 1쌍 연못 조경 완벽
- 가액 : 1억 3천만원

011-9004-1492
041)741-1492

사 찰 안 내

- 충북 청원군 이원면 운암리
- 청석굴 관광지역
- 대지 220평, 요사채, 산신각 60평
- 해수관음 모셔져 있음
- 법당 25평, 밭 754평, 총 1142평
- 가액: 3억 5천만원

010-8891-3837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밀양시
- 대지 500평
- 법당 30평(단청완료)
- 요사채 약 50평 2동, 산신각 2평
- 가액: 4억

017-802-3290

포교원(급)안내

- 위치 : 안산시 월피동
- 평수 : 26평
- 법당 완벽한 시설로써 즉시 법회 가능
- 전세 500만원 월세 40만원
- 시설비: 상담후 결정

010-3662-5527

사찰자리(터)

- 위치 : 경북 성주군 수륜면
- 대지 약 600평, • 가옥 3채
- 가야산자락 주변경관수려함
- 선방 ,절터로 최적지임
- 가액: 2억 8천만원

010-8880-1180
010-8886-0602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청송
- 대지 : 135평
- 법당 14평, 개금 삼존불
- 후불, 칠성, 지장, 신중, 영가단
- 심야전기
- 주차장 완비, 도로에서 200m
- 가액 : 9천5백만원(조정가)

010-4146-6556

토 굴 안 내

- 위치 : 경북 울진군 후포면 금음리
- 대지 150평, 전 170평
- 건물 18평 (조립식)
- 마을끝 산자락에 위치
- 바다보임, 산세수려
- 꼭 필요하신 분만 연락요망
- 가액 : 9천만원

054)787-2697
010-3518-3958

포교원(급)안내

- 위치 :강서구 화곡역 3분거리
- 보증금 1천만원, 월 7십만원
- 평수 약 60평
- 3층건물에 2층
- 법당, 시설완벽, 살림가능
- 큰방2, 주방, 화장실 2개
- 가액: 4천 9백만원

010-9939-6966
010-4031-6643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거창군 신원면 구사리
- 임야 2500평, 야산 5000평, 대지 1500평
- 건평 110평, 법당 50평, 요사채 60평, 산신각
- 주차장 2,000평
- 소나무 많고 산세 좋음
- 가액: 7억 5천만원

010-9433-3543

사 찰 안 내

- 물 좋고 공기 좋은 경북 왜관 사찰
- 부지: 2천 500백평
- 법당, 삼성각, 용왕당, 공양간
- 대출 1억 6천포함
- 총포함 4억 9천만원

010-7246-0100

전원주택 겸 토굴터안내

- 위치: 경북 상주시 공서면 거창리
- 평수: 396평
- 가액: 2천 5백만원

010-8852-1479

포교원안내

- 위치: 부산 기장군 읍 대라니
- 평수: 82평, 4층 4층
- 법당: 삼존불, 신중단, 칠성, 용왕, 산신, 지장단
- 인등: 지장등 관음등
- 종무소, 주지실, 친견실, 주방, 화장실, 창고, 최고시설, 몸만 오시면 됨
- 보증금 1천만원 월 60만원
- 시설비 2천 9백만원

010-5031-8089

포교원안내

- 위치 : 경남 창원시 소개동 (사찰등록)
- 평수 40평
- 구조: 스님방 따로 (욕실, 화장실,주방포함) 공양간별도있슴
- 보증금 1천만원 월세 30만원
- 시설비 1천5백만원(비품일체)

010-8940-5858
055)252-3172

사 찰 안 내

- 위치 : 청도 (대구에서 30분거리)
- 평수 130평
- 건평 42평(인법당)
- 가액: 1억 6천만원(절충가능)
- 남향 교통편리

010-2501-3671

암 자 안 내

- 위치 :경주 불국사 맞은편
- 남산에 위치한 경관좋은 명당터에 자리잡은 암자 (문중땅)
- 가건물 법당. 산신각, 요사채 2채
- 가액: 1억 5천만원

010-6488-2677

포교원안내

- 위치 :서울 양천구 신월 6월
- 상가건물 2층 • 방2개, 33평
- 아미타, 삼존불, 신중탱화, 지장불, 3년전 개금
- 보증금 800만원 월 50만원
- 총 3000만원 몸만 오시면 됩니다
- 시설비 답사후 절충

011-340-5963
010-2964-8723

토 굴 안 내

- 위치 :경남 거창군 신원면 구사리
- 대지 145평, 건물 25평, 방4, 인법당1
- 입식주방1, 수세식화장실1
- 자연생수(석간수) 텃밭
- 마당까지 차진입, 차고 있음
- 마을에서 500M 떨어져있음
- 20M 전방에 마르지 않은 계곡
- 가액: 6500만원

010-3509-0124

도심속산중사찰

- 위치 :경기도 파주읍
- 대웅전 24평
- 요사채50평, 방3,큰주방1,욕실1 난방, 심야보일러
- 대로변에서 5분거리 주변은 산
- 보증금 3천만원 월1백만원(조정가능)
- 시설비(양도도 가능)

010-4517-5502

포교원(급)안내

- 위치: 대구 동구 신암동
- 3층건물중 2층(45평)
- 삼존불,산신, 각탱화, 소불270,지장관음
- 친견실,방1,공양간,창고, 수세식화장실,세면실
- 에어컨, 집기일체완비
- 몸만 오시면 즉시법회가능
- 보증금500만원, 월45만원
- 시설비 3000만원(조정가능)

010-5555-8744

사 찰 안 내

- 부산시 금정구 지하철 10분 이내 거리
- 1층 요사채(화장실 2개, 방4개, 거실), 2층 법당
- 신축개조, 법당, 단청일체
- 삼존불 은행목불, 원목불단, 108소불 있음
- 1층 약사불, 포대화상
- 2층 산신, 용왕, 독성 별도
- 위치좋고 옆 공원 산세 좋음
- 스님 건강 관계로 9억(절충가능)

010-2503-0776

포교원안내

- 위치 : 광주광역시 최요지
- 평수 22평
- 모든시설완비, 최고의 조건
- 몸만 오시면 됨
- 보증금 시설비 합 500만원

010-8315-2100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 동래
- 2층 삼존불, 3층 산신각
- 보증금 500만원, 월 20만원
- 시설비 700만원
- 부득이한 사정으로 양도

010-3070-8100

암 자 안 내

- 위치 :서울 양천구 신월 6월
- 상가건물 2층 • 방2개, 33평
- 아미타, 삼존불, 신중탱화, 지장불, 3년전 개금
- 보증금 800만원 월 50만원
- 총 3000만원 몸만 오시면 됩니다
- 시설비 답사후 절충

011-340-5963
010-2964-8723

포교원안내

- 위치 : 서울 양천구 신월 6월
- 상가건물 2층 • 방2개, 33평
- 아미타, 삼존불, 신중탱화, 지장불, 3년전 개금
- 보증금 800만원 월 50만원
- 총 3000만원 몸만 오시면 됩니다
- 시설비 답사후 절충

011-340-5963
010-2964-8723

암 자 안 내

- 위치 :경주 불국사 맞은편
- 남산에 위치한 경관좋은 명당터에 자리잡은 암자 (문중땅)
- 가건물 법당. 산신각, 요사채 2채
- 가액: 1억 5천만원

010-6488-2677

광진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 부지 : 3000평
- 전각: 6채(목조)
- 요사 : 210평
- 가액 : 33억5천
- 위치 : 경기
- 부지 : 220평
- 법당 : 35평
- 요사 : 30평
- 가액 : 6억5천

※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상담받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전국 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운영, 구하는 사찰 있습니다.
※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010-4586-4525

사 찰 안 내

- 위치 : 울산시 울주군 두동면 만화리
- 10분거리에 5000세대 아파트단지
- 대지 340평, 건평 200평
- 시설완비
- 석간수(물)최고, 최고의 명당
- 비로자나불, 후불탱화
- 가액: 3억8천 5백만원 (2억 대출 됩니다)

010-3573-0481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남 나주시 인근
- 총평수 637평, 전건축물 목조
- 대웅전 30평, 요사채 20평, 공양간 10평, 해우소3평반
- 청돌암반지하수 130mm, 물수량 100톤 일급수 cc카메라시설
- 사찰경내지 계곡물흐름 잔디 및 조경완벽
- 무안-광주간IC 5분거리 1호선 국도 8분거리
- 개인사찰, 꼭 하실분만 전화요망
- 가액: 5억 5천만원 (조정가능)

010-6375-0108

농 가 주 택

경북 영양군 입암면
마을에서 산쪽으로 외딴곳
남향 대지 124평, 앞에 건물 18평
뒤에 건물 18평, 차진입 급수 전기
즉시 입주 가능함 , 주소 공개 주인직
가액: 4800만원

010-8899-8899

불교용품점(급)안내

불교 용품 전문점 (중,대형)
서울 근교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성업중 . 개인 사정상 급 양도
꼭 하실분만 연락바람
가액: 상담 후 결정

010-6397-9449

사찰(급)안내

- 서부산 낙동동부근 (부산 발전지역임)
- 대지 370평, 건물 (신축 3년)
- 1층 종무소, 2층 법당(기와 40평)
- 종각, 산신, 용왕, 기타
- 부처님 불상은 4분 전부 동불임
- 뒤쪽은 산이고 앞쪽 전망 好
- 주차 20대이상 • 가액: 5억 8천만원

010-2864-1951

암자.토굴터 안내

- 위치: 경남 거창 남상면
- 전 300평
- 소나무산속 정남향 자연경관수려
- 거창지방도로인접
- 가액: 9천 2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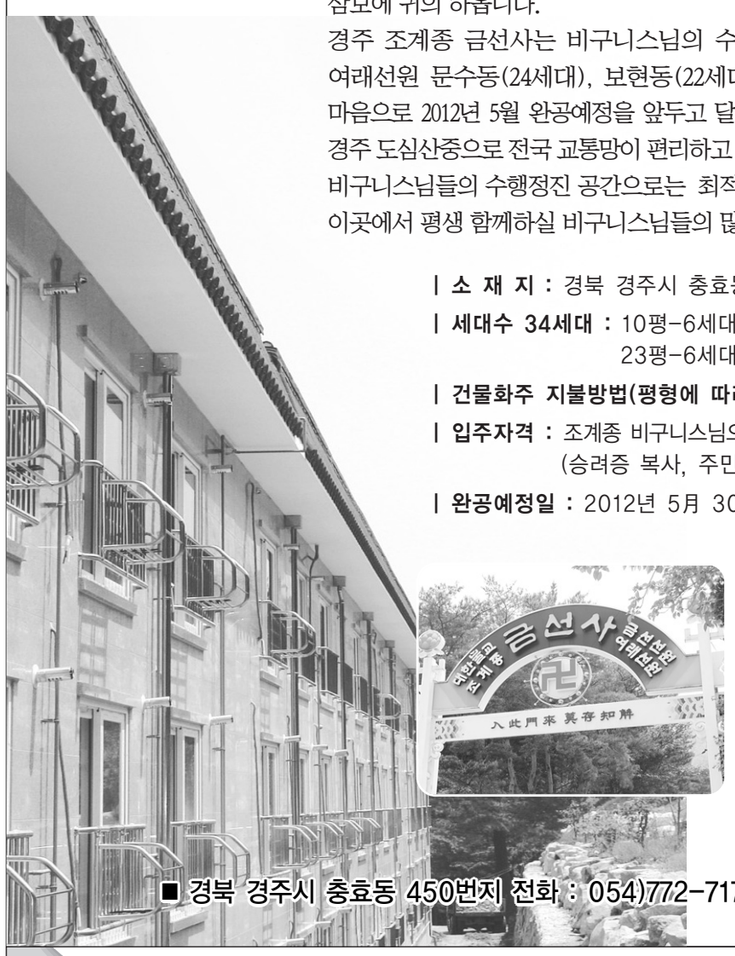
010-2493-2452

사 찰 안 내

- 위치 :대전시 서구 가수원동
- 구봉산 등산로 전망최고
- 대지 60평, 건평 75평 • 1층 공양간, 2층 법당
- 가액: 3억 2천만원(융자 9천만원)
- 시설비포함. 임대도 가능
- 스님 건강이상으로 좋은절 급양도합니다

010-6668-2249
010-3316-2656

경주 금선사 여래선원 달마동 분양안내



삼보에 귀의 하옵니다.
경주 조계종 금선사는 비구니스님의 수행정진 공간으로 2005년 부터 금선선원(30세대), 여래선원 문수동(24세대), 보현동(22세대)을 완공 입주하였으며, 이제 마지막 회향하는 마음으로 2012년 5월 완공예정을 앞두고 달마동 (34세대)를 건립하게 되여 분양하게 되었습니다.
경주 도심산중으로 전국 교통망이 편리하고 주변엔 홍송이 둘러싸여 있어 산세가 수려한 경관에서 비구니스님들의 수행정진 공간으로는 최적지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평생 함께하실 비구니스님들의 많은 동참 있으시길 바랍니다.

- **소 재 지 :** 경북 경주시 충효동 450-4
- **세대수 34세대 :** 10평-6세대, 12평-6세대, 13평-5세대, 21평-6세대, 23평-6세대, 36평-1세대〈옥상 선방건립(달마선원 30평) 예정〉
- **건물화주 지불방법(평형에 따라 다름) :** 총액,계약금,중도금,잔금 원
- **입주자격 :** 조계종 비구니스님으로써 승가에 결격사유가 없이 심신이 건강한 승려, (승려증 복사, 주민등록등본 1통)는 제출 바람니다.
- **완공예정일 :** 2012년 5月 30日 **입주예정일 :** 2012년 6月 5日

대한불교조계종
선도산 금선사
주지 휴정 합장

■ 경북 경주시 충효동 450번지 전화 : 054)772-7171 ■ 휴대폰 : 010-3538-3879



삼국유사 인문학 유행(遊行)

금관가야 본류가 왜나라로 건너간 까닭은?

금관가야 멸망 가야 이시왕 '왜'로 갔다

1. 가야를 보면 동아시아 정치가 보여

김부식은 〈삼국사기〉에서 '신라'와 '고구려'와 '백제'의 삼국 이외에 대발해와 가야연맹에 대해서는 전혀 다루지 않았다. 김부식은 가야에 대해 "왕의 말이 무릎을 꿇고 슬프게 울었다"며 가야 연합군에 거짓 항복한 내물왕 때의 상황 만을 짧게 다뤘다. 이러한 기술은 삼국의 강역을 반도 중심으로 본 김부식 사관의 국부성 때문이라 해야 할 것이다.

반면 일연은 〈삼국유사〉에서 '말갈 발해' 조목을 두어 '대발해'의 기록을 남기고 있다. 또 가야에 대해서는 '오가야'와 '금관성 파사석탑' 조목을 싣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고려 문종 때 금관 지주사였던 김양일(金良溢)이 정리한 〈가락국기〉를 하나의 조목으로 '간추려 싣고'(略而載之) 있다. 일연이 〈가락국기〉 전체 분량을 얼마나 줄였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가야왕 세계(世系)를 대체 기록하고 있어 많은 부분을 축약한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가야 '주목'은 〈삼국유사〉의 미덕
〈삼국사기〉…발해, 가야 안다뤄
〈삼국유사〉…발해, 가야 조명
고구려…중국 중심사관 불인정

김부식은 〈삼국사기〉에서 이들 가야와 대발해 두 제국을 배제시키고 우리 역사를 반도 안에 축소시켜 한국사의 외연을 크게 축소시켰다. 그러나 일연은 대안사서인 〈삼국유사〉에 두 제국을 담아냄으로써 한 민족의 강역을 온전히 담아내려고 했다.

이 점은 '고조선' 조목과 '향가' 류의 수록과 함께 〈삼국유사〉의 가장 주요한 미덕이라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은 '광개토대왕'을 비롯한 고구려의 천하관을 고려하면 더욱 크게 다가온다. 고구려의 천하관 내지 세계관을 고려하면 김부식의 반도 중심적 사관을 포함한 종래의 역사관은 수정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과 대등했던 고구려 입장에서는 이후 한반도에서 받아들인 중국 중심의 천하관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이다. 고구려는 백제를 제압해 속국으로 만들었을 뿐 아니라 신라를 구원하면서 신라까지 속국으로 만들었다. 당시 광개토대왕은 신라와 백제를 아울러 삼국통일을 할 수 있었지만 이들 나라를 동일한 민족으로 보았기에 조공을 바치는 속국으로 삼았을 뿐 통합하지 않았다. 하지만 비려(碑麗, 패려, 거란족 일파)와 왜는 무너뜨려야 될 대상으로 인식해 응대했다.

2. 가야의 신라 침공으로 국제전 시작

가야는 일찍이 신라에 합병됐고 금관가야의 본류가 왜나라로 건너가 겨우 일부분만이 알려져 있을 뿐이다. 당시 가야 중 금관가야는 철을 생산하고 수출하며 철기문화를 주도한 강력한 나라였다. 남아있던 금관가야의 지류는 가야연맹에 퍼져 철기 문화가 보급되는데 크게 기여했다. 이후 대가야는 맹주였던 금관가야의 지위를 계승했지만 곧 신라에 흡수됐다. 결국 삼국에 맞섰던 제4의 제국 가야연맹의 존재감은 신라에 귀부한 김유신 계를 제외하고는 정당하게 인식돼지 못했다.

가야는 백제·왜와 연합해 신라를 무너뜨리고 한반도 남부를 제압하려 했다. 가야연합군이 경주에 밀어닥치자 신라 내물왕은 고구려에게 구원을 청했다. 후연(後燕)과 전쟁을 벌이고 있던 광개토대왕은 내물왕에게 거짓 항복을 권한다. 고구려 지원군이 도착할 때까지 시간을 벌기 위함이었다. 이에 내물왕은 백제(阿莘王)·가야(伊尸品王-坐知王=金叱)·왜 연합군에게 거짓으로 항복했다.

광개토대왕은 대장군 고양에게 보기군(步騎軍) 5만 명을 주어 신라를 지원하게 하게 했다. 고구려 군은 경주 지역에서 가야연합군과 전투를 벌인다. 고구려 군의 승리로 가야 연합군은 경주 포위를 풀고 후퇴하게 된다. 신라의 기사회생은 역으로 인접국인 가야의 위기를 의미했다. 금관가야의 본류는 백제와 왜와 연합하여 '임나가야'(경북 고령 지역)의 종발성에서 신라·고구려 연합군과 최후의 결전을 치르게 된다.

광개토대왕은 대장군 고양에게 신라 내물왕을 지원해 가야연합군을 경주 지역에서 제압했다는 보고를 받았다. 광개토대왕은 전령을 보내 별도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전투를 벌이지 말고 대기할 것을 명했다. 광개토대왕은 가야 연합군의 격퇴에만 목적을 두지 않았다. 광개토대왕은 가야 연합군과의 승전 이후에 벌어질 한반도 남부의 정치변화를 예견하고 미리 포석을 두고자 했다. 광개토대왕은 이 전쟁 이후 신라를 고구려의 지배 하에 두려고 했다.

먼저 그는 신라 민심을 추스르는 주체로 내물왕(奈勿王)을 적합한 인물로 여기지 않았다. 47년 간 재위에 머물렀던 내물왕에게는 여러 명의 아들이 있었다. 〈삼국사기〉는 태자 눌지(訥祗)와 왕자 미해(美海), 복호(卜好), 미사흔(未斯欣) 등이 있었다고 전한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나이가 어려 후계자로 적합하지 않았다. 광개토대왕은 당시 고구려 인질로 있던 왕족 실성(實聖)을 왕으로 세우고자 했다. 실성은 신라 김씨의 시조인 알지(閼智)의 먼 친척으로 제13대 미추왕 동생이다. 적통이냐 아니냐 정당성의 문제는 내물왕 역시 후사가 없는 흘해왕(訖解王) 사후 대신들의 추대로 오른 왕이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실성이 고구려에 인질로 가게된 이유도 내물왕이 언젠가 자신의 아들들과 왕권을 다툴 수 있다는 판단 하에 보낸 것이었다.

하지만 이로 인해 8년간 고구려에서 머문 실성은 자신을 고구려에 보낸 내물왕에게 불만이 있었다. 평소 실성의 성품을 살피고 있었던 광개토대왕은 그를 신라·고구려 연합군의 총사령관으로 임명했다. 그에게 전공을 세우게 함으로서 왕이 될 명분과 위엄을 얻을 수 있게 한 것이다. 광개토대왕은 자신이 엄선한 정예군 500명을 실성의 호위군으로 삼고 이들에게 '신라왕위 교체'의 특명을 내렸다.

고구려군 승리, 금관가야 폐허
금관가야 본류, 일본 건너가
'임나일본부설' 일본이 조작
신라 실성왕 내세워 속국 삼아

종발성에서의 전투는 고구려 군의 승리로 끝이 났다. 금관가야의 수도 김해는 폐허로 변했다. 뛰어난 항해술을 지녔으며 평소 많은 배를 보유하고 있던 금관가야 본류는 현해탄을 건너 일본으로 건너갔고 〈출가야기〉(出伽倻記)에서 전한다.

장수왕 2년(414)에 세운 '국강상광개토호태왕비'(國罡上廣開土好太王碑)에는 "원래 백제와 신라는 고구려의 속민으로서 항상 조공을 바쳤는데 신묘년(辛卯年, 391)에 조공을 바치지 않아 백제와 왜, 신라를 쳐 신민으로 삼았다"고 전한다.

일본 메이지(明治)정부의 군부는 육군참모본부의 첩보 제리(提理) 가츠라 국장과 첩보원 사코오 중위를 시켜 비문 속 '내도해파'(來渡海波)의 주체를 바꾸어 '왜가 신묘년에 바다를 건너와서 백제와 신라를 쳐서 신하로 만들었다'로 조작하게 했다. 이것이 바로 일본이 경상남도 일대에 설치했다는 '임나일본부(任那日本府)설'이다.

3. 금관가야는 일본에서 어떻게 됐는가.

가야의 원류는 부여 기마민족이다. 이들은 선비족(鮮卑族)의 침입을 받아 한반도 남쪽으로 이동했다. 그들은 동해안을 따라 남하해 김해 지역에 정착했다. 그들은 가야토기를 굽고 철을 생산하여 독자적인 나라를 세웠다.

〈삼국지〉 '위서동이전'에는 가야에 대해 이렇게 전한다.

"나라에 철이 나 한과 예맥과 왜 모두가 이것을 사 가며 돈처럼 사용하기도 한다. 낙랑과 대방 2군에 공급한다."

가야는 철갑옷과 철기로 무장했지만 동북아시아의 강자였던 고구려의 맞수가 될 수는 없었다. 금관가야의 멸망으로 가야의 이시왕과 그의 아들인 태자 김질(후의 좌지왕)은 일본으로 건너가게 된다. 이들은 오사카(大坂)의 '세츠'와 '가와치' 지역에 새 둥지를 틀었다. 이시품왕을 이은 이는 태자가 아닌 네 번째 아들이었다. 〈일본서기〉는 선왕이 승하하자 태자(金叱)가 인덕에게 왕위를 양보했다고 적고 있다. 이시왕은 가와치 지역에서 승하해 응신천황릉에 묻혔다. 그 뒤를 이은 넷째아들 인덕천황은 이 지역에서 가와치 왕조를 열었다.



김해시 봉황유적지에 있는 가야무사상. 가야는 철기로 무장했지만 당시 강대국이던 고구려의 군사력을 버텨내지 못했다. 신라 침공 후 패배의 여파로 금관가야인들은 일본으로 건너가 가와치 왕조를 열었다.

가야의 철기는 1200도가 넘는 고온에서 12시간 동안 녹여 제련한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일본 지역에서 출토된 철정(鐵鋌)이 가야의 출토품들과 동일하다. 일본에서 신기술 집단의 대표적 부족이었던 하세(土師)는 1000(1200)도를 넘는 고온을 만드는 첨단기술을 보유했다. 그리고 이 고온을 통해 '쇠처럼 단단한 도기'인 '스에키'(soi, 쇠)인 하세기(土師器)를 만들어냈다. 이들이 가야에서 건너왔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삼국지〉 '위서동이전'에서는 "땅은 비옥하여 오곡과 벼를 심기에 알맞았다. 양잠과 겸포(縑布)를 하고 소와 말을 탔으며, 혼인에도 일정한 풍속이 있었으며, 남녀 간에 분별이 있었다. 큰 새의 깃털로 장사를 지냈는데(以大鳥羽送死) 이는 죽은 자로 하여금 날아오르게 하고자 함이다"(其意欲使死者飛揚)고 전하고 있다. 가야인들은 새를 천상의 전령으로 믿었다. 경남 고성의 동외동에서 발견된 4세기 무렵의 제사 유물이

가야의 원류는 부여 기마민족
가야는 앞선 제철기술 가져
일본 건너가 가와치 왕조 열어
금관가야 적통 '왜'서 이어

'새무늬청동기'(鳥文靑銅器)란 사실은 이를 증명하고 있다.

아스카(飛鳥) 문명을 연 인덕천황은 도래인(渡來人)을 상징하는 '모즈'(百舌鳥), 즉 지빠귀들의 수장이었다. 그는 87년 간(455~519, 〈일본서기〉의 313~399년은 조작, 〈古事記〉는 33년 재위) 재위하면서 가와치 왕조를 세워 금관가야의 적통을 왜가야에서 이어갔다.

참고문헌

권상로 역주, 〈삼국유사〉(동서문화사, 1978; 2007; 2010).

신호열 역주, 〈삼국사기〉(동서문화사, 1978; 2010).

전용신 역주, 〈완역 일본서기〉(일지사, 1987)

최인호, 〈제4의 제국〉(여백, 2006).

역사스페셜, '가야흥망의 블랙박스, 철갑옷'(1999. 02. 20)

역사스페셜, '고구려 비밀의 문 광개토왕비'(1999. 05. 01)



고영섭 교수(동국대 불교학과)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을 치세요.

불기 닦는일 힘드시죠!!

여주 쉽고 빠르게 닦이고 광택이 깨끗하게

친환경 다목적 금속광택제 이지 골드



촛대, 향로, 위패, 유기, 제기, 놋쇠,
은, 동, 신주 등 모든 금속류

특 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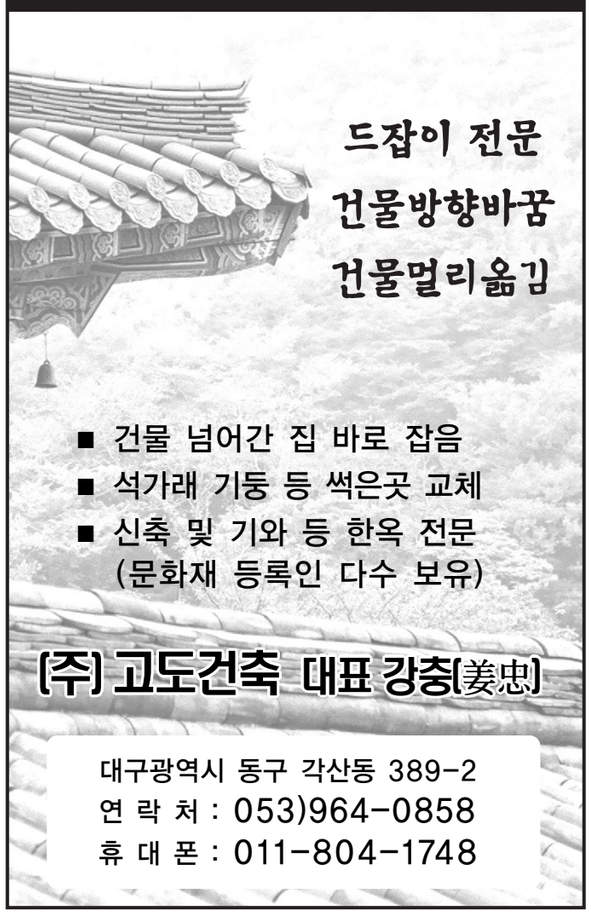
1.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2. 타제품 보다 닦기가 쉬워 시간이 절반이상 절약됩니다.
3. 코팅 광택약이라서 흠집이 나지 않고 광택도 오래 유지됩니다.
4. 습기에 강해 광택이 장기간 유지됩니다.
5. 인체에 해롭지 않게 피부보호제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6. 본제품은 10년간 사용하여도 변질이 되지 않습니다.

용 량 : 525g
사용기한 : 10년

문의 070-8262-9291. 010-5462-3620
농협 312-0029-1189-81 예금주 : 고태용

영일상사

고(古)건물 수리전문



드잡이 전문
건물방향바꿈
건물멀리옮김

■ 건물 넘어간 집 바로 잡음
■ 석가래 기둥 등 썩은곳 교체
■ 신축 및 기와 등 한옥 전문
(문화재 등록인 다수 보유)

(주) 고도건축 대표 강충(姜忠)

대구광역시 동구 각산동 389-2
연 락 처 : 053)964-0858
휴 대 폰 : 011-804-1748

불기 2556년(2012) 임진년 부처님 오신날
'마음에 평화를 세상에 행복을'

대한불교 구화종 총무원
총본산 구 화 사

총무원장 석 혜성
부 원 장 석 현진
총무부장 석 지법
재무국장 석 지함

대 중 일 동

■ 경북 칠곡군 가산면 응추리 산 92
TEL 054)977-9733 / FAX 054)976-6454

'현우경' 이야기 (23)

도솔천에 태어난 왕자

"내가 호랑이 너에게 몸을 보시하겠다"

어느 나라에 마하라단나라하라는 왕이 살고 있었다. 왕에게는 세 명의 아들이 있었다. 첫째는 마하부나영, 둘째는 마하데바, 셋째는 마하살타였다. 어느 날 왕은 왕비와 세 왕자를 데리고 산책을 나갔다. 그들은 산책을 하다 잠시 숲속에서 쉬고 있었다.

세 왕자는 숲 속을 돌아다니다 어미 호랑이와 새끼 호랑이 두 마리를 발견했다. 어미 호랑이는 너무 굶주려 젖 먹일 힘도 없었다. 오히려 배가고파 새끼들을 잡아먹으려 했다.

막내 왕자가 형들에게 물었다.

"어미 호랑이가 금방이라도 새끼를 잡아먹을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저렇게 그냥 두었다간 새끼를 잡아먹고 말 것이다."

"호랑이는 무얼 먹고 삽니까?"

"갓 잡은 짐승의 고기를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너무 멀리 온 것 같구나. 이제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는 곳으로 가자꾸나."

"알겠습니다. 형님들 먼저 가십시오. 바로 뒤따라 가겠습니다."

그때 마하살타는 생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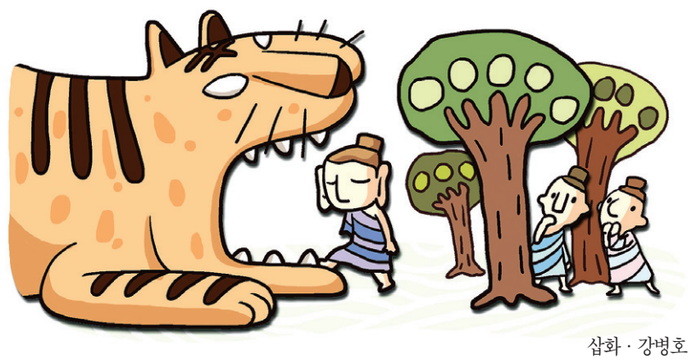
'나는 지금까지 수없이 나고 죽었을 것이다. 하지만 탐욕과 성냄으로 어리석게 죽음을 맞이했다. 이 호랑이를 만난 것은 복을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 이 몸을 어떻게 유지하기보다 어떻게 죽느냐가 더 중요하다.'

마하살타는 호랑이 곁으로 다가갔다.

"내가 너에게 나의 몸을 보시하겠다."

하지만 호랑이는 음식 먹을 기운조차 없었다. 마하살타는 나뭇가지를 주어 자신의 팔을 찔렀다. 그리고 호랑이 입을 벌려 자신의 피를 먹였다. 호랑이는 겨우 그 피를 핥다가 기운을 차렸다. 그리고 마하살타를 잡아먹고 말았다.

형들은 아무리 기다려도 마하살타가 돌아오지 않자 이를 이상하게 여겼다. 형들은 다시 길을 되돌아가 마하살타를 찾기 시작했다. 그런데 형들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마하살타가 호랑이에게 잡혀먹은 후였다. 형들은 호랑이 앞에 놓인 마하살타의 뼈를 보고 깜짝 놀랐다. 그리고 이 사실을 바로 왕과 왕비에게 전했다.



삽화 · 강병호

마하살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왕과 왕비는 한 걸음에 호랑이가 있는 곳으로 달려갔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제 스스로 호랑이에게 잡혀먹었습니다."

왕비가 말했다.

"간밤에 꿈자리가 안 좋았다. 작은 비둘기 세 마리가 나무 위에서 놀고 있었는데 매가 와서 그 중 한 마리를 잡아먹었다. 죽은 비둘기가 마하살타 일 줄이야…."

왕과 왕비는 아들의 죽음에 매우 슬퍼하며 울었다. 마하살타는 죽어 도솔천에 태어났다. 마하살타는 하늘에서 인간계를 바라보니 아직도 왕과 왕비가 슬피 울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나의 죽음으로 아버님과 어머님이 너무 슬퍼하시는 구나…. 내가 죽은 이유를 다시 알려드려야겠다.'

마하살타는 하늘에서 내려왔다. 왕과 왕비는 아들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 말했다.

"마하살타야, 다시 살아 돌아 온 거냐."

"아닙니다. 저는 도솔천에 있습니다."

"어찌해 호랑이에게 잡혀 먹은 것이냐."

"아버지, 어머니.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저는 굶주린 호랑이의 목숨을 살려 도솔천에 다시 태어났습니다. 악을 행하면 지옥에 떨어지고 선을 행하면 하늘에 태어나는 법입니다. 저는 한 점 억울함이 없습니다. 그러니 아버지와 어머니도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마하살타는 하늘사람들과 함께 내려와 왕과 왕비에게 꽃비를 내려주며 슬픈 마음을 위로했다. 왕과 왕비는 아들의 마음을 이해했다. 그리고 일곱 가지 보석으로 만든 함을 만들어 마하살타의 뼈를 넣고 땅 속에 묻었다. 그 위에는 커다란 탑을 세워 매일 같이 기도했다. 이 모습을 지켜본 백성들도 매일같이 탑을 돌며 기도해 많은 복을 받게 됐다.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그때 마하살타가 지금의 나이다. 나는 예전에 생사의 고통에서 떠나 큰 자비심을 내었기에 지금 부처가 됐다. 그 이후에도 계속 위급한 목숨을 구해 지금은 생사의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됐느니라."

구성=이은정 기자 soej84@hyunbul.com



※경전사경※



1호 반야심경(한문) 2호 금강경(한문) 3호 반야심경(한글) 4호 금강경(한글)

할인가 3,500원(50권 이상) 정 가 5,000원(1권)

- 내 지 : 70장 자연색메트지
- 제 본 : 한장본 실제본
- 표 지 : 레자크지 옵셋 4°
- 크 기 : 220㎜×310㎜



11호~17호 법화경(한문)1~7
할인가 4,200원(50권 이상)
정 가 6,000원(1권)

19호~25호 법화경(한글)1~7
할인가 3,500원(50권 이상)
정 가 5,000원(1권)



신묘장구대다리 / 츰부다라니
할인가 150원(500장 이상)
정 가 200원

- 구 성 : 한지낱장
- 크 기 : 636㎜×313㎜

※여러종류의 사경책 · 사경지가 있으니 전화문의 바랍니다!!

※한지백팔사경 5종※



26호 신묘장구대다라니(한글)



27호 반야심경(한문)



29호 츰부다라니(한글)



30호 반야심경(한글)



28호 대불정능엄신주(한글)

※ 26, 27, 29호, 30호는 사경책 1권을 사경하시면 108번 사경이 됩니다.
단, 내용이 많은 28호 능엄신주사경책은 4장 1조로 구성되어 책 1권에 27회 사경할 수 있으므로 총 4권을 사경하셔야 108번 사경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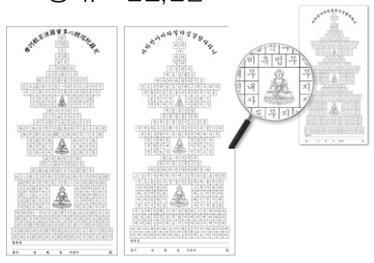
할인가 14,000원(10권 이상) 정 가 20,000원(1권)

- 내 지 : 한지 108장
- 제 본 : 한장본 실제본
- 표 지 : 레자크지 옵셋 4°
- 크 기 : 435㎜×300㎜

※사경지※

반야심경 탑사경
할인가 150원(500장 이상)
정 가 200원

- 구 성 : 한지낱장
- 크 기 : 636㎜×313㎜
- 종 류 : 한문,한글





종이영가옷 / 예수재함 / 종이신발



할인가 1,000 (100벌 이상)
B형-남 정가 1,300원 B형-여



할인가 800 (100벌 이상)
동남 정가 1,000원 동녀



할인가 700 (100벌 이상)
수자영가옷 정가 900원



할인가 800 (200개 이상)
영가천도다라니 정가 1,000원



할인가 180 (600개 이상)
금강경탑다라니 정가 250원



할인가 50,000 (50개 이상)
예수재함A (50개 1박스)



할인가 60,000 (50개 이상)
예수재함B (50개 1박스)



금강호신경
600조 @200원
대량주문시 전화주세요.



종이신발(남/여) 1켤레
100개이상 할인가 1,300원
정 가 1,600원



한지접은 영가옷/위패
각100개 30,000원
• 남자/여자/위패



인쇄접은 영가옷/위패
각100개 30,000원
• 남자/여자/위패

동진기획 · 붓다쇼핑
☎(051) 515-8888
www.buddhashopping.com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 364-2
TEL.(051)515-2988, 555-1087, 508-9377~8 FAX.(051)508-0101
인터넷전화 . 070-7425-0518 H.P 011-554-2988, 011-879-0889

※동진기획 붓다쇼핑에는 100여종의 서적, 900여종의 용품이 있습니다.
불교용품카다록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로 주소를 알려주시면 보내드립니다.
◆국민은행:9011-554-2988 ◆우체국:612416-02-031008 [예금주:강태규]



대행 스님

내 마음의 주인공을 믿고 거기에 모두 맡기세요

(지난 호에 이어서)

질문자1(남): 그런데 마음의 공부, 저는 여기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물어봤는데 아직까지 제 가슴에 닿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더 설명을 듣고 싶어서….

큰스님: 그러면 열심히 모든 것을 내 앞에 닥치는 대로, 아까 얘기했죠. 불바퀴에 맡겨놓으면은 부서지고 타고 시신도 없어진다고요. 그러니깐 과거의 업보라든가 유전성이라든가, 영계성이라든가 인과성이라든가 그런 게 무조건 바로 타버린다고요. 녹아 없어진다고요. 그러니 열심히 하십시오.

질문자1(남): 불바퀴라는 것이 마음을 뜻하는 겁니까? 아직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큰스님: 그건 스스로서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질문자1(남): 예. 감사합니다.

큰스님: 한 걸음 한 걸음, 국민학교 학생이 대학교를 가려면 안 되니까 열심히 하시면은 알게 되겠죠. 우선에 모든 것은 자기 한마음 주인공을 믿고 거기에 들고 나는 모든 것은 거기라고 믿고 거기에 맡기고 사십시오.

어떻게 해야 공부를, 마음의 공부를 잘 하는 건지 아시는 분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잠시 말씀을 멈추시고) 없습니까? 허허허. 그래요. 항상 하는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공부를 잘 하느냐고. 그런데 여러분은요, 여러분이 있는 줄 알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공(空)해서 아니,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내가 내가 아니라고요. 아버지가 됐다가 남편이 됐다가, 형님이 됐다가 아들이 됐다가 사위가 됐다가 온통, 그러고 또 그것뿐입니까?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이 맘 가졌다가 저 맘 가졌다가 그러니 어떤 거 할 때 여러분이라고 할 수 없으니 공해서 여러분은 공한, 한 물건입니다. 그 물건이 너무도 많이 하기 때문에 그게 어떤 놈이겠습니까? 다, 한 놈이지. 한 놈이란다고 또 절욕하지 마십시오. 하다보니깐 그렇게 됩니다. 그 한 사람이 모든 일을 하는데, 그러니 이것부터 알아야 하나로 돌아가는 걸 알죠. 네? 여러분이 모두 하나로 돌아가는 거 무(無)와 유(有), 이 세상만사가 하나로 돌아가는 거부터 알아야, 그거부터 알아야 그 하나마저도 없는 도리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그저 누구 말마따나 모아모아 닥치는 대로 이놈이 (가슴을 짚어 보이시며)



그림 · 최주현

하는 거니까 이놈이 해결할 수 있고, 이놈이 하는 거니까 이놈이 성사를 시킬 수도 있고, 이놈이 하는 거니까 이놈이 우울한 것도 우울치 않게 할 수도 있고, 즐겁게도 할 수 있고, 아주 비관을 사게도 할 수 있는 이놈이 바로 그놈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열심히 이 공부를 해서 뭐, 누구 주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이 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나라와 국민 아니, 세계 모든 중생들과 더불어 보이지 않는 반의 중생들, 그런 사람들을 다 건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실천을, 궁행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돼야만이 나도 좋고 싱긋이 웃을 수 있고, 여러분도 좋고 싱긋이 웃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도리를 통달한 분이 한 번 웃는데, 이 우주법계가 다 웃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나한테 질문할 게 없습니까? 만약에 이 대답을 한 번 하면 내 상을 주죠, 또. 우리 스님네들은 말고요. 과거가 현실이고 현실이 과거라면 어떤 게 옳겠습니까? (부축을 받으면서 나오고 있는 여신도를 보시며) 상 받으려고 애를 쓰네. 허허허. (대중 웃음)

신도3(여): 스님, 저는 대구 사는데요. 스님, 그 질문하신 그것은 현재 아닙니까? 현재. 그런데 스님 제 말을 잘 못 알아들으시겠죠. 제가 사고가 났습니다, 교통사고. 87년 7월 15일날, 교통사고 났거든요. 그래서 제 말이 그렇습니다. 스님, 이해하세요. 스님이 질문하신 그 대답은 현재 아닙니까?

큰스님: 현실이라고?

신도3(여): 네.

큰스님: (고개를 좌우로 흔들어 보이시고) 그렇게, 그렇게 물질세계에서 우리가 상상해서 지금 현재 돌아가는 걸 보고 말하는 건 아는 게 아닐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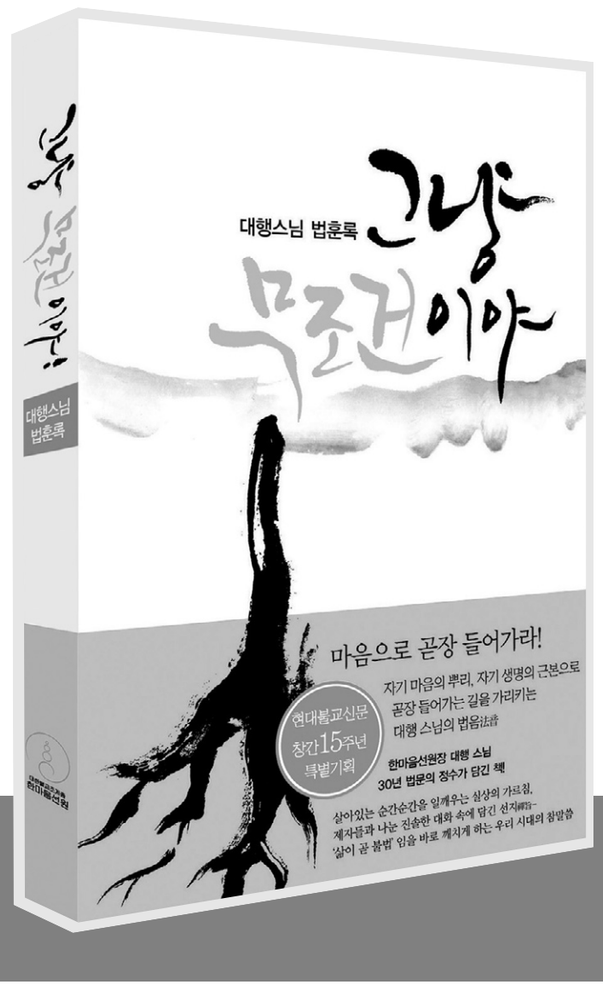
그전에는 땅 속에 씨를 뿌려서 자라게 했고 싹이 나오도록 10년, 20년, 30년 이렇게 해나왔는데, 인제는 좀더 거름도 줘야겠고 좀 북도 돋아줘야겠고, 이러니까 하나하나가 인제 이렇게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이 그릇이 커져야 나도 그릇이 커질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작으면 나도 작을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죠. 만약에 건방지게, 요만한 (물컵을 들어 보이시고) 그릇에다가 한 드럼통을 붓는다 해봤던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이 요 종지라면 나도 종지일 수밖에.

공부들 열심히 해서, 지금 현재의 가정을 열심히 이끌어가고, 조화를 이루고 화목을 도모해서, 항상 마음을 부드럽게 가지고 부드럽게 말해줄 수 있고, 모든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내 탓으로 돌리고 남을 원망하지 말고, 앞으로 젊은 사람들도 그렇게만 해나갈 수 있다면 큰 대지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 반면에 모든 산천초목을 다 근본으로 마음에 두고 양식삼아 정말이지 여러분은 대성공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젊은 분들이라고 해서, 이 속에서 이런 게 나온다고 해서 '아하, 이거 이렇게 나오는 거는 내 주인공이 이렇게 나오게 하는 거니까.' 굳이 이런 말을 안 해도 아시겠죠.

예전에 어느 스님이 팥죽을 쑤다가 팥죽이 부글부글 끓으니까 그거를 주걱으로다가 "요놈도 문수! 요놈도 문수! 요놈도 문수!" 그러고 주걱으로 쳤답니다. 그랬듯이 여러분은 이 속에 지금 악업 선업이 잔뜩 끓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울 지어서 악업 선업이 속에서 들입다 나오는 거는 어떤 사람 어떤 솥에서 방울방울 지어서 나오는 것입니까? 여러분 팥죽 솥에서 팥죽이 끓는 소리죠. 그러니 그것도 그 사람이 한 거고 그것도 그 사람이 한 거고, 그 팥죽 하나하나 방울방울 올라오는 거 이런 거 치미는 거, 보고 듣고 비위 상하는 거, 나라를 원망하고 또 시대를 원망하고, 내 가정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온통 친구를 원망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이것은 바로 넝마밖에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갈갈이 찢어진 넝마.

그러니 모든 것을 거기다가 맡겨놓고 '네놈이 이끌고가는 거니까, 내가 속에서 불화가 일어나도 바로 네놈이 가라앉힐 수 있는 것이니까.' 하고 거기에 맡겨놓을 때 비로소 행복감이 젖어드는 것입니다. 그러고 큰 인물이 돼서 나중에는 수천 수만을 이끌고간다 하더라도 한 명, 자기 발로, 즉 말하자면 이런 거 있죠. 수천 명을 끌고간다 하더라도 하나도 걸림 없이 끌고갈 수 있다. 돈벌레가 다리가 그렇게 많아도 하나도 거침없이 끌고갈 수 있다 이런 소리나 똑같습니

☞ 22면으로 계속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한마음 선원장 대행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현대불교 현불샵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www.hyunbulshop.com

세상만사 무상한 걸 알아야 각오가 뚜렷해져요

☞ 21면에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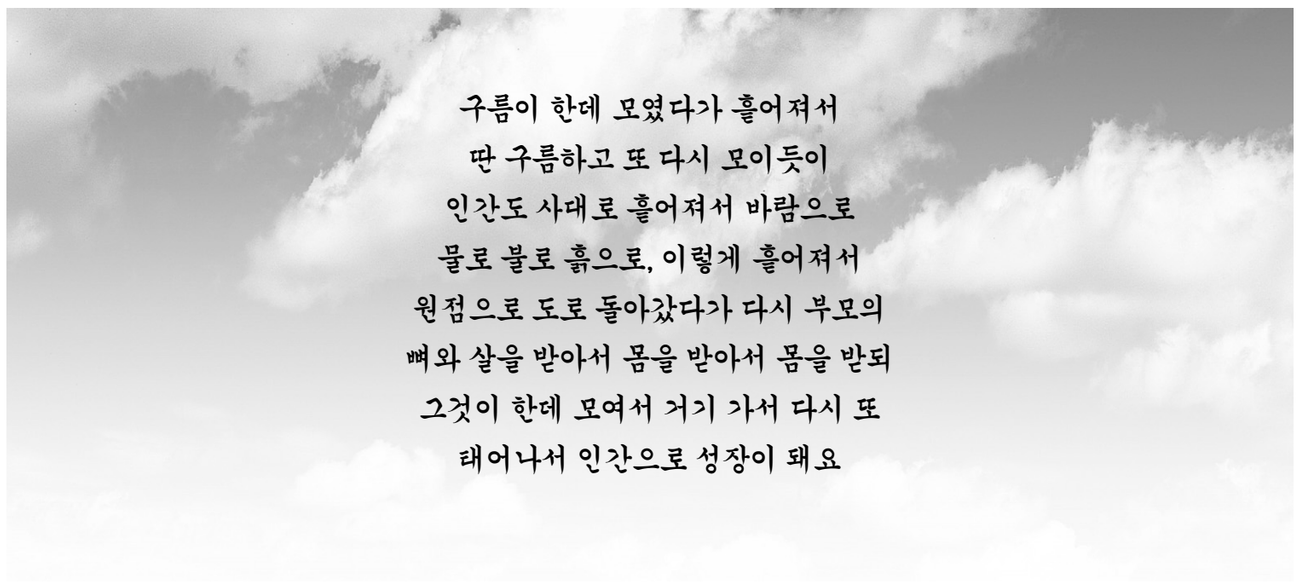
다. 그게 내 발이니까. 내 마음이요 내 발이요, 바로 내 마음내는 것이니 그대로 둥글게 모가 안 나고 여여하게 그 돈벌레가 다리가 그렇게 많아도 그 어디 걸리지 않고 가듯이….

이 마음이라는 건 바로 실체가 아니어서 큰가 하면은 작고, 작은가 하면 큽니다. 여러분 사계절도 사계절 나름입니다. 보세요, 가을이 돼서 장마가 크게 드는 때도 있고 적게 드는 때도 있고, 사람이 많이 피해 보는 때도 있고 적게 피해를 보는 때도 있습니다. 이게 고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가을도 가을 나름이요, 봄도 봄 나름이요, 겨울도 겨울 나름이다 이겁니다. 여름도 여름 나름이고. 그러니 여러분이 마음먹기에 달렸다. 여러분이 마음으로 지어서 업보를 만들고 유전을 만들고 인과를 만들고, 그저 이 세균도 업신여기고 저런 지렁이도 업신여기고. 여러분 뱃속에는 지렁이도 있고 전부 있습니다. 여러분 뱃속에 없는 게 없이 모습도 아주 다양하게 가지고 있으나, 그놈들이 소임을 맡아가지고 운행을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 아주 떳떳하게 이렇게 사랑하고 뭐 하고 뭐 하고 이러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업신여기겠습니까? 여러분이 저 벌레를 보면 아주 징그럽다고 하죠. 나도 그랬습니다. 지금도 모습은 그렇겠죠. 그러나 마음이야 어찌 둘이겠습니까?

그러고 또 이런 게 있죠. 마음이 착하고 어질고 참 욕심 없는 사람이 돈을 왕창 벌었을 땐 남하고 같이 나눠 쓰지만, 마음이 강하고 아주 욕심 많고 그냥 못된 사람이 돈을 왕창 벌면 그거는 허튼 데다 쓰는 겁니다. 나쁜 짓만 하죠. 그러듯이 우리 인간만 그런 게 아니라 저 짐승들도 모두 그렇죠. 그래서 독 있는 풀이 이슬을 맞으면 그 이슬은 아주 참 감로수와 같은 물인데 그 독풀이 빨아들이면 독이 돼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약풀이 마시면 약이 된다 이거야, 사람을 살리는. 응? 이러니 누구 탓입니까, 이게 다? 다 여러분 탓이지. 이 모두가 여러분이 사람 업신여기지 말고 항상 가정에서도 배신을 당했다 하더라도 아들이 공부를 잘 못한다 하더라도 어떠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내탓으로 돌리라는 애깁니다.

지금 여기 선원에는 정신이 좀 잘못된 이러한 분들도 많고 백혈병이니 또는 골수암이니 또는 무슨 암이니 속앓이니, 뭐 별 병이 다, 병원에서 못 고치는 병들을 다 가지고 여기 재료로 삼아서 옵니다. 그러나 그게 재료지 여기에 의사가 있어서 병 고쳐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재료로 삼아서 거기서 나온 거니까 거기다가 맡기고 거기서 해결해야지 누가 해결을 합니까? 몸속에도 중생들이 소임을 맡아가지고 다 하고 있는데 모든 자기입니다, 자기. 음? 여러분 몸속에 있는 그 하나하나의 세균이 여러분이 아니고 딴 분입니까? 그러니까 각각 다 소임을 맡아가지고 하는데 거기서 파업을 일으켜서 잘못한 거라면 거기서 가라앉히고 거기서 낫게 해야죠. 안 그럴까요? 그래서 70% 정도는 우리가 감당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전부터 말을 하지만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몸이 피곤하고 병이 들면은 인간이 허무하고 정말이지 살 맛이 안 나고 죽고만 싶고 허망하기만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허망한 게 아닙니다. 이 세상만사가 무상(無常)한 것을 알면서 도리어 이가 앙다물어지면서 나는 이 도리를 알아야겠다는 그 각오가 뚜렷하게 섭니다, 오히려. 언젠가는 아파서, 언젠가는 사대(四大)가 흩어져서 허망한 게 아니라 원점으로 돌아갈 때 한데 모였다가, 구름이 한데 모였다가 흩어져서 딴 구름하고 또 다시 모이듯이, 인간도 사대로 흩어져서 바람으로 물로 불로 흙으로, 이렇게 흩어져서 원점으로 도로 돌아갔다가 다시 부모의 뼈와 살을 받아서 몸을 받되 그것이 한데 모여서 거기 가서 다시 또 태어나서 인간으로 성장이 되니깐요.



인간뿐만 아니라 마음을 잘못 썼다 하면 소로도 태어나고, 독사로도 태어날 수 있고, 개로도 태어날 수 있고, 만약에 마음을 잘 썼다면 사람으로 태어나되 장관으로도 태어날 수 있고 대통령으로도 태어날 수 있고, 이 세상을 다 누빌 수 있는 그런 통달한 성인이, 성자가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거 정말 여러분의 마음에 달린 겁니다. 그러니 그 마음 마음, 그 마음이 천차만별의 이 모든 살림살이들을 들고 내는데 그놈이 하는 거로구나 하고 믿고 거기에 맡겨놓고 좀더 한 걸음 뛰어넘을 수 있는, 도량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한 여분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좀더 이끌어보십시오. 그럼 오늘 질문도 안 하시고 그러니까 난 오늘 이것으로써 마치겠습니다.

늙으면 이 몸뚱이는 쇠약해지죠. 저 나무도 늙어서 고목이 되면은 껍데기가 흐치흐치해지고 진물이 나고 그래요. 사실은 제가 채공도 해보고 공양주도 해보고 또는 불목도 해보고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안 해본 것 없이 그렇게 어려서부터 했죠. 물지게를 안 졌나, 물지게 지는 건 그냥 한 번 이렇게 지는 게 아닙니다. 일전을 가지고 가면 오푼에 한 통씩이니까 그 일전을 가지고 가면은 한 지게죠. 한 지게를 받기 위해서 줄을 서서 그걸 받아서 지고 와야만 했습니다. 지금처럼 샤쓰가 있고 신발이 올바른 게 있었다면은 고생도 덜했을 텐데, 그런 거를 사서 떨고 섰다가 그거를 지고 오면은 지고 오는 대로 엎질러지면 그 귀한 물을 엎질렀다 이거죠. 신발은 반짝짜리 '게다'를 끌어야 하고 이러한 문제들이 너무 내 인생을, 그렇게 채찍들이 가차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럴 때 나는 무슨 생각을 한 줄 아십니까? 하나도 누구 원망을 안 했습니다. 단 "엄마!" 이렇게 부를 거를, 이 속으로 "아빠!" 그러고는 아빠 한마디 목이 메어서 불러놓고는 우는 거죠, 뭐. 어쩌겠습니까? 그 나이에. 아홉 살부터 말입니다. 세상을 그렇게 하다보니까 불쌍한 사람도 나 같은 사람도 어떡하면, 어떡하면 있는 사람 거를 훔쳐다가, 허허허, 그 고생하는 사람한테 몰래 밤중에 갖다가 주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굶고 부황이 났을 때 이거를 훔쳐다 주어서 거기다가 갖다가 놓으면, 그거를 아침에 보면은 얼마나 좋아할까? 이런 생각에서 밤잠을 이루지 못한 채 엉뚱한 생각에 밤을 허옇게 샜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하고자 하는 일이 밀고 나가면 안 되는 일이 없다는 거를 나는 아주 자신만만하게 생각했습니다. 사실은 그랬으니깐요.

이 무심(無心) 도리라는 것이 전체…, 이게 고만둔다고 하고 또 자꾸 말을 해서 안됐습니다만… 아니, 그거를 보이지 않는데, 내 몸이 보이질 않아야 가지고 가지 않느냐 이겁니다. 내 몸이 보이는데 붙잡히지 그게 붙잡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붙잡히지 않는 그런 도리를 아주 밤이면 밤새도록 잠을 안 자고는, 그냥 드러누울 수가 없습니다. 너무 눈물이 흐르고, 세상이 각박하다보니까는 먹을 것이 제대로 있습니까? 입을 것이 제대로 있습니까? 신을 것이 제대로 있습니까? 그런 데다가 부모 밑에서 사는 사람들은 좀 낫겠지만 나야 이리저리 떠도는 신세가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렇지만은 나는 거지가 아니라 돈 몇 푼 주는 것도 받지 않았죠. 그저 다만 얻어먹은 거는 간장물밖엔 없었습니다. 가다가 쓰러져도 그대로 인생이 한 번 죽는 거, 죽으면 죽는 대로 살면 사는 대로 그냥 걸어갔을 뿐이죠. 나한테 닥치는 거 마다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어느 날 그러더군요.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조그마한 초립동이가 아니, 조그마한 동자가 행전을 상그렇게 매고 키 하나를 들고선 허공에 나섰습니다. 허허허, 그것이 은사가 키 하나를 들려서 내보낸 거죠. 그거를 영 스무살이 되도록 몰랐다가 그게 의문이 났습니다. '키 하나를 줘서 내보내다니 그게 참, 그게 뭔가?'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벼는 찧어놨으나 까부르질 않아서, 닦아라 이 소리지. 벼는 다 절구질을 해서 찧어놨으나 아이, 까불러야 될 거 아닙니까? 이 까부르질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키 하나 줘서 내보냈을 수밖에, 음! 그 어린 게 키 하나를 들고 사막 같은, 엇그저께 그 콜로라도에 갔을 때의 그 끝도 없는 사막과 같았어요. 끝도 없어, 하여튼. 황야야, 그냥. 그 황야를 그때에 보는 그 심정이야. 키 하나를 들고 어린 동자가 키 하나를 들고 나섰다 이거야. 갈 데 못 갈 데 뭐, 증명해놓은 무슨, 아니, 그 주막이 있습니까? 이 진리라는 건 주막도 번지수도 없는 겁니다. 끝도 기약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갈 자리를 마련해놓고 가는 게 아니라 무조건 키 하나 들고 그냥 나섰죠.

그 키는 누가 줬느냐고요? 허허허. 은사죠. 내 은사. 내 은사는 내 가슴에 있겠죠. 그렇게 해서 그것을, '저 키를 집어라.' 그 남이 내버린 키야. 이거를 하나 집고 그걸 몰랐단 말이야, 글쎄. '그 키를 집어라.' 집었지. '이걸 가지고 가자.' 가라 이거야. 그걸 들고서 가다가보면은 또 바닥이 차면 그걸 깔고 앉고 그랬지 뭐, 모르니깐. 허허허. 나 참 재미있게 살았다고. 얼마나 인생을 재밌게 살았는지…. 여러분은 그런 맛을 못 볼 거야, 아마. 못 봤을 거야. 음. 그 어디 가서 앉았으면, 돌에 앉았으면 그것 깔고 앉았고, 풀에 앉아도 때에 따라서는 그것 깔고 앉고. 아, 그러다가 보니까 어느 날 그것이 홀연히, 그 키가 그 키가 아니라, 키가 아니라 키야.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당신은 정말 이 세상을 줘도 바꿀 수가 없는 당신이요, 당신을 보고 싶소." 하고서 하니까 "야, 색경을 봐라." 그래. 허허허, 그랬던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다가 그렇게 한 것도 이것이 무슨 뭐 경을 보고 설법을 듣고 뭐, 절집에 왕래를 자주 하고 이랬어야 알지. 그래서 어느 큰스님을 찾아가서 점검을 자꾸 했던 거지. 내가 그렇게 발부터 들어서지 않았더라면 여러분도 모두 발부터 들어서지 않아. 이건 그냥 결사적으로 발부터 들어서야지 둘이 아닌 까닭에 너는 너고 나는 나기 때문에 발부터 들어서야 된다 이 소리야. 그냥 너는 너. '대행 스님은 저기 그냥 계시니까 난 여기 있으니깐' 이럭하고, 제주도에서도 그렇게 지내고 있거든, 응?

그런데 모두가 둘이 아닌 까닭에 따로따로, 모습은 따로따로 돼있는 거야. 저 봐. (천정의 전등을 각각 가리키시고) 셋이 다 따로따로 있잖아? 그렇지만 전력이 똑같은데 어찌 따로따로 있는 거냐 이거지. 전력이 없다면 저거 빈 전구밖에 없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어, 척척 떼버리겠지. 마음대로들 이건 자유니까, 공부를 하고 못 하고는 자유야. 그러니까 먼저 들어오고 나중 들어오고 그게 없습니다. 이 선맥을 이어받는 데는 나중 들어오고 먼저 들어오고가 없다는 것을 아시고 공부 열심히들 하십시오.

※위 법문은 1991년 6월 16일 정기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현대불교신문 · 미얀마문화원 공동캠페인

자비의 미얀마 돕기

행복한 나라, 미얀마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합시다

안녕하세요!
미얀마 친선대사라는 중책을 맡아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림, 김혜옥 불자입니다.




'자비의 미얀마 돕기' 캠페인의 놀라운 성과에 불자로서 큰 자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얀마의 어려운 환경은 저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저희 불자들의 작은 관심이 미얀마 국민들에게는 더 없는 큰힘이 되고 있습니다. 불자님들의 작은 보시가 그들에게는 생명의 물이 되고, 미래를 위한 교육이 되며, 부처님을 받드는 신심이 됩니다.

미얀마 극빈촌 어린이의 맑은 미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을 향한 그들의 진실한 믿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속적인 보시와, 봉사활동, 자매결연 등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불자님에 맞는 방법으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미얀마연방정부 추대 미얀마친선대사 김용림 · 김혜옥

부처님 당시의 수행법을 지켜오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밝은 미소로 성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초기불교의 원류 미얀마...
현대불교신문과 미얀마문화원은 '자비의 미얀마 돕기' 캠페인을 통해 불교전통의 아름다운 나눔의 향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 극빈마을 공동우물 파주기 지원
  식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극빈 마을에 불자님의 이름으로 공동우물을 지원합니다.
  개인 또는 단체로 우물건립 불사에 지원 가능합니다.
- 신뿌 출가의식 지원
  신뿌는 미얀마인이 10세 전후로 해야 하는 출가체험 행사이며 미얀마인의 가장 큰 기쁨의 행사.
  비용이 없어 신뿌 의식을 행하지 못하는 빈곤 가정에 비용을 지원합니다.
- 코리아 종합 기술대학교 건립비용 지원
  나인따야에 건설중인 코리아기술대학은 미얀마 현지인을 대상으로 외국어, 컴퓨터, 자동차, 등 실용기술을 무상교육하여 빈곤 청소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010년 12월 12일 신축공사가 시작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어린이 교육지원
  교육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아원, 초등학교 설립 및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용품 및 교육자료 지원에 불자님들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 후원물품 지원
  후원금 외에 생활에 필요하고 전달 가능한 것이라면 어떠한 물품도 접수받고 있습니다.
  먼저 담당자와 통화 하신 후 보내주시면 봉사단 방문 시 현지에 직접 전달 합니다.
- 봉사단 참여 (국제붓다자비봉사단)
  미얀마 문화원을 통해 미얀마 현지에 대한 봉사단으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문 의 : 미얀마문화원 상영민 국장 02)733-5670 현대불교신문 이동격 부장 02)2004-8214
후원금 입금계좌 : 농협 301-0016-0537-91 국제불교지도자협회 ※후원물품은 현대불교신문사 담당자 통화 후 보내주시면 됩니다.

* 후원내역과 전달내용은 현대불교신문 지면을 통해 정기적으로 공지합니다.

현대불교 · 미얀마문화원

불자 세상보기

종북 반미주의 '진보' 일 수 없다



송재운
동국대 명예교수

탈북자 출신으로 첫 국회의원이 된 조명철 의원은 얼마 전 모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인권과 탈북자 문제를 다루려 국회에 들어갔는데 진보당을 보니 대한민국 이념과 정체성을 지키는 일이 더 급선무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3월 31일 19대 총선 150자 정책대결문에서 "탈북자 북송을 확실하게 비판함으로써 국가 인권의지를 명확히 하고 원인 제공자인 북한의 책임, 변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함과 동시에 대중국 설득 및 국제적 압박외교를 병행해 문제를 실효적으로 해결 한다"고 강조한바 있다. 그러던 그가 국회 등원 직전 '대한민국 지키기'로 변했다. 탈북자인 그가 보기에도 국가의 안위가 위태로웠기 때문일 것이다.

지금 내홍을 겪는 통합진보당 구당권파를 NL주사(主思)파라고 한다. NL은 'National Liberation'의 약자로 '민족해방'을 뜻한다.

1980년대 대학가의 운동권에서 NL주사파는 김일성 부자의 우상화와 북한 주체사상을 철저히 신봉해 남한 사회를 북한식 공산주의로 적화통일 하려는 목표가 있었다.

그리고 이런 그들의 이념 투쟁에는 북한의 깊숙한 관여가 있었다.

386세대에 있어서 주체사상의 대부로 불리는 이른바 '강철서신'의 저자 김영환씨. 그가 NL 핵심세력이던 지하조직 '민혁당(民革黨)을 97년 해체하고, 99년에 전향하면서 발표한 글에 따르면 80년대 대학운동권에 민족자주, 반미주의, 주체사상에 불을 당긴 것은 자신이라는 것이다.

89년 7월 남파공작원에 포섭돼 북과 연계를 맺고 활동했다는 것이다. 이때부터 NL주사파는 북한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당시 주사파 운동 주동자 김영환씨는 91년 밀입북, 두 차례나 김일성과 만나고 각종 교육까지 받고 돌아와 활동했고 이후 북한과의 관계는 지속 됐다고 한다.

1999년 10월 발표한 그의 사상 전향문 속 고백은 단적으로 주사파가 북한과 깊숙한 연관이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과거는 미래의 거울이라 했다. 지금 주사파에 대해 우리들 생각은 과거의 거울에서 떠나지 않는다. 솔직히 말해 과거로 미루어 볼 때 주사파가 지금도 북과의 관계가 아주 없다고 단언할 수 없다.

김영환씨는 김일성을 만난 뒤 그의 고루한 사상과 젓가락처럼 앙상하게 마른 북한 어린이들의 팔다리를 보고서 우파로 전향 했다.

그리고 북한인권운동가로 활동해 오다 지난 3월 29일 중국 대련서 중국정보당국에 의해 다른 3인과 함께 체포돼 단동 국가 안정청에 강제 구금중이다.

한국사회에서 이른바 진보정치를 하는 통합진보당이 지향하는 NL주사파

진보는 기층민 위한 이념 필요
종북 주사파 국회 진출 막아야
민주주의 목적은 자유와 평등

종북주의자라면 이것은 분명 '진보'라고 할 수 없다.

진보는 가난한 서민이나 어려운 노동자 등 사회 기층민을 위한 이념이나 정책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 통합진보당은 첫째 북한을 먼저 추종한다. 그래서 이들은 우리 국기에 대한 의례나 애국가를 부르지 않는다. 둘째 그들은 미군철수, 한미동맹의 해체를 내세운다. 이것은 북한의 주장과 다르지 않다. 때문에 "종북(從北) 보다는 종미"가 더 문제다.

셋째는 민족지상주의다. 이 주장 앞에는 민주적 절차나 합리적 방식의 문제해결방안이 통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들은 목적을 위해서는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또한 사물을 보는 가치 기준이 보편타당성에 있지 않고 자신들의 교조주의에 있다.

그래서 지극히 주관적이고 독선적이다. 그런데 이런 종북 주사파들은 비단 통합진보당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정치권과 종교계, 문화계, 언론계 등 각 분야에 걸쳐 확산돼 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갈등하고 이념적으로 혼란스러움을 극한적으로 느끼는 것은 이들 친북, 종북 좌파들의 반민주적, 반국가적인 말과 행동에 기인한다. 이런 사람들이 국회에 진출하는 수가 대(代)를 거듭할 수록 늘어난다는 것은 심히 우려스럽다.

불교는 중생을 위하고 잘 살게 하는데 궁극적 목적이 있다. 자유민주주의 역시 특정 계급이 아닌 국민, 즉 중생을 위하고 잘 살게 하는데 정치적 이상을 둔다. 그러므로 자유민주주의와 불교는 다 같이 자유와 평등을 생명으로 삼는다. 불교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해야하는 절대불변의 이유다. 이점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상기하자.

조명철 의원은 귀순하기 전 김일성대학 교수로서 북한 사회를 몸소 체험한 사람이다. 그가 이들 종북 세력을 새삼 경계하는 진정한 뜻을 우리는 깊이 새겨 둘 필요가 있다.

社說

매일 매일을 부처님오신날처럼

불기 2556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행사가 마무리됐다. 승려 도박 사태로 여느 때보다 뒤숭숭했지만, 전반적으로 별 무리 없이 잘 치러졌다는 평가다. 무엇보다 소외 계층과 이웃들을 위한 행사들이 많아진 것은 눈길을 끄는 부분이다.

조계종은 나눔의 집 일본 위안부 할머니와 쌍용차 노조, 용산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을 5월 28일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에 초청해 헌화를 진행했다. 우리 사회의 소외된 이웃들이 부처님 전에 꽃을 올리는 공덕을 쌓게 하자는 취지였다.

천태종도 부처님오신날인 5월 28일 총본사 구인사에서 불교,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 등 국내 종교 지도자들과 다문화 가족 등이 참석해 간담회를 열고 부처님 오신 뜻을 기렸고 수행공동체 정토회도 이웃종교인, 사회 인사들과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했다.

대구에서는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개그콘서트가 열리기도 했다. 이밖에도 복지관, 개별 사찰에서 다양한 계층들을 위한 봉축 나눔 행사들을 진행하고 있다. 대사회적인 사업을 통한 사회의 소통과 화합에 일임을 담당하는 종교가 가진 본연의 의무에 충실한 모습들이다.

하지만 이 같은 행사들은 단순히 단발성 행사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지속성이 없다는 이야기다. 부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중생에게 지혜를 증득케 해 자비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다. 수행 정진은 쉼 없이 꾸준히 이뤄져야 하듯이 자비행도 흐르는 물처럼 끊이지 않아야 한다.

우리 불자들이 진정 불국토를 원한다면 매일 매일을 부처님오신날처럼 살아야 할 것이다. 그것이 한국불교의 실추된 위상을 회복하는 길이기도 하다.

'땡큐 경허' 등 TV의 봉축 특집

세계적인 불교학 두 거장이 부처님오신날 안방극장을 통해 한국을 찾았다. 그 주인공은 평화인권 운동가 로버트 서먼(Robert Thurman · 71) 컬럼비아대 명예교수와 루이스 랭카스터(Lewis Lancaster.78) UC버클리대 명예교수이다.

서먼 교수는 5월 25일 방송된 MBC 스페셜 부처님오신날 특집 '땡큐 경허-禪을 묻다' 편에서 경허스님 탄생 1백주년을 맞아 경허스님 순례기, 한국 선불교의 큰스님들을 만나 경허 선사상이 갖는 이 시대의 의미를 들었다. 특히 설정 방장 스님과의 대담에서는 경허 스님이 한센병 환자와도 방을 같이 썼다는 일화가 가장 감동스러웠다고 했다. 그리고 경허 선사가 살아계셨다면 꼭 그의 제자가 되고 싶다고도 했다.

이어 KBS-1TV서 5월 27일 재방영된 대장경 천년 '다르마'에서 랭카스터 교수는 "대장경이 없었더라면 불경 네트워크의 그 어떤 집적물도 이뤄내지 못했을 것"이라며 "수천년 전의 신기술인 대장경과 오늘날의 디지털 신기술을 접목해 나가는 게 개인적인 과제"라고 밝혔다. 1979년 해인사 고려대장경 영문목록을 발행해 한국 불교를 세계에 알리는 계기를 마련한 랭카스터 교수는 50여년째 불교를 연구하고 있다.

이렇듯 양질의 불교 소재 프로그램을 공중파 방송에서 제작해 방영한 것은 참으로 고무적인 일이다.

이 두 프로그램은 불교의 세계화 시대에 우리 불교 언론 매체가 앞으로 어떤 방향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하는지 좋은 모델이 됐다. 현재 교계 언론 환경은 해외 관련 큰 기획을 제작하기에 다소 인력과 장비, 시설 및 시스템이 부족한 상태다. 하지만 세계화 시대를 맞은 지금이야말로 이런 기획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큰 눈을 떠야할 때인 것 같다.

발언대

'참회합니다' 전 불자 운동 펼치자

5월 4일 처음 세상에 알려진 승려 도박 사태는 한 달이 지난 지금 한국불교의 총체적인 부실 구조에 대한 비판으로 확대됐다. 불교 전문지, 중앙 일간지, 방송에 연일 기사가 쏟아졌고, 국민과 불자들은 수많은 인터넷 댓글들로 자신의 의견을 표명했다. 도박 사태 한 달, 본지 홈페이지에 통해 불자들이 올려준 의견들을 정리해봤다. 〈편집자 주〉

ID김영찬

스님 저도 마음이! 정법 스님 그래도 종단을 책임지려는 모습이 보입니다. 열심히 종단을 걱정해온 스님! 존경합니다.

ID불자여 바로보아라

참회를 하려면 포살법회서 해인총림을 비롯한 제방 사찰에서 대중들 앞에 할 것입니다. 모든 소임을 놓고 10년은 걸망을 메고 선방 등에서 공부만을 할 것입니다.

ID현

뜻을 모을 때 입니다. 이번 일로 불교계 전체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종단이나 각 신도회에서도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으려 노력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사부대중의 이런 노력들이 헛되지 않도록 불필요한 비난과 논쟁거리를 스스로 만들지 않아야겠습니다.

ID길상

부 · 실장만 사퇴할 것이 아니라 총무원장도 자리를 스스로 내려놔야 할 듯 싶습니다. 불자로서 너무 부끄럽습니다.

ID강임경

도박스님들, 몰래 카메라 설치자, 모두 종단에서 영구퇴출 및 법적 구속하십시오. 또 정신적 스승이신 방장스님 49재에 참석하기 위해 왔으면 큰스님을 생각 하면서 정진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너무나 실망스럽습니다.

ID종혜처사

지나가는 폭풍! 도가 높아지려는 마치 지나가는 폭풍이 아닐런지요. 부디 어려움 극복해나갑시다.

ID삼계도사

중생이 아프면 부처도 아프다. 잠은 4시간 자고 아침, 점심 2끼 먹고 화장실 가는 시간 2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18시간 화두 챙기고 좌선하면 반드시 도를 통할 것입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정진을 계속하면 자신의 불성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ID바람

스스로에게 책임지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신도들은 가사장삼을 걸친 스님을 보는 것만으로도 그들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자로 봅니다. 출가자는 여기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ID총무원

대책 좀 세워라. 성호가 저렇게 떠들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데도 총무원은 찍소리도 못하고 끌려 다니는 무력함에 속이 터집니다. 뭐라고 대항 좀 하세요.

ID참된 불자가 되고자

전국 교구 모든 절, 모든 불자님들께서 진심으로 반성하는 '내 탓이요, 참회합니다' 전국 운동을 벌여 한국불교를 살려야 합니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부 산 지 사 : (051)632-0064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나눔과 공생으로 큰 하나 되어가는 공생실천 캠페인
'공생장터'

법우님들의 경기 부양과 재능 나눔을 위하여 **현대불교 협찬**으로
공동 운영 쇼핑몰 '공생장터'를 운영합니다.
법우님 또는 신행단체에서 생산하시는 제품과 상품,
농산물, 문화 활동, 재능과 기능 등 홍보를 필요로 하는
모든 분야에서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천여 개의 품목을 상세하게 홍보할 수 있는
온라인 프로그램을 준비하였으며, 간단한 심사를 통하여
선정된 품목은 사진작업과 온라인 이미지 작업,
쇼핑몰 주문 및 배송관리, 행정업무 등을
본사에서 무상으로 지원해 드릴 것입니다.
또한 인터넷 홍보와 함께 천여 명의 공생인들과 신행단체들이
여러분의 재능과 상품을 홍보하여 드릴 것입니다.



참가 자격: 불자 및 각 종 신행단체
문의: 070-4122-0041 공생장터
www.gongseang.com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통증을 시원하게 날린다!
글로코에이
팔꿈치통증 · 관절통증 · 허리통증 · 어깨 · 목통증



세상에 이럴 수가 통증이 싹

신기술 신물질로 만든 글로코에이크림이 항상 통증으로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새 희망이 되고 있다. 금강닥터사에서 시판되고 있는 글로코에이크림은 팔꿈치 통증, 무릎 관절통증, 허리통증, 어깨와 목의 통증 등에 바르기만 하면 통증이 사라진다.

강원도 정선에 계시는 토굴 스님은 5년 전부터 무릎 관절통증으로 걷기도 힘든 가운데 팔은 괜찮아 손으로 하는 일을 많이 해 팔꿈치 L보까지 통증이 와서 물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웠다. 병원에서 약도 먹고 파스도 부치고 바르는 소염 크림도 발라보고 몇 년간을 노력했으나 새벽만 되면 극심한 통증은 더욱 심해 이것이 나의 고행이라 생각하고 있던 중 50대 후반정도 되는 등산객이 비상용으로 항상 가지고 다닌다는 클로코에이크림을 발라주겠다하여 나도 바르는 약이 있다 했지만 이것은 다릅니다. 하여 무릎과 팔꿈치에 바른 후 30분 정도 지난다음 세상에 이럴 수가 있을까 움직이기만 하면 통증이 오던 것이 사라진 것이다.

등산객은 스님 저도 골프를 너무 좋아해 무리한 운동을 하다 팔꿈치 L보를 다쳐 고생고생하다 이 크림을 만나 지금은 괜찮지만 골프를 못하고 등산으로 취미를 바꿨다는 것이다. 그 후 스님은 전화번호를 알아 2set를 구입했다고 한다. 사찰에서 스님 비상용으로 구입해놓으면 요긴하게 쓸 수 있다. 120㎖×2개. 1set 가격 30,000원(스님 특별할인 가격)

영업사원 모집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金剛닥터사 / 전화 02)2271-1441
농협 015-01-415953 최성욱

아픈이 이제 끝! 美國산 신비의 치약
지금 치아 때문에 고생하세요?



풍치 아픈이 치염 입냄새 등
7일이면 깨끗!!
7일만 닦으시면 평생 고생 안하십니다.

스님! 세상에서 제일 고통스러운 것이 이가 아픈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지만 스님만은 믿으세요. 그러면 치아로 인한고통은 없으실거예요.

사람들은 이가 아플 때마다 확 뽑아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많으나 이 하나 뽑을 때마다 수명이 3년씩 단축된다고 하는 미국 구강학회의 연구가 있듯이 연세가 들수록 이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 미국 구강학회에서 추천한 브라이트 치약은 그동안 오랜 임상 연구 끝에 2006년 4월 28일 미합중국 발명대회 特許 大賞을 수상하였다.

브라이트 치약은 어떠한 치아질환에도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입증되고 있으며 처음 7일간은 아침 · 저녁으로 그 다음부터는 저녁에만 사용하면 구강내의 아픈 증세가 사라지고 계속 사용하면 치아가 튼튼해지는 것을 자각증상으로 느낀다. 이 치약은 사용할수록 윤택을 내며 하얀이로 美白효과까지 있는것으로 사용해본 이들의 찬사를 받고 있다.

전화로 신청하면 우체국 택배로 받아 사용할 수 있다. 가격 : 50,000원
金剛닥터사 / 전화 : 02) 2271-1441
농협 015-01-415953 최성욱

ILDONG 일동생활건강

신이 주신 선물 – 세계10대푸드 선정

인터넷주문 www.idlife.kr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블루베리」

눈건강! 블루베리 장수식품으로 각광!



일동 블루베리 프리미엄 300셋트 파격할인판매!

신이 주신 건강덩어리 '블루베리'

요즘 눈건강의 최대 화두는 블루베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블루베리는 타임지 선정 10대푸드로 선정되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과일이다. 유럽, 미국, 일본 등에서는 이미 건강과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으며 KBS생로병사의 비밀, 뉴스타임 등에 방영되어 점차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블루베리는 북아메리카가 원산지인 철쭉과의 관목으로 열매는 하늘색, 검은색 등으로 한국에서는 정금나무, 산앵두나무 북한에서는 들쭉나무가 있어 열매는 6월~8월에 열리는 과일로 제철에는 생과로 먹기도 한다.

특히 블루베리는 가열을 하거나 냉동을 하여도 영양소 파괴가 되지 않아 쨈, 주스, 과일주, 베이킹 등 다양한 방법으로 먹을 수 있으며 블루베리의 보라색 색소에는 안토시아닌이 다량(복분자의 20배, 포도의 30배) 함유되어 신이 주신 건강덩어리라 할 만하다.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블루베리 다 이유가 있다"

눈건강으로 주목받는 블루베리, 건강에는 더 좋아…



오랜세월 아메리카 원주민의 비타민 보급원으로 건강지킴이 역활을 해온 블루베리는 우연한 기회에 유럽으로 부터 연구하게 되었는데 제2차 세계대전중의 한 영국전투기 조종사가 블루베리 잼을 너무 좋아한 나머지 매일 다량으로 섭취했었는데 이 조종사가 '계속되는 야간비행과 새벽 전투에서 어두움 속에서도 확실하게 앞이 보였는데 이것은 블루베리의 영향이 아닌가 싶다' 라고 언급한 사실을 바탕으로 이탈리아와 프랑스에서 블루베리의 기능성 연구가 시작되었고, 이후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 색소가 눈건강에 많은 도움을 주는것으로 알게 되었다.

그 후로도 세계 각지에서 이루어진 오랜 연구를 통하여 블루베리의 높은 건강효과와 다양한 기능성이 알려지게 되어 '경의의 과일' 이라고도 불리워지게 되었으며 이에 세계적으로 높은 관심과 주목을 이끌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현재 미국, 독일, 칠레, 남아프리카공화국, 일본, 중국 등지에서 대규모로 재배하고 있으며 최근 국내에서도 블루베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새로운 농가 소득원으로 주목받게 되어 과일나무로서 크게 관심을 끌게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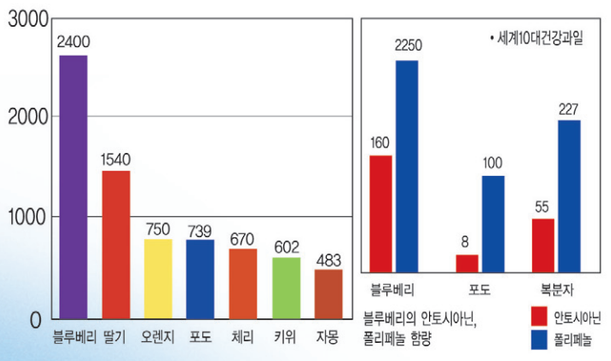
블루베리의 성분은 각종 비타민 A · B · C · E, 안토시아닌, 식이섬유 등이 풍부하게 들어 있어 건강에 아주 좋은 슈퍼푸드로 불린다.

상담문의 : 080-800-0022

블루베리 '장수열매' 관심 증폭

최근 KBS '생로병사의 비밀' 과일건강법 2부 젊음의 파트너 '보라(8월 10일 방영)편에서 블루베리가 소개되면서 블루베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세계적인 장수국가 핀란드에서는 블루베리가 최고의 건강과일로 통한다.
대부분의 핀란드 가정에서는 집안에 블루베리를 보관하며 식재료로 사용하고 있으며, 블루베리로 만든 과자나 빵 쥬스 등 가공식품을 흔하게 볼 수 있다.
블루베리에는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는 '안질' 이 함유되어 있다.
블루베리는 눈길을 사로잡는 멋진 빛깔과 달콤한 맛을 지닌 덕분에 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파란색 과일로도 부상했다. 건강에 좋은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 측면에서도 우수한 과일이다.
블루베리는 페놀 안토시아닌 및 기타 플라보노이드 같은 피토케미컬 성분이 풍부해 눈건강에 도움을 준다.
또한 블루베리에는 섬유질과 비타민, 미네랄이 많이 들어 있다.

젊음의 과일 블루베리 안토시안(anthocyanin) 덩어리



세계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타임지에서도 보석이라고 부를 정도로 어떤 과일이나 채소보다도 산화방지제가 풍부히 함유되어 있으며, 주요 성분으로는 안토시아닌(anthocyanin)과 피토케미컬(phytochemical)로 구성 되어 있다. 안토시아닌은 눈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져 있다.

안토시아닌은 식물이 자외선 등 환경 변화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물질인데 우리 인체에도 이로운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다.
특히, 블루베리는 안토시아닌의 함량이 포도보다 30배 이상 많이 들어있어 안토시아닌을 통한 건강 관리에는 그 어떤 과일보다도 이롭다.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10대 건강식품

이탈리아에서는 안토시아닌의 효능을 인정해 이미 1970년대부터 이를 의약품으로 사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미국의 유명 일간지 〈뉴욕타임지〉는 세계 10대 건강 장수식품 중 하나로 블루베리를 꼽아 눈 건강뿐 아니라 젊음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한다.
이렇게 블루베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좋다.

언론이 극찬한 블루베리

- KBS 생로병사의 비밀 블루베리 2009. 10.15
- 신이 주신 건강덩어리 블루베리 매일경제 2009. 8.10
- 세계 10대 슈퍼푸드 블루베리 2009. 8.26
- 천연 ○○○ 블루베리 조선일보 2009. 7.27
- 블루베리 매일 먹으면 당신의 ○가 웃는다 헤럴드경제 2009. 5.8



KBS 생로병사의 비밀 「단골 블루베리」 안토시아닌 효능소개 / 자연이 준 종합영양제 컬러 과일을 먹어라편 / '눈이 내리는 서리, 노안' 편 안토시아닌효능 2009년 10월15일 방송 / '눈이 내리는 서리, 노안' 편 망막색소증가작용

이런 분께 권해드립니다.

- 눈이 침침하거나 불편한 분
- 장시간 컴퓨터 사용으로 눈건강이 염려되시는 분
- 눈 영양이 필요한 성장기 어린이 및 수험생
- 온 몸이 천근 만근 하신 분
- 과중한 업무에 지친 남편을 위해
- 건강관리가 필요한 중 · 장년
- 장기간 렌즈를 착용하거나 눈건강이 예민한 분
- 부모님 효도선물로도 좋습니다.

직접 비교해 보십시오!
정말 좋은 일동 블루베리진액 프리미엄 탄생!
100% 보장합니다.

일동 블루베리프리미엄은 순수 블루베리만을 넣어 만들었으며, 1포에는 씨, 껍질, 열매 등을 통째로 진액으로 만들어 영양성분이 우리의 몸에서 쉽게 흡수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좋은 제품을 널리 보급하는 일동생활건강
제품의 자신감으로 후불제 전격실시!

300셋트 한정!!
2박스를 더 드립니다.



■ 제품명 : 일동블루베리 프리미엄 ■ 내용량 : 70㎖×150포

문의 및 주문 : 080-800-0022

세계10대 슈퍼푸드 선정
자연이 준 건강덩어리
일동블루베리프리미엄 탄생!



판매원 ILDONG 일동생활건강